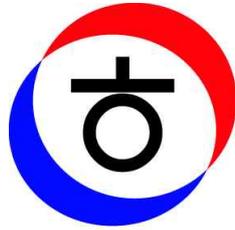


2013년 훈민정음학회
제2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일시: 2013년 5월 11일(토) 11: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지하 강당

주최: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

협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학술대회 일정 >

- **개회식(11:00~11:10)** 사회: 황선엽(서울대)
환영사 이승재(회장, 서울대)

- **기초 강연 (11:10~12:10)** 사회: 황선엽(서울대)
正音 創制와 관련된 몇 가지 問題 임홍빈(서울대 명예교수)

점심 식사 (12:10~13:30)

- **개별 발표 1 (13:30~14:40)** 사회: 정승혜(수원여대)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의 서지와 목서 내용 남권희(경북대), 김주원(서울대)
《訓民正音》 해례본 ‘例義篇’의 구조 분석 정우영(동국대)

중간 휴식 (14:50~15:00)

- **개별 발표 2 (15:00~16:20)** 사회: 고동호(전북대)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백두현(경북대)
훈민정음 원리에 입각한 정보교환 한글 부호계의 평가 변정용(동국대)

중간 휴식 (16:20~16:30)

- **개별 발표 3 (16:30~17:50)** 사회: 한재영(한신대)
훈민정음을 활용한 히브리어 음가 표기 방안 방석종(전 김리교신학대)
훈민정음 발음기관 상형의 역동적 유추해석을 영어발음에 적용 김정도(건축가)

- **폐회식(17:50~18:00)** 사회: 한재영(한신대)

< 모시는 말씀 >

올해는 훈민정음 창제의 570주년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훈민정음학회의 제2회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훈민정음학회는 2007년에 창립되었고, 2008년에 본격적으로 학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정확하게는 2008년 7월에 또 한 권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훈민정음학회의 창립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학회에 서광을 비춰 주는 길조라고 믿어 왔습니다. 이 문화재가 세상에 얼른 공개되어 훈민정음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제목에 모두 ‘훈민정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일치하면서도 내용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일치로 말미암아, 훈민정음학회는 훈민정음만 연구하는 학회라고 잘못 알려질 것 같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습니다.

훈민정음학회는 훈민정음을 비롯한 세계의 문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되, 음운론·문헌학·역사학 등의 인문학적 연구, 정치학·사회학 등의 사회과학적 연구, 컴퓨터 코드와 시스템 등의 공학적 연구도 수용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문자에 관련된 모든 인접학문을 포괄합니다.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회의 기관지 *Scripta*를 국제 공인 학술지로 키우고, 한국을 문자학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가꿔 나아가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훈민정음학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국학술대회는 5월의 화창한 날에 개최됩니다. 부디 이 모임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학술적 성과를 가득 담아 가시기를 빕니다.

2013년 5월

훈민정음학회 회장 이 승 재

< 목 차 >

기조 강연

正音 創制와 관련된 몇 가지 問題(임흥빈)	1
-------------------------------	---

개별 발표 1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의 서지와 목서 내용(남권희, 김주원)	42
《訓民正音》 해례본 ‘例義篇’의 구조 분석(정우영)	66

개별 발표 2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백두현)	103
훈민정음 원리에 입각한 정보교환 한글 부호계의 평가(변정용)	138

개별 발표 3

훈민정음을 활용한 히브리어 음가 표기 방안(방석중)	151
훈민정음 발음기관 상형의 역동적 유추해석을 영어발음에 적용(김정도)	167

기초 강연

正音 創制와 관련된 몇 가지 問題

임홍빈(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序 論

많은 언어학자들이 경이로운 문자 또는 기적의 문자라고 찬탄해 마지 않는 ‘正音’ 또는 ‘한글’의 制字原理가 소상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40년 경상북도 安東에서 『訓民正音』(解例本)이 發掘된 데서 비롯한다. 『訓民正音』(解例本)의 발굴에 의하여 비록 많은 것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 속에 숨어 있다.

正音은 정말로 世宗의 親制인가? 모든 아이디어들이 世宗의 머리에서 나오고, 正音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細部들이 世宗의 손으로 마련된 것인가? 正音이 오로지 世宗의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옆에는 누가 있어서 文字 創制의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한 것인가? 世宗 25年の 實錄 기사에 의하면 正音의 字母數는 28字로 되어 있다. 이 字母數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던 것인가? 世宗 25年の 實錄 기사는 정말로 믿음직한 것인가? 1940년 『訓民正音』(解例本) 발굴 당시 본문 첫 두 장이 훼손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얼마만큼이나 毀損되었던 것인가? 그것을 補寫해 넣은 李容準은 어떤 텍스트를 참고한 것인가? 『訓民正音』(언해본)의 세종 서문의 글자수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訓民正音』(解例本)의 例義에서 字母의 音價를 나타내는 代表字들은 단순히 音價만을 例示하는 글자에 지나지 않은 것인가? 正音에는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임홍빈(2006, 2008, 2012a, 2012b)를 중심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살피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큰 문제들은 이미 임홍빈(2006, 2008, 2012a, 2012b)에서 본 것이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의 논의를 이전의 새롭게 보고자 하며, 잘 지적되지 못한 것도 바로잡고자 한다.

세종이 지은 책은 『訓民正音』(例義本)과 같이 부르기로 하고, 훈민정음을 풀이

한 책은 『訓民正音解例』라 부르기로 한다. 이 둘이 합綴된 책을 하나로 부를 때에는 『訓民正音』 혹은 『訓民正音』(解例本)과 같이 부르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 諺解本은 『世宗御製訓民正音』 혹은 『訓民正音』(언해본) 과 같이 부르기로 한다.¹⁾

2. 『訓民正音』과 『訓民正音解例』

흔히 『訓民正音』(解例本)이라고 하는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訓民正音』과 『訓民正音解例』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 합철된 것이다. 각 권의 이름과 구성 및 行格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認識은 安秉禧(1986)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安秉禧(1986)에서는 『訓民正音』(解例本) 앞에 합철된 『訓民正音』을 『御製訓民正音』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訓民正音』의 본문으로 보고 있다. 『訓民正音』과 『訓民正音解例』의 行款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 『訓民正音』

- | | |
|------------------------------|----------------|
| 가. 구성 : 御製 序文과 例義 | 나. 行格 : 7行 11字 |
| 다. 서체 : 楷書體 ²⁾ | 라. 판심제 : 正音 |
| 마. 張數 : 4張 | 바. 권두제 : 訓民正音 |
| 사. 初聲 提示順 : 全淸, 全濁, 次淸, 不淸不濁 | |

(2) 『訓民正音解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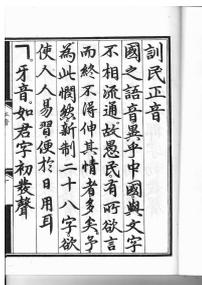
- | | |
|--|----------------------------|
| 가. 構成 : 解例(制字解,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合字解, 用字例)와 鄭麟趾 序文 | |
| 나. 行格 : 8行 13字 | 다. 書體 : 行楷書體 ³⁾ |
| 라. 版心題 : 正音解例 | 마. 張數 : 29張 (別途面次) |
| 바. 卷頭題 : 訓民正音解例 | |
| 사. 卷末題 : 『訓民正音』과 『訓民正音解例』의 統合卷末題 | |

1) 研究責任者 조규태(2007)의 文化財廳 用役 報告書에는 이 책의 이름을 그냥 『訓民正音』이라 復元하고 있다. 世祖 때의 修訂 以前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2) 해서체는 중국 後漢 시대 말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서체로 ‘楷’는 ‘본보기’나 ‘모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표준으로 삼을 만한 서체라는 뜻으로, 모나고 정하고 아름답게 쓰는 정체자를 말한다. 『訓民正音』의 書體에 대한 言及은 安秉禧(1997=2007) 및 金周源(2005)에서 접할 수 있다.

3) 行書는 楷書를 흘려쓴 것인데, 行楷書體는 楷書에 가깝게 흘려쓴 것을 말한다. 行書를 아주 흘려쓰면 草書가 된다.

위의 (1가)와 (2가)에 보인 바와 마찬가지로, (1가)는 『訓民正音』이 世宗御製 序文과 例義로 이루어져 있음 보인 것이며, (2가)는 『訓民正音解例』가 解例와 鄭麟趾 序文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인 것이다. (1)과 (2)가 行格, 書體 및 版心題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 외에도 張次가 따로 매겨져 있는 것이 이 두 책이 別途의 책이라는 端的인 證據가 된다.



한글학회 1997
수정복원본

각각의 책에 序文이 따로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까지 선명하게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訓民正音』(解例本)이 『訓民正音』과 『訓民正音解例』라는 두 책의 합철이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보이는 安秉禧(1986)에서도 이 점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安秉禧(1997=2006:29)에는 鄭麟趾序가 「世宗實錄」 1446년(28년) 9월조에 예조판서 鄭麟趾序曰이라 하고 나타나므로 ‘訓民正音序’임이 確認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3) 安秉禧(1997)에서의 두 개의 ‘序文’에 대한 언급

가. ㉠세종의 서문은 ㉠한글 창제의 동기와 목적을 밝힌 것이고, ㉡정인지의 서문은 세종의 한글 창제의 동기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서 ㉡한글의 우수성을 말한 뒤에 세종의 명령에 따라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짓게 된 경위를 밝힌 것이다(안병희 1997: 30).

나. ㉠세종의 『訓民正音序』는 ㉠한글 창제에 대한 서문이고, ㉡정인지의 『訓民正音序』는 ㉡해례본에 대한 서문이다(안병희 1997: 30).

(3가-1)은 세종 서문의 내용을 말한 것이고, (3가-2)은 정인지 서문의 내용을 말한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정인지 서문에 (3가-2)의 ㉡와 ㉢이 있는 것이다. 이 중의 핵심은 ㉢ 즉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짓게 된 경위’이다. 그것은 정인지 서문이 「訓民正音解例」에 대한 것임을 의미한다. (3나)는 (3가)를 다시 요약한 것이다. (3나)에 의하면 世宗序는 한글 창제에 대한 것이며, 鄭麟趾序는 「訓民正音」(解例本)에 대한 서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訓民正音」(解例本)에는 鄭麟趾 序文 밖에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글 창제’라는 사건에 대하여 序文을 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서문은 책에만 쓰는 것이지, 사건에 대하여 쓰는 것이 아니다. 세종 서문은 「訓民正音」에 대한 서문이고, 정인지 서문은 「訓民正音」(解例本)이 아니라 「訓民正音解例」

」에 대한 서문으로 볼 때에만 그 올바른 문맥에 설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御製 序文과 鄭麟趾 序文이 같은 책에 同時에 있는 것이 아니다. 世宗 御製 序文은 『訓民正音』에 있는 것이며, 鄭麟趾 序文은 『訓民正音解例』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만 임금이 글을 짓고 자신이 序文을 썼는데, 僭濫하게도 거기에 다시 臣下가 序文을 쓰는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진 것이 아니란 解釋이 가능해진다. 『訓民正音』이 獨立된 단책이 되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分量이 지극히 적은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으나 安秉禧(1997=2006:29)에서는 鄭麟趾序가 「世宗實錄」 1446년(28년) 9월조에 예조판서 鄭麟趾序曰이라 하고 나타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는 「朝鮮王朝實錄」에 대한 絶對的인 信賴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이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역사적 기록이 그렇듯이, 그것은 史官의 능력이나 인식의 한계나 성실성이나 史觀이나 偏見이나 私心이 반영된 기록물에 지나지 않는다. 「朝鮮王朝實錄」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그것은 살아 있는 임금이 원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의 하나를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볼 수 있다.

(4) 문종 2년 2월 22일(병술)

「세종실록(世宗實錄)」을 비로소 찬술(撰述)하였는데, 허후(許詡), 김조(金鈔), 박중림(朴仲林), 이계전(李季甸), 정창손(鄭昌孫), 신석조(申碩祖) 등은 연대를 나누어 찬수하고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는 총재감수(摠裁監修)하였다. 이때 사관들로서 피기(避忌)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혹은 먹으로 사초의 자구를 지우고 고쳐 쓴 것도 있었고, 혹은 다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만 등사해서 책임을 면할 뿐이었다.

(4)는 어떤 일부의 史官들이 얼마나 不誠實하였는가 또는 責任感이 얼마나 없었는가를 잘 말해 준다. 이를 토대로 實錄에 대한 絶對的 信賴 禁止 原則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5) 實錄에 대한 絶對的 信賴 禁止 原則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이라고 하여 絶對的인 信賴의 對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록 기사에 「訓民正音」의 例義 기술이 끝나고 곧 鄭麟趾 序文이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訓民正音解例」의 序文이 된다는 것을 몰랐거나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밝히지 않았을 혐의가 짙은 것이다.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御製 序文의 가치나 尊嚴이 그만큼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⁴⁾

(1가)에 보인 ‘例義’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인식은 정확한 것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鄭麟趾 序文의 다음 두 구절을 보기로 한다.

(6) 鄭麟趾 序文의 두 구절

가.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⁵⁾ 명하시니 [...]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概)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遂命詳加解釋, 以喻諸人。[...] 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概, 庶使觀者不師而自悟)

나.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번역,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6가)는 「訓民正音解例」를 지으라는 命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訓民正音解例」의 서문으로 적합한 것이다. (6나)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의 하나는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이다. 세종 25년 기록과 비교되는 것은 ‘上親制’와 같이 ‘親制’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둘째는 ‘正音二十八字’라 하여 한글의 이름을 ‘正音’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正音’이라는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다. 문자의 이름을 ‘訓民正音’이라 부르기를 즐겨하였고, ‘訓民正音’이라는 이름이 문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책을 가리키기도 하여 중의성을 가진 것으로 말해 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을 보면, ‘例義’를 訓民正音이라 하였음이 분명하다. (6나)에 대한 종래의 해석은 ‘略揭例義以示之’ 부분을 제외하고 ‘正音二十八字 [...] 名曰訓民正音’와 같이 해석해 왔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正音 28자를 ‘訓民正音’이라 하였다”는 것은 온전한 문맥이 아니다. ‘正音 28자를 만들어’에서 이미 문자의 이름은 ‘正音’이 된 것이다. 문자 자체에 달리 ‘訓民’이라는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

「訓民正音諺解」에서 ‘訓民正音’은 ‘百姓 ㅁㄹㅅㅈ는 正 ㅎ 소리라’와 같이 번

4) 이러한 숨은 의도에 대해서는 5.1.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5) ‘이해하라고’는 ‘깨우치게 하라고’ 또는 ‘알게 하라고’로 번역해야 할 곳이다.

역되었다. 이 번역에서 의미의 초점은 ‘正音 소리’에 있다. “百姓 ㄱㄹ치시논”은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번역은 ‘正音二十八字 [...] 名曰訓民正音’과 같은 번역이다. 이 번역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와 같은 논항 구조에서 각 논항의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임금이 백성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훈민정음’이 문자라면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르치는 主體도 임금이라는 것은 상당한 飛躍이다.

여기서는 분명히 ‘例義’가 정음 자모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때 온전한 문맥을 얻을 수 있다. ‘訓民正音’은 백성들에게 正音을 가르친다는 뜻으로 解釋해야 한다. 그 의미의 초점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다’에 있다. 그렇다면, ‘例義’에서 무엇이 ‘例’가 되고 무엇이 ‘義’가 되는 것인가? ‘ㄱ。牙音。如君ㄷ字初發聲’에서 ‘ㄱ’이 예가 된다. 그것이 正音의 한 예이다. 그리고 ‘牙音。如君ㄷ字初發聲’이 義로서 풀이가 된다. 즉 例義는 正音 28자와 聲調의 각 예 혹은 名稱을 보이고 그 각각의 풀이를 보인 것이다.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文字와 音價를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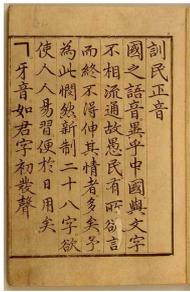
(7) ‘正音’과 ‘訓民正音’

世宗 25년에 만들어진 한글의 正式 이름은 ‘正音’이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例義를 ‘訓民正音’이라 하였다.

그동안은 ‘正音’이 문자 이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正音’이라는 말보다는 ‘訓民正音’이라는 이름이 選好되어 왔다. 이에는 四字成語의 威力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訓民’에서 ‘御製’와 같은 語感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누가 訓民正音을 諺解하였는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中國 韻書에 精通한 인물이 이에 관련한 것이 분명하다. 「世宗御製訓民正音」 즉 훈민정음 언해본에는 齒頭, 正齒의 차이가 導入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韻書에 정통한 인물의 하나는 申叔舟이다. 그가 어떤 役割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1다), (2다)에 보인 書體 문제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 『訓民正音』(解例本)의 發掘과 周邊 問題



『訓民正音』1面
李容準 補寫部分

『訓民正音』(解例本)의 發掘 以後 學界 關心의 焦點은 例義本보다는 解例本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는 當然한 歸結이기도 하다. 正音 制字의 原理와 ㅅ字의 原理 등이 昭詳하게 紹介된 것이 『訓民正音解例』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訓民正音 創制의 核心이 簡潔하게 要約되어 있는 것이 例義本이다.

鄭喆(1954)에 의하면 國寶 第70號 『訓民正音』(解例本)이 京城大學 助教授이면서 經學院(成均館大學의 前身)의 講師였던 金某⁶⁾와 그 弟子인 李容準에 의하여 發掘된 것은 1940年 여름 後村 李漢杰의 집에서였다고

한다. 李漢杰의 先祖가 女眞 征伐에 功이 있어서 世宗으로부터 賞으로 받아, 집안의 家寶로 전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燕山君 때의 諺文禁壓으로 책의 첫 두 장을 뜯어 버리고 書篋에 保管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박영선(2005) 및 朴鍾德(2006)은 『訓民正音』(解例本)은 본래 李容準의 丈人 肯構堂 金應洙의 집에서 流出된 것이라 한다. 첫 두 장을 毀損한 것도 1940년 當時인 것으로 보고 있다.



『訓民正音』8面과
『訓民正音解例』1면

金某와 李容準의 손을 거쳐 이 冊은 澗松 全鑿弼의 손에 넘겨졌는데, 그때 冊은 穩全한 形態로 되어 있었다. 책의 찢겨져 나간 첫 두 장도 補寫되었고 表紙도 갖추어졌다. 韓紙는 소여물통에 넣어 古色蒼然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補寫는 鮮展(日本 强占期 때의 國展) 書藝部門에 入賞한 經歷이 있고 安平大君 筆體에도 能하였던 李容準의 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冊 自體와 李容準이 補寫한 部分에는 여러 가지 誤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⁷⁾

6) 朴鍾德(2005)에서는 이를 金泰俊으로 밝히고 있다.

7) 金某라는 사람은 『訓民正音』이 發掘되었다는 所聞을 여기저기 廣告를 하고 다녔는데, 당시 이 소식을 들은 崔鉉培 선생이 澗松에게 부탁을 하여 특별히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崔鉉培 선생은 첫 두 장의 종이질이 다르다는 것도 눈치채었고, '便於日用耳(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뿐이라)'가 '便於日用矣'와 같이 잘못 적

(1) 『訓民正音』(解例本)의 잘못된 부분

- 가. 表紙의 裝幀이 五針眼訂法으로 되어야 하는데, 四針眼으로 되었다.⁸⁾
- 나. 世宗 御製 序文 끝 글자 ‘耳’가 ‘矣’로 잘못되었다. (崔鉉培 1940, 고친판: 1976)⁹⁾
- 다. 世宗 御製 序文 끝 부분의 ‘易習’의 ‘易’가 ‘易’으로 잘못되었다. (崔世和 1997)
- 라. ‘易習’의 ‘易’에는 破音字의 去聲 圈聲이 表示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 (安秉禧 1986)
- 마. ‘爲此憫然’의 ‘爲’에는 破音字의 去聲 圈聲¹⁰⁾이 表示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 (安秉禧 1986)
- 바. 『訓民正音』(解例本)은 句點와 讀點이 區別되어 表示되는 文獻인데, 李容準의 補寫 部分에만 讀點 表示가 없고, 모두 句點만 있다. (崔鉉培 1976, ¹¹⁾ 安秉禧 1986)
- 사. 世宗 御製 序文에는 全體적으로 句點 表示가 잘못되어 있고, 例義 部分에도 잘못된 곳이 있다. “르. 半舌. 音”과 같은 예가 그것이다. (崔鉉培 1976, 安秉禧 1986)



위의 지적 가운데 이미 잘 알려진 것은 간략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다소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1가)는 『訓民正音』(解例本)의 原本 寫眞에서 卽刻 드러난다. 韓國冊은 五針眼訂法이 傳統的인 것이고, 五針眼訂法이 아니면 韓國冊이 아니라고도 할 정도인데, 文化財廳의 홈페이지에서 보는 『訓民正音』(解例本)은 五針眼訂法이 아닌 四針眼으로 되어 있다. 이는 책을 여러 번 綴을 하거나 위나 아래를 잘라내어 綴구멍이 헐거나 길이가 맞지 않아 五針眼을 제대로 뚫을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落書가 있는 종으로 背接을 하여 修理한 것을 보거나, 『訓民正音』이 끝나는 餘白에 落書를 한 것을 보아도 『訓民正音』(解例本)이 後村 李漢杰 집에서 數代에 거쳐 단지 家寶로만 고이 保存되어 온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¹²⁾

힌 것도 알았다고 한다. 崔鉉培 선생은 解例本을 貴重하게 생각하여 그의 저서 『한글갈』에다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옮겨 적었다.

8) 이는 김주원(2005)에도 지적되어 있다. 이는 책이 해진 것과 관련된다. 책의 상하단을 잘라내어 책의 길이가 짧아졌다.

9) 이는 崔鉉培(1976)의 直接的인 指摘이 아니라, 그의 復元에서 드러나는 事項이다.

10) 이를 聲點이라고도 한다.

11) 이 또한 崔鉉培(1976)의 直接的인 指摘이 아니라, 그의 復元에서 드러나는 事項이다.

12) 李漢杰은 女性教育을 實施했었다고도 한다. 『訓民正音』(解例本)은 거기서 教材로

(1나)는 御製 序文의 끝 글자가 ‘矣’가 아닌 ‘耳’로 되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그 文脈이 ‘~뿐이다’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적합한 漢字는 ‘耳’ 외에 다른 글자를 생각하기 어렵다. 鄭喆(1954)에 의하면 李容準이 『世宗實錄』¹³⁾의 해당 내용을 記憶해 가면서 첫 두 장을 썼다고 하고, 金周源(2005)에 의하면 李容準은 喜方寺本 『月印釋譜』 제1권 앞에 合綴¹⁴⁾되어 있는 『訓民正音』(언해본)을 참고하여 썼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世宗實錄』 본에도 이 글자는 ‘矣’로 되어 있지 않고, 喜方寺本에도 이 글자는 ‘矣’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李容準¹⁵⁾은 무엇을 참고하여 어제 서문과 예의의 첫 두 장을 쓴 것인가? 李容準이 『世宗實錄』을 직접 참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940年 當時 安東에서 『世宗實錄』에 接近하는 것이 쉬웠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世宗實錄』 113권 36장에는 특히 正音 관련 記事에 적지 않은 誤謬가 있다.¹⁶⁾ 그러나 ‘易’가 ‘易’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록이다.



‘쉬울 이(易)’字는 왼쪽에 보인 글자와 같이 上部의 ‘날 일(日)’字의 下橫線이 길지 않다. 그런데 이용준이 쓴 글자는 오른쪽에 보인 바와 같이 ‘날 일(日)’字의 下橫線이 길게 밖으로 뻗어 나와 있다. 그것은 『訓民正音解例』에 있는 ‘陽’자의 旁과 같다. 그것은 ‘易’자가 아니라 ‘易(양)’자라고 해야 한다.

(1라)는 李容準이 쓴 ‘易’에 破音字 表示의 去聲 圈聲이 찍히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訓民正音解例』에 쓰인 ‘易(이)’字에는 去聲의 圈聲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는 疑心의 餘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1마)는 ‘爲此憫然’의 ‘爲’에도 破音字의 去聲 聲點이 찍혔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爲’는 ‘하 위(爲)’로 쓰일 때에만 本義와 本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하다’의 의미일 때에는 去聲의 破音字 表示를 해야 한다.

使用되던 것이라고도 한다.

13) 이는 世宗實錄의 正式 名稱이다. 이를 略하여 말할 때에는 『世宗實錄』과 같이 稱하기로 한다.

14) 『訓民正音』(언해본)이 『御製月印釋譜』 제1권 맨 앞에 있는 것을 『御製月印釋譜』가 刊行될 때 함께 刊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單純히 合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文獻의 刊行과 教育的 目的은 嚴然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15) 補寫의 내용에 대해서는 李容準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金某, 즉 金泰俊도 자문이나 呈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16)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1바, 사)는 李容準의 補寫 部分에는 句讀點이 잘못 찍혔음을 말한 것이다. 御製 序文의 句讀點에 대한 몇 가지 提案을 보기로 한다.

(2) 이전 論議나 提示例의 句讀點

가.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矣 (李容準 補寫 部分, 漢字 誤謬 殘存)

나.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최현배 1940/고친 판: 1976:4)

다.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박지홍 1979)

라.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安秉禧 1986)

마.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한글학회 1997 복원본)

바.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崔世和 1997)

(2가)는 李容準의 補寫 部分인데, 句點만 10箇나 찍혀 있다. 讀點은 하나도 없다. 注目되는 가장 큰 原則은 主語 뒤에는 어김없이 句點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訓民正音』(解例本)의 남은 例義 部分과 解例 部分을 參考하여 보면, 主語 뒤에 모두 讀點이 찍힌 것은 아니다. (2나)는 최현배 (1940/고친 판: 1976)의 구두점을 보인 것이다. 主語 뒤에 어김없이 讀點을 찍고 있다는 것이 李容準의 (2가)와 흡사하다.¹⁷⁾ ‘爲此憫然’ 뒤에도 구두점을 찍은 것이 특이하다. (2다)는 박지홍(1979)의 구두점을 보인 것이다. 句點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특이하다. (2라)는 安秉禧(1986)에서의 復元 모습인데, 讀點이 2개, 句點이 4개로 (2가)에 비하여 句讀點이 크게 적어졌다. 主語 뒤에 讀點이 찍힌 것은 ‘國之語音’ 뒤뿐이다. ‘異乎中國’ 뒤에 句點이 찍힌 것, ‘予’ 뒤에 讀點을 찍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2마)는 한글학회(1997)의 복원본의 구두점을 보인 것이다. ‘新制二十八字’ 뒤에 구두점을 찍은 것이 특이하다. (2바)는 崔世和(1997)의 句讀點을 보인 것이다. 讀點이 5개, 句點이 2개로 (2나)에 비하여 讀點이 크게

17) 李容準은 모두 句點을 찍었기 때문에 句讀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다.

많아졌다. ‘予’ 뒤에 두 점을 찍지 않은 것이 안병희의 (2라)와 같다. 崔世和 (1997)에서는 特히 句讀點이 讀誦을 위한 것임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句讀點이 讀誦을 위한 것임을 強調할수록, 句讀點을 찍는 原則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선은 讀訟의 問題를 論外로 할 필요가 있다.

온전한 『訓民正音』(解例本) 原本이 다시 發見되기 前에는 句讀點이 正確하게 復元되기를 期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從來에는 句讀點 찍기의 原則을 세우는 데 다소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原則은 세워 보기로 한다.

(3) 句讀點 찍기 原則

- 가. 句點은 강한 끊어짐으로, 文章이 끝나는 位置에 찍을 수 있다.
- 나. 句點은 강한 끊어짐으로, 提示語 뒤 혹은 讀點보다 크게 끊을 때 찍을 수 있다.
- 다. 讀點은 句點보다 弱한 끊어짐으로 接續節이나 從屬節이 끝나는 位置에 찍을 수 있다.
- 라. 文段의 始作 文章의 主語 또는 主題 뒤에 讀點을 찍을 수 있다.
- 마. 文段이 空白과 같은 것으로 自然스럽게 나뉘거나 全體 글의 마지막 文章에는 句點을 찍지 않는다.

(3가-라)는 끊어짐의 強弱이나 ‘찍을 수 있다’와 같은 可能性의 表現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句讀點이 놓이는 位置는 模糊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3가)에서는 文章의 境界 問題가 생겨나고, (3나)에서는 提示語인가 主語인가 主題인가의 區分 問題가 생긴다. (3다)와 관련해서는 節과 文章을 區分하는 問題가 생겨나고, (3라)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文段의 始作 位置의 問題가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3가-라)의 原則을 지키고 適用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할 것이다. 本稿의 代案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4) 世宗 御製 序文의 句讀點 復元 試案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4)에서 ‘國之語音’ 뒤에 讀點을 찍은 것은 (3라)에 의한 것이고, ‘異乎中國’ 뒤에 讀點을 찍은 것은 (3다)에 의한 것이다. 諺解의 ‘中國에 달아’는 從屬節로 본다. ‘與文字不相流通’ 뒤에는 句點을 찍었다. 이는 文章이 끝났음을 보이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앞의 두 讀點보다 더 크게 끊어 주기 위한 것이다. ‘愚民’ 뒤에는 讀點을 찍지 않았다. 그것이 該當 文章의 主語인 것은 맞지만, (3라)에서 말하는 文段의 始作 文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有所欲言’ 뒤에는 讀點을 찍었다. 그것이 從屬節이기 때문이다. ‘不得伸其情者’ 뒤에도 讀點을 찍지 않았다. 그것이 主語인 것이 맞지만, 문단의 첫 文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多矣’ 뒤에 句點을 찍은 것은 (3가)에 의한 것이다. ‘予’ 뒤에는 句點을 찍었다.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予’ 앞까지는 客觀的인 사실을 敘述한 것이나, ‘予’서부터는 임금의 情緒와 意志를 表現한 것이다. 문단의 시작 문장의 주어나 주제 뒤에는 讀點이 찍힐 수 있으므로, 여기에 讀點을 찍는 것은 (3라)의 原理에 의한다. 崔世和(1997)은 『訓民正音解例』에 한글자로 된 주어 뒤에 讀點이 찍히는 일이 없음을 強調한다. 그러나 ‘口如범爲虎’에서와 같이 한글 字母 뒤에서는 한 자모 뒤에도 讀點을 찍는 일이 매우 흔하다. 나머지는 각각의 節이 끝나는 位置에 讀點을 찍었다. 節이 나누어지는 위치에 대해서는 「訓民正音諺解」가 참고된다.

이 밖에 安秉禧(1986, 1997)에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가 指摘되고 있다.

- (5) 가. ‘便於日用’의 ‘便’은 破音字이므로 入聲의 圈聲이 찍혀야 한다.
- 나. 『訓民正音』이란 首題에는 ‘御製’란 冠稱이 있어야 한다.

(5가)의 ‘便’은 『訓民正音』(언해본)에서 ‘便安ᄃᆡ-’와 같이 翻譯된 것이다. ‘便’은 『新增類合』에서 보면 ‘작마줄 변/편안 편’과 같은 字釋을 가진다고 한다(안병희 1997 참조). 『訓民正音解例』에 나타나는 ‘便於開口’의 ‘便’에는 聲點이 없다. 이에 대해서 安秉禧(1997)에서는 ‘便於開口’에서 ‘便’은 ‘便利하다’의 뜻으로 쓰였고, ‘便於日用’의 ‘便’은 ‘便安하다’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본다. ‘便於日用’에는 濟世安民이나 國泰民安의 意味가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同一한 漢字가 平行的인 構成에 쓰이는 것을 이같이 다르게 解釋하는 것은 아무래도 無理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이 同一한 用法을 가지는가를 確認하는 것이 關鍵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便於日用’이나 ‘便於開口’를 ‘날마다 쓰는 데 便하다’나 ‘입을 여는 데 便하다’와 같이 解釋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李賢熙 外(2012)에서는 ‘便於日用’이나 ‘便於開口’에서의 ‘便’을 ‘便利하다’로 解釋할 수 없음을 強調하고 있으나, ‘便하다’까지 排除할 것은 아니다. 이때의 ‘便하다’는 ‘어떤 주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힘을 덜 들이거나 괴

로움을 덜 겪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解釋은 '便利하다'가 가지는, 主語가 事物이어야 한다는 缺陷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다른 問題의 하나는 中世 韓國語에서도 '便安하다'는 重義性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 (6) 가. ㅎ마 伶俚흔 열 히엿 이룰 견디엿노니 고들과 올마 ㅎ 가지에 깃 기서 便安히 잇노라 (已忍伶俚十年事 強移栖息一枝安)<杜詩諺解 6: 15b-16a>
 나. 우호로 請호디 甲兵을 덜오 아래로 請호디 井田을 便安히 갈에 ㅎ고 (上 請減甲兵 下請安井田)<杜詩諺解 22,25a>
 다. 榮華ㅎ며 이우루메 든노물 餘暇ㅣ 없서 별 보와 멩에 메여 便安히 甃규물 ㅁㅎ니라 (榮枯走不暇 星駕無安稅)<杜詩諺解 24:2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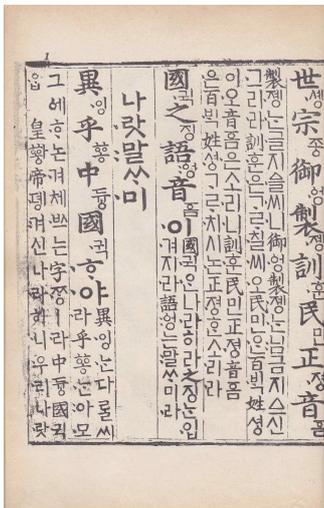
(6가)의 밑줄 친 '便安히'를 탈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면, (6나, 다)의 밑줄 친 '便安히'는 추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일과 관련하여 그 일의 過程에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덜한 狀態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訓民正音』(언해본)에서 '便於日用'을 '날로 ㅅㅁ에 便安히 ㅎ고자 ㅎㅎ ㅅㅁ미라'와 같이 '便'을 '便安히-'와 같이 번역한 것은 (6나, 다)에서와 같은 意味를 適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聲點의 問題를 보기로 하자. 『辭海』의 '便'항에는 去聲과 관련하여 '適宜, 簡單, 省事'와 같은 意味가 제시되어 있고, 平聲과 관련하여 '安適'과 같은 意味가 제시되어 있다. '適宜'와 '安適'이 매우 近接한 意味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適宜, 簡單, 省事'를 考慮하면 去聲의 '便'은 '어떤 過程과 관련하여 힘이 나 괴로움이 덜한 狀態를 뜻한다고 할 수 있고,¹⁸⁾ '安適'은 걱정거리나 탈이 없는 심리 狀態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去聲을 本音, '適宜, 簡單, 省事'를 本義라고 한다면, '便於日用'이나 '便於開口'의 '便'은 去聲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그에는 平聲의 聲點이 찍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7) '便於日用'이나 '便於開口'에서 '便'의 圈聲
 '便於日用'이나 '便於開口'의 '便'의 去聲은 어떤 일과 관련하여 그 일의 過程에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덜한 狀態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去聲이 本音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便'에는 平聲의 圈聲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작맞다'를 문자 그대로 '작이 맞다'로 해석하면, 이러한 뜻과 멀어진다. 그러나 '작이 맞는 것'이 다소 추상화하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 괴로움이 덜한 狀態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나)는 『訓民正音』의 卷頭 首題에 ‘御製 訓民正音’과 같이 ‘御製’란 冠稱이 있어야 한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이는 蓋然性이 相當히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은 이 冊의 이름이 본래부터 ‘御製 訓民正音’이었다면, 『朝鮮王朝實錄』에 이 冊의 이름이 『御製訓民正音』으로 지칭되거나 引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實錄에 이 冊의 이름은 단순히 『訓民正音』으로 登場한다.¹⁹⁾ 이는 『訓民正音』이란 冊의 書名에 御製란 冠稱이 없었음을 意味한다. 당장, 『訓民正音解例』가 ‘訓民正音’에 대한 解例로 되어 있는 것이다. ‘訓民正音解例’를 ‘訓民正音’이란 文字에 대한 ‘풀이’와 ‘예’로 해석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訓民正音解例」는 『訓民正音』이란 책에 대한 ‘解例’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訓民正音』이 본래 ‘御製’란 冠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부러 그 冠稱을 除外하였을 리가 없다. 『訓民正音』(解例本)이 ‘御製訓民正音’과 ‘御製訓民正音解例’를 合綴한 것이라면, 그 卷末題는 當然히 ‘御製訓民正音’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解例는 『訓民正音解例』로 되어 있고, 卷末題는 單純히 『訓民正音』으로 되어 있다.



喜方寺本 『訓民正音』(언해본)

鄭宇永(2005)의 復元에 의하면, 『訓民正音』(언해본)의 書名이 本來 『御製訓民正音』이었다면, 夾註의 分量이 많아져 3行에 모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國之語音’ 부분이 第5行에서 始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行의 配置가 根本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月印千江之曲』이 御製로 알려져 있으나, 御製란 冠稱이 없는 것도 이 問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訓民正音』(언해본)의 書名에도 ‘御製’란 冠稱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기로 한다.

(8) 『訓民正音』 書名의 冠稱 問題

『訓民正音』에 ‘御製’란 冠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쉬우나, 다른 文獻에서의 引用이나 指稱을 보거나, 諺解本에 대한 修訂 以前의 모습에 대한 復元에 의할

19) 申叔舟의 『東國正韻』序에는 ‘御製 訓民正音’이란 表現이 나타난다. 얼른 생각하면 文字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東國正韻』序에는 “正音”이란 말도 나타난다. ‘御製 訓民正音’도 문자를 가리키고 ‘正音’도 문자를 가리키는 똑같은 의미로 쓴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때, 御製란 冠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장의 (1다) 및 (2다)에서 보인 『訓民正音』의 例義本과 解例本の 書體의 문제를 처음 지적한 것은 安秉禧(1997=2005)인 것으로 생각된다. 『訓民正音』 ‘本文’의 ‘復(3b), 於(4a), 促(4a)’이 해례본의 ‘復(8a, 8b), 於(2a, 2b), 促(7b, 19b)’과 書體가 다름을 말하여 원본의 復元時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李容準의 補寫 부분에서 어떤 글자가 行楷書體로 잘못 쓰인 것인가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적한 것을 보사 부분에 적용해 보면, ‘於’자가 잘못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金주원(2005)에서는 ‘於’자 외에도 ‘得, 成, 國’이 ‘楷行書體’로 쓰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民, 正, 異, 中, 流, 所, 然, 那, 步, 虛’ 등도 불필요한 점이나 획을 가지거나 휘날린 듯한 느낌을 주는 글자이다. 이용준이 해례 부분을 참고하여 글자를 쓴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金주원(2005)의 지적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李容準의 예술가적 기질이 작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우영(2005) 복원본

이제까지 『訓民正音』(解例本)의 發掘과 관련하여 御製 序文에 포함된 表記의 誤謬 問題 및 例義本の 書體 문제 및 書名의 問題 등을 살펴보았다.

4. 世宗實錄 25年 12月條 末尾 記事의 問題

世宗의 正音 創制 事實이 처음으로 登場하는 것은 『世宗實錄』 25年 12月條 末尾 記事이다. 이 記事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 『世宗實錄』 25年 12月條 末尾 記事

이달에 임금이 친히 諺文 28字를 만들었다. 글자는 古篆을 닮았고, 나누어 初聲 中聲 終聲이 되고, 합한 然後에야 글자를 이룬다. 무릇 中國 文字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 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簡要하지마는 轉換이 無窮하니, 이를 일러 正音이라 한다. (是月 上親制 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

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正音) <實錄 4輯 533面>

(1)에 包含된 事實 中 重要한 것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한다.

- (2) 가. 諺文은 世宗이 親히 만든 것이다.
 - 나. 世宗이 諺文을 만든 것은 世宗 25年 12月이다.
 - 다. 世宗이 만든 것은 諺文 28字이다.
 - 라. 字는 古篆을 닮았다.
 - 마. 字는 나누어 初聲·中聲·終聲이 된다.
 - 바. 諺文 28字를 일러 “正音”이라 한다.

첫째, 가장 먼저 疑心의 對象이 되는 것은 (2다)이다, (2다)는 “諺文”의 字母數를 28字로 記述하고 있으나, 崔萬理 上소문에는 이것이 27字로 나타난다. 實錄 543面의 崔萬理 上疏에서는 “27자의 諺文으로도 족히 世上에 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以爲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와 같이 말하고 있다. 字母數에 관한 한, 世宗 25年 실록 기사가 잘못된 것이든지, 崔萬理 上소문의 27자가 잘못된 것이다. 필자는 실록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 上疏는 處罰을 覺悟한 行爲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잘못을 犯해서는 안 된다. 正音 자체의 창제를 반대하는 마당에 正音 28字를 27字로 한다고 하여 崔萬理에게 利得이 될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1)의 信憑性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기로 한다.

- (3) 世宗 25年 12月 記事의 信憑性
世宗 25年の 12月 末尾의 記事는 信憑性이 크게 떨어진다. 崔萬理의 上疏文을 볼 때, 世宗 25年 當時의 正音의 字母數는 27字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世宗實錄』의 編纂이 始作되는 것은 文宗 2年(AD 1452) 2月 22日(丙戌)의 일이다. 따라서 (1)은 1452년 뒤의 기록이다. 創制 6년 뒤의 일이므로 기억도 흐려졌고, 자료도 쉽게 구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처음 『世宗實錄』 撰修에 關여한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4) 『文宗實錄』 2年 2月 22日 (丙戌)
『世宗實錄』을 비로소 撰述하였는데, 許詡(허후),²⁰⁾ 金銚(김조), 朴仲林, 李季

甸, 鄭昌孫, 申碩祖 등은 年代를 나누어 撰修하고 皇甫仁, 金宗瑞, 鄭麟趾는 總裁監修하였다. 이때 史官들로서 避忌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혹은 먹으로 史草의 字句를 지우고 고쳐쓴 것도 있었고, 혹은 다만 『承政院日記』만 謄寫해서 책임을 면할 뿐이었다 (始撰世宗實錄 許詡, 金銚, 朴仲林, 李季甸, 鄭昌孫, 辛碩祖等 分年撰修 皇甫仁 金宗瑞 鄭麟趾 總裁監修 時史官多避忌 史草或有墨抹塗竄者 或只謄承政院日記 以塞責耳)

(4)에 등장한 인물 중 正音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鄭麟趾, 鄭昌孫, 申碩祖이다. 실록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崔恒, 朴彭年, 河緯地, 成三問’의 이름도 보이고, 記注官에는 申叔舟의 이름도 나타난다.²¹⁾ 記事官이 기사를 작성하면 記注官이 註釋이나 解釋을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記注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鄭昌孫은 世宗 26年 2月 26日 崔萬理 反對上疏 때 “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 효자, 열녀의 무리가 나오는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資質 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라고 하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로 낙인이 찍혀 罷職된 인물이다. 이 鄭昌孫은 文宗 때 이조판서를 하였으니까, 상당한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實錄 편찬을 總裁 監修한 人物에 鄭麟趾가 들어 있으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監修者도 史官의 記述에 적극적으로 干涉하지 못하였다.²²⁾ 崔恒, 朴彭年, 河緯地, 成三問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실록의 창제 기사는 나중에 정리된 것이다.²³⁾ 이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기로 한다.

-
- 20) 실록의 찬수관 명단에서는 許詡(허후)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주 26 참조. 허후는 예조 판서였다. 편찬을 시작할 때에만 잠시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 21) 실록의 撰修官에는 前後官을 포함하여 監館事에 鄭麟趾, 知館事에 金銚, 李季甸, 鄭昌孫, 同知館事에 辛碩祖, 崔恒, 編修官에 朴彭年, 魚孝瞻, 河緯地, 成三問이 있었고, 記注官에 申叔舟 외에 22명이 있었고, 이 밖에도 記事官에 25명이 있었다. 鄭麟趾는 좌의정, 金銚는 예조판서, 李季甸은 병조판서, 鄭昌孫은 이조판서이었다. 記注官 申叔舟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 22) 단종 1년 실록에는 황보인과 김종서가 실록 찬술 기사를 고치게 하였다는 기사가 5월 7일(계해)와 9월 24일(정축)과 두 번이나 나타난다. 그러나 감수자의 역할은 아주 제한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3) 「世宗實錄」 편찬이 끝난 것은 景泰 5년 甲戌 3월로 되어 있다. 景泰는 명나라 代宗의 年號이며, 景泰 5년은 文宗 4년(1454)이다.

(5) 實錄의 創制 記事

世宗實錄 25年 12月條 末尾 記事는 史草를 나중에 整理한 것이다. 正音의 字母數가 28字로 된 것은 적어도 世宗 26年 2월 26일 이후의 일이다.

둘째, (2라)를 보기로 하자. 25年 記事는 諺文이 古篆을 닮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鄭麟趾 序文은 ‘象形而字倣古篆’과 같이 ‘象形’을 먼저 提示하였다. 그러나 (1)에서는 ‘象形’을 除外하였다. 왜 ‘象形’을 제외한 것일까? ‘象形’이라고 하면, 正音이 漢字에 필적할 만한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儒學者들은 象形을 한자 생성의 근본 원리로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에서 ‘其字倣古篆’의 ‘字’는 正音 字母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分爲初中終聲’의 主語가 될 수 없다. 字母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分爲初中終聲’은 音節字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史官은 文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²⁴⁾

(6) 史官의 象形에 대한 태도와 잘못된 記述

史官은 ‘象形而字倣古篆’에서 ‘象形’을 除去함으로써 正音 創制의 基本 原理를 無視하였고, 字의 意味를 잘못 파악하여 文脈을 誤導한 嫌疑가 있다.

그동안은 ‘其字倣古篆’에서 ‘倣’을 주로 ‘본뜬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正音은 28자이고 한자는 中文大辭典의 낱자수가 49,888자라고 하니, 이것은 글자 모양이 일부 恰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입 구(口)’자의 篆書體가 ‘日’과 흡사하다는 지적(김완진 1983=1996)은 이러한 특성의 일단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각된 부분: 전서체 人자와 口자

셋째, (2나)도 正確한 것인지 疑心스럽다. (2나)는 正音 創制를 世宗 25年 12月이라고 말하고 있다. 날짜가 明示되지 않고 있다. (1)의 기술이 ‘이달[是月]’로 시작되는 것은 正音 創制나 그 公表日에 대한 기록이 없었음을 암시한다. 日字別 記錄이 있었다면, 창제 記事는 該當日에 그대로 記錄되었을 것이다. ‘이달’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 당시 기록

24) 鄭麟趾 序文에서 ‘象形而字倣古篆’에 이어지는 말은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에 합하여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다(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二氣之妙, 莫不該括)와 같은 것이다.

으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아마도 『正音解例』의 鄭麟趾 序文이었을 것이다. ‘이달’은 鄭麟趾 序文의 ‘癸亥冬’을 聯想시키는 것이다. ‘癸亥冬’이 낱짜를 가지지 않는 것과 創制 記事가 12月條 末尾에 그냥 있다는 것이 共通點을 가진다.

넷째, (2바)는 어떤가? ‘諺文’ 28자를 일러 ‘正音’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 句節 때문에 ‘正音’이란 말이 문자 이름과 책 이름의 重義性을 가진다고 하게 된 것이다. 최현배(1940/고친판 1976)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洪起文(1946)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李基文(1974)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安秉禧(1997=2007)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훈민정음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늘상 ‘훈민정음’이란 말이 重義的임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諺文 28자를 正音이라 이른다(諺文28字...是謂正音)’는 기사는 史官의 偏見과 誤解의 產物에 지나지 않는다. 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鄭麟趾 서문의 ‘名曰正音’의 ‘正音’은 例義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자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 그 이름을 붙였는데, ‘謂’를 쓰는 것은 적합한 것이 아니다. 새로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名’자를 쓴 것은 정곡을 찌른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2가)에서는 또 字母의 이름을 ‘諺文’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의미가 ‘상말’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자모의 이름으로 적합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²⁵⁾ 정인지 서문에서 자모의 이름으로 제시된 것은 ‘正音’이다. 이를 실록 편찬자는 ‘諺文 28자’로 바꾸었다. 아마도 이는 史官이 문자 이름을 ‘正音’으로 알았기 때문에, 字母 이름을 다시 ‘正音’이라 부르는 데 거부감을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음’이 문자의 이름으로 처음 주어진 것이므로, 자신의 先入見을 다시 檢討하였어야 한다. 諺文 字母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諺字’라는 말이 쓰인 것은 문종 때(1450년)이다.²⁶⁾

여섯째, (2가)에는 세종이 정음을 친히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정음 28자는 세종의 친제인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장을 달리하여 보기로 한다.

25) 홍현보(2012)에서는 ‘諺文’이 상말이 아니라 ‘우리말(글)’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26) 실록 기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임금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 서연관(書筵官)에게 명하여 「대학연의」를 언자(諺字)로써 어조사(語助辭)를 써서 종실(宗室) 가운데 문리(文理)가 통하지 않는 자를 가르치려고 하였다.(上在東宮, 命書筵官, 將《大學衍義》, 以諺字, 書語助, 欲教宗室之未通文理者)(문종 즉위년(1450), 12월 17일자 실록 기사)”

5. 正音은 世宗의 親制인가

5.1. 正音의 公式的인 創制者

4장의 (1) 및 (2가)에 보인 바와 같이 世宗實錄에는 正音이 世宗의 親制로 되어 있다. 『正音』(例義本) 御製 序文 및 『正音解例』에 나타나는 聖君에 관한 稱誦, 鄭麟趾 序文(2장의 (6나)에서도 正音이 世宗의 親制를 말하고 있다. 어제 서문과 정인지 칭송만을 보기로 하자.

(1) 『訓民正音』(例義本) 御製 序文

내 이를 爲ᄃ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를 定ᄃ노니 <『正音』(언해본) 2b-3a>

(2)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아, 正音이 만들어져 天地萬物의 理致를 모두 갖추니, 그 神異로움이여. 이는 아마도 하늘이 聖君의 마음을 여시고 그 손을 빌린 것이 아닐는지. (吁 正音作而 天地萬物之理咸備 其神矣哉 是殆天啓聖心而假手焉者乎) <『訓民正音解例』 9a>

(1)은 世宗 自身이 正音 創制의 動機를 밝히고 正音 創制의 主體가 自身임을 밝힌 것이다. (2)에서는 世宗이 神的인 靈感을 받는 것으로 칭송된다. 崔萬理 上疏文과 그에 이어진 世宗의 鞫問에서도 世宗의 役割이 暗示된다.

(3) 崔萬理 上疏文의 一部와 世宗의 鞫問

가. 이제 中國과 글을 같이하고 法道를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諺文을 創作하신 것을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다. 네가 韻書를 아느냐? 四聲七音에 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韻書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그것을 바로잡겠느냐? <實錄 4집 5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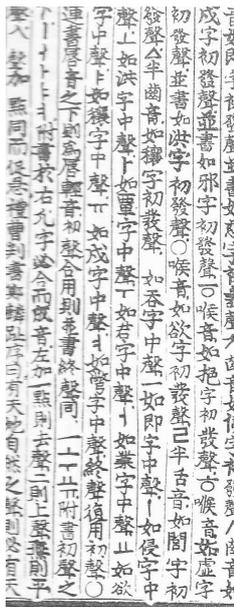
(3가, 나)는 世宗을 公式的으로 正音 創制 當事者로 보고 그에 대하여 反對 上疏를 하고 있는 것이다. 世宗이 創制 當事者가 아닌데 (3가, 나)와 같은 上疏를 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3다)는 崔萬理 上疏에 대한 世宗의 鞫問이다. 訓民正音 및 그 관련 事業에 대한 世宗의 熱情과 使命感을 엿볼 수 있다. 公式的으로 正音 創制 當事者는 分明히 世宗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기로 한다.

(4) 正音 創制 當事者

正音 創制 當事者는 公式的으로 分明히 世宗이다.

그러나, 世宗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單獨으로 正音을 創制하였는가? 訓民正音 創制 當事者는 분명히 世宗이라고 하더라도, 정음에 관한 아이디어가 전부 세종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安秉禧(2004)에서 世宗은 集賢殿學士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事實이라면 (2)와 같은 稱頌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稱頌에는 自身들도 包含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李基文(1974, 1992, 2008)에서는 당시의 世子와 首陽 등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외에도 正音 創制에 보이지 않게 도움을 준 人物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몇 가지 증거를 들어 보기로 한다.

5.2. 世宗에 대한 誤字 테러



정족산사고본

世宗 26년(1444) 2월 20일의 崔萬理의 正音 創制 反對 上訴는 당시 儒臣들의 正音 創制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반대에 참가한 집현전 학사들은 부제학 崔萬理, 직제학 辛碩祖, 직전 金汶, 응교 鄭昌孫, 부교리 河緯地, 부수찬 宋處儉, 저작랑 趙瑾 등 집현전의 우두머리급의 인물들에서 말단에 이르는 인물까지 網羅되어 있다. 「韻會」번역과 「訓民正音解例」저술에 참가한 인물은 중간급의 학사들이다. 집현전 학사의 인적 구성을 당시 지식인들의 縮圖라고 할 때, 이 사건이 暗示해 주고 있는 것은 당시 知識人 社會의 一般的인 雰圍氣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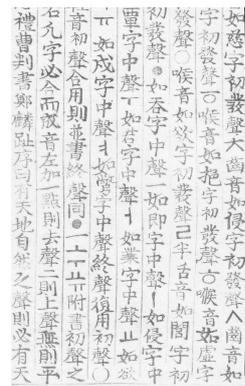
儒臣들의 반대가 얼마나 深刻한 것이었는가를 말해 주는 사실의 하나는 世宗 28년 9월 상한의 실록 기사의 조관 인쇄 상태이다. 실록의 『訓民正音』(解例本)에는 상당한 誤謬가 있는데 이 誤謬들은 실록 撰修者들의, 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故意的인 誤謬로 생각된다. 가장 좋게 생각하여 그것은 意圖的인 怠業의 성격을 가진 것이며, 나쁘게 말하면 임금에

대한 誤字 誤謬에 의한 테러라고 할 만하다. 誤字에 의한 叛逆이다. 오류의 예를 보기로 한다.

- (5) 가. ‘ㄱ’의 並書字인 ‘ㄱ’의 代表字 ‘𪛗(규)’를 ‘𪛗(두)’로 적고 있다.
- 나. 御製 序文의 ‘欲使人人’이 實錄에는 ‘欲使人’과 같이 ‘사람 人’자가 하나만 나타난다.²⁷⁾
- 다. 御製 序文의 ‘易’가 ‘易(양)’으로 되어 있다.
- 라. ‘ㄷ’ 舌音 吞字初發聲의 ‘舌音’ 뒤에 ‘如’자가 빠져 있다.
- 마. 字母 ‘ㅎ’의 說明에 나오는 ‘喉音’의 ‘喉’에 ‘뚫을 곧’자를 더하였다. ‘입 구’ 다음에 ‘물을 후(候)’가 있는 형상이 되었다.
- 바. 字母 說明에서 ‘·’ 例 提示에 ‘·’가 찍히지 않았다. (鼎足山史庫本?, 太白山史庫本에는 있음)
- 사. 初聲字 아래쪽 附書 說明에 ‘·’가 찍히지 않았다. (鼎足山史庫本?, 太白山史庫本에는 있음)
- 아. 初聲字 오른쪽 附書 說明에 ‘ㄱ, ㅋ’의 順序가 바뀌었다.
- 자. 鄭麟趾 序文에서 ‘不終朝而會’에서 ‘終’이 ‘崇’으로 바뀌었다.
- 차. 鄭麟趾 序文에서 ‘字韻則 清濁之能辨’에서 ‘辨’이 ‘卞’으로 바뀌었다.
- 카. 姜希顔의 소속과 관직 ‘敦寧府注簿’를 ‘敦寧注簿’라고 하였다.

‘正音八儒’²⁸⁾의 이름 앞에 쓰인 臣을 생략한 것, 띄어쓰기 칸이 의미와 不一致하는 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記錄에 이렇게 많은 誤字, 誤謬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校正上의 失手라고만은 볼 수 없게 한다. 누군가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校正上의 誤謬나, 組版이나 植字上의 誤謬라고 발뺌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體系的인 誤謬이고, 意圖的인 테러의 성격을 띤다. 誤字 誤謬의 量도 많고 그 意圖도 아주 不順한 것이다.

世宗實錄의 撰修官에는 前後官을 포함하여 監館事에 鄭麟趾, 知館事에 金銚, 李季甸, 鄭昌孫, 同知館事에 辛碩祖, 崔恒, 編修官에 朴彭年, 魚孝瞻, 河緯地, 成三問이 있었고, 記注官에 申叔舟 외에 22명이 있었고, 이 밖에도 記事官 25명이 있었다는 사실



태백산사고본

27)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지적한 것이 있었다.

28) ‘諺文八儒’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은, 비록 전후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또 찬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대 제1급의 한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大大的인 誤字, 誤謬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분명히 임금을 꺾고자 하는 의미가 작용하고 있다.

注目되는 것은 撰修官 명단에 知館事 鄭昌孫, 同知館事 辛碩祖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다. 최만리 반대 상소 당시 鄭昌孫은 충신, 효자, 열녀에 관한 진술 때문에 파직된 인물이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1일 다시 벼슬길에 오른다. 辛碩祖도 義禁府에 구류되었다가 이튿날 석방된 인물이다. 鄭昌孫은 세종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鄭昌孫이 문종 때 세종실록 편찬 당시 吏曹判書였다는 것이 (5)의 誤謬와 某種의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疑心해 볼 수 있다. 테러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5아)의 예부터 보기로 하자.

(5자)는 ‘不終朝而會’에서 ‘終’이 ‘崇’으로 바뀐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바뀐 것이 아니라 바꾼 것이다. 의도적인 행동이다. 번역본에서는 ‘不終朝而會’를 ‘아침나절이 되지 않아서 이해하고’와 같이 번역하였다. 이 번역의 한문본은 원본과 같이 ‘不崇朝而會’와 같이 전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한문은 그렇게 번역될 수 없는 것이다. ‘不崇朝而會’는 ‘朝廷을 존중하지/높이지 않아 모이고(집단을 만들고)’와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역적 패당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된다. 비밀결사와 같은 것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5차)에서도 ‘字韻則 淸濁之能辨’은 번역에서 ‘자운은 청탁을 능히 분별할 수 있고’와 같이 번역하였다. 원문의 뜻도 그것이다. 실록 기사는 ‘辨’을 ‘卞(조급할 변)’으로 바꾸어, ‘淸濁之能卞’과 같이 만들었다. 이는 ‘청탁의 구별(좋은 신하와 나쁜 신하의 구별?)은 조급한 것이 될 수 있고’와 같은 뜻이 될 수 있다. 자기는 혹은 자기들은 좋은 신하인데 임금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는 분명히 실록 편찬에 참여한 누군가가 숨겨 놓은 뜻이다. 意圖的인 誤字임이 분명하다.

(5가)에서 ‘기’의 代表字 ‘蚘(규)’를 ‘蚪(두)’로 적은 것은 얼른 생각하면 활자가 없어서 비슷한 글자를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蚘(규)’는 ‘규룡 규’자로 왕의 새끼들을 뜻한다. 이는 잘못 쓰일 수 없는 글자이다. 그런데 이 글자를 ‘올챙이 蚪(두)’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왕의 새끼들을 올챙이 새끼로 모독한 것이다. 왕은 개구리가 된다. 이들이 어떻게 온전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지 疑訝할 정도이다. 세종은 이미 죽었고, 실록은 왕들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관련자들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5나)의 御製 序文의 ‘欲使人人’도 ‘사람 人’자를 하나만 쓰고 있다. ‘人人’이나 ‘人’이나 모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人人’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데 반하여 ‘人’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세종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할 뿐이라고 하였는데, 실록 편찬자들은 이를 ‘일부의 사람이 어렵게²⁹⁾ 익혀’와 같이 해석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임금의 뜻을 고의로 축소하고 비꼬고 모욕한 혐의가 있다.

(5카)에서 姜希顔의 소속과 관직 ‘敦寧府注簿’를 ‘敦寧注簿’라고 한 것도 얼른 보면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敦寧府’는 왕실의 권위를 지키고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부서이다. ‘敦寧府’를 ‘敦寧’이라 한 것은 그러한 일을 하는 부서를 온전히 대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5다)를 보기로 하자. 어제 서문의 ‘易習’을 ‘易習(양습)’으로 바꾸어 이 誤字 테러리스트들이 노린 것은 무엇일까? ‘易’자를 식자공이 잘못 ‘易’으로 바꾼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易習’을 ‘易習(양습)’으로 바꾼 것은 우선은 ‘쉬운 것’을 뜻하는 한자를 쓰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최소한 그것은 ‘쉽다’는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易習(양습)’의 ‘양’은 ‘별 양’이므로, ‘땡벌에서 (고생하며) 익혀’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어렵게 익혀’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라고 하나, 그것은 영 쓸데없는 소리라고 비아냥거린 것이다.

(5라)는 ‘ㄷ舌音 吞字初發聲’은 ‘如’를 뺀 것이다. 무심히 脫字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왜 다른 자에서 탈자가 생기지 않고, ‘如’자에서 탈자가 생긴 것인가?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如’자와같은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ㄷ’은 舌音이고 吞字 初發聲이다’라고 하여도 그 의미는 전달될 수 있다. ‘如’를 뺀 것은 ‘如’자가 剩餘의임을 指摘한 것으로 자신들의 漢文 實力을 誇示한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陰地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 한문 실력이 자기보다 못한 것들이 한글을 만든다고 수선을 댄다고 비웃는 것이다.

(5마)는 字母 ‘ㅎ’의 說明에 나오는 ‘喉’자를 ‘입구 변(口)’에 ‘물을 후(候)’를 쓴 것을 말한다. 한자 학습을 하는 초보자의 글씨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이다. 아주 단순한 오류라고 할지 모른다. 오자는 ‘ㅎ’ 설명에 한 번만 나타난다. 다른 데서는 제대로 된 글자를 쓰면서 왜 이 한 군데에서만 오자를 남긴 것일까? 그것이 의도적인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사람 인’ 오른쪽의 수직선이 아주

29) 이는 곧 보기로 한다.

길게 되어 있다. 漢字에서 上下一直線의 漢字(丨)는 ‘뚫을 곧’자이다. 이것으로 그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목구멍에 긴 칼을 꽂으려는 것이었다. 殺意가 숨어 있다. ‘입구 변(口)’에 ‘물을 후(候)’자가 있는 글자는 한자에 없는 것이다. 이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활자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글자도 써야 하고, 또 목공이 글자를 파야 하고, 흙을 빚어 그 거푸집을 만들어야 하고, 쇠를 녹여 부어 鑄物을 만들어야 하고, 활자를 다시 다듬어야 한다. 이 전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모자의 혐의가 있다. 그들은 옥편에 없는 활자를 만든 사람들이다.

(5바, 사)는 字母 例示칸에 ‘·’자를 뺀 것을 말한다. 鼎足山史庫本에는 두 군데 모두 ‘·’자가 없는데, 太白山史庫本에는 두 군데 모두 동그런 글자가 어울리지 않게 크게 그려져 있다. 실수로 점 하나 찍는 것을 놓쳤다고 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전혀 語不成說이다. 한 장의 교정쇄를 몇 사람이 몇 번이나 읽는데 이러한 실수가 생길 수 있는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는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意圖的인 漢字만이 쓰일 수 있고, 意圖的인 失手만이 있을 수 있다. 한 군데에는 없고 다른 곳에는 있으니, ‘·’자를 빼는 것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것임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것은 큰 의미를 띠고 있다. ‘·’자의 의미가 왜 그렇게 큰 것인가? ‘·’가 하늘을 상형한 글자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임금 뜻한다. 임금을 빼는 것은 반역을 뜻한다. 이것이 ‘·’자를 빼는 것을 시도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둔 이유일 것이다. ‘·’자는 사람의 머리를 상기시킬 정도로 크게 찍혀 있다. 세종은 이미 죽었으니 이들은 세종을 剖棺斬屍할 정도로 誤字 테러를 감행한 것이다.

(5아)는 初聲字 오른쪽 附書 설명에 ‘ㄱ, ㅋ’의 順序를 바꾼 것을 말한다. ‘ㄱ’는 覃자 중성과 같고, ‘ㅋ’는 業자 중성과 같다. ‘ㄱ, ㅋ’의 순서는 ‘覃業’이 되고, ‘ㅋ, ㄱ’의 순서는 ‘業覃’이 된다. ‘覃業’의 의미는 ‘퍼진 사업’이 되고, ‘業覃’은 ‘사업이 퍼지다’가 된다. 찬수자들은 이들 의미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퍼진 사업’을 혹시 ‘소문이 퍼진 사업’ 혹은 ‘실패한 사업’의 의미가 될까 걱정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業覃’ 즉 ‘사업이 퍼지다’는 도모한 일이 잘 되는 것을 뜻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意圖的인 誤字, 誤謬에 鄭昌孫과 辛碩祖만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 구절이 그 눈을 거쳐 갔을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해당 실록 부분 撰修者 모두를 共謀者라고 해야 한다. 그 범위를 확대하면 그것은 당시의 식자층 전부가 해당된다. 이러한 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세종은 정음을

자신의 창제라 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6) 實錄 記事와 文字 테러

實錄의 세종 28년(1446년) 正音 記事에는 상당한 誤字, 誤謬가 있다. 이는 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유신들이 왕과 왕실을 모욕하고 폄하하는 不順한 意圖를 가진 문자 테러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 유신들의 정음 창제나 관련 사업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말해 준다. 이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세종이 정음의 창제자로 앞에 나선 것이다.

5.3. 御製 序文의 字數 問題

世宗 序文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7) 『訓民正音』(例義本) 御製 序文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
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18字 3行, 都合 54字)

(8) 『訓民正音』(언해본)의 序文

나랏말싸미中國에달아文字와로서르스못
디아니홀씩이런전츠로어린百姓이니르고
저흥배이셔도只춤내제쁘들시러퍼디몬흥
노미하나라내이를爲호야어엇비너겨새로
스물여덟字를땡그노니사름마다히여수비
니겨날로뿌메便安키호고저흥쓰라미니라 (18字 6行, 都合 108字)

(7)의 字數는 54字인 데 대하여 (8)의 字數는 그 배가 되는 108字이다. 이 字數에 주목한 것은 金光海(1982, 1989)이다. 108은 百八煩惱의 數的인 象徴으로, 佛敎에서 매우 神聖視하는 數字이다. 金光海(1982, 1989)는 이 字數가 人爲的인 調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가. (7)의 ‘與文字不相流通’의 ‘與’는 ‘~로 더브러, ~로 다맛’과 같이 翻譯하는 것이 당시에는 더 一般的이었다. 그러나 (8)에서는 이러한 翻譯을 取하지 않았다. 이는 字數를 調節하여 108字를 만들기 위한 措處였을 것이다.
- 나. (7)의 ‘流通’은 ‘흘러 스뭇디’로 翻譯되었어야 할 것이나, ‘流’에 해당하는 ‘흘러’가 翻譯되지 않았다.

(9가)는 ‘與’를 ‘~로 더브러’로 번역하지 않고, ‘~와로’로 번역한 것이 字數의 調整과 관련된다는 指摘이다. 15-16세기 언해 문헌에서 ‘~로 더브러’는 70例 程度가 찾아진다. 이에 대해서 ‘~와로’는 90例나 찾아진다. ‘~와로 서르’의 예만도 5~6例나 찾아진다. 따라서 ‘~와로 서르’로 번역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로 더브러’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와로’로 翻譯하였다는 事實까지 아무런 意味가 없는 것은 아니다. (9나)의 ‘流通’에 대해서는 金光海(1989)에서 ‘흘러 스뭇디’가 더 一般的인 15世紀의 文章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5~16世紀 中世語 資料 중 ‘흘러’가 쓰인 것은 201例나 있으나, 뒤에 ‘사뭇(뭇)-’이 이어지는 例는 찾기 어렵다. ‘流通’은 오히려 ‘流通’이란 漢字語 그대로 쓰이는 例가 언해본의 例 말고도 21例나 찾아진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夾註에 ‘流通은 흘러스뭇출 씨라’와 같이 풀이를 한 狀態에서 그 번역문에 ‘흘러’를 省略한 것은 意圖的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누가 字數를 그렇게 조정한 것일까? 『訓民正音』 御製 序文의 諺解 字數를 108字로 만든 것은 불교 신앙과 관련이 있는 어떤 인물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의 불교 신앙은 공개적이고 당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종이 직접 글자수를 108자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여 보기로 하자.

(10) 世宗 序文 언해의 글자수

世宗 御製 序文의 諺解文을 108字로 만든 것은 불교 신앙과 깊이 관련 있는 인물이다. 세종의 불교신앙은 公開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세종이 직접 글자수를 조정하면서 언해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세종의 주변에서 있던 불교와 밀접히 관련된 인물은 수양과 안평, 김수온과 신미와 같은 인물이다. 다음 기사를 보기로 하자.

(11) 世宗 29年 6月 5日(丙寅)의 實錄 記事

守溫의 兄이 出家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信眉라고 하였는데, ① 首陽大君 李 璠와 安平大君 李瑢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 信眉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 꿇어 앞에서 절하여 禮節을 다하여 供養하고 守溫도 또한 부처에게 阿諛하여 每樣 大君들을 따라 절에 가서 佛經을 閱覽하며 合掌하고 恭敬하여 읽으니, ② 士林에서 모두 웃었다.

위에서 ② 以下の 部分은 首陽 李璠와 安平 李瑢의 佛教信仰에 대한 當時 士林의 態度를 端的으로 보여 준다. 世宗은 君王으로 비웃음의 對象이 되지는 않았으나, 首陽과 安平은 士林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밑줄 친 ① 以下の 부분과 같은 信眉에 관한 言及이다. 首陽과 安平이 信眉에게 거의 부처에 대한 것과 같은 恭敬의 態度를 보이고 있다.

信眉는 實錄에서 ‘奸僧’으로 指稱되고 있으나, 그는 큰 法席을 主管하고 있다. 信眉가 實錄에 처음 登場하는 것이 世宗 28年(1446年) 5月 27日의 일이다. 이를 平面的으로만 해석하면 信眉가 正音 創制에 關與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가 큰 法席을 연다는 것은 世宗 28年 이전에 이미 世宗의 信任을 크게 받고 있었음을 意味한다.

또 세종은 金守溫에게 ‘釋迦譜’를 增補하게 한다(世宗 28年(1446) 12월 2일). ‘釋迦譜’와 ‘釋譜’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金守溫이 釋譜 詳節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暗示한다. 信眉(1403~1480)는 俗姓이 永山金氏인데, 永山金氏 族譜에는 ‘集賢院學士로 世宗의 寵愛를 받았다(得寵於世宗)’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일찍부터 信眉는 世宗이나 王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신미는 당시에 티베트 문자를 알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고도 한다. 티베트 문자의 어떤 부분이 정음과 흡사하다고 할 때, 信眉의 영향도 부분적으로는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任洪彬 2008, 2012a, 2012b 참조).

5.4. 正音 代表字의 意味와 排列

「訓民正音」(例義本)의 한글 字母 音價 說明은 漢字를 利用하여, 무엇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무엇의 中聲과 같다는 式으로 이어진다. 「訓民正音」(例義本)의 설명 방식을, 子音은 牙音의 境遇만, 母音은 天地人 三才 象形의 基本字만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12) 訓民正音 字母와 音價
-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並書. 如虬字初發聲
 -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 ㆁ. 牙音. 如業字初發聲
 - . 如吞字中聲
 - 一. 如卽字中聲
 - 丨. 如侵字中聲

‘ㄱ’의 音價를 說明하기 위한 漢字 ‘君’을 ‘音價表示代表字’ 혹은 단순히 ‘代表字’로 부르기로 한다. 注目되는 것은 정음 대표자가 한글 자모의 음가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고려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 (13) 正音 代表字의 選擇 原理
- 가. 代表字는 正音 字母의 音價를 正確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配慮된 것이다.
 - 나. 初聲의 代表字가 中聲의 代表字로도 쓰일 수 있도록 配慮된 것이다.
 - 다. 初聲의 代表字가 終聲도 包括할 수 있도록 配慮된 것이다.
 - 라. 正音 代表字는 一定한 意味를 나타내도록 配列된 것이다.

(12)에서 牙音의 代表字를 『訓民正音』 例義에 주어진 順序대로 놓으면 ‘君虬快業’이 된다. 이들 글자들의 意味 解釋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虬’자라고 할 수 있다. 그 訓에는 ‘규룡(虬龍)’이 있다. ‘규룡’은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動物로 빛이 붉고 양쪽에 뿔이 있는 龍의 새끼를 뜻한다. ‘龍’은 임금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그 새끼는 王子나 公主를 뜻한다. ‘君虬快業’은 ‘임금과 임금의 새끼가 일을 좋아한다’는 뜻이 된다. 그 含蓄을 最大化하면 ‘임금과 王子 혹은 公主가 訓民正音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14) 訓民正音 牙音 代表字 配列의 意味
- ‘君虬快業’은 ‘임금과 임금의 새끼들이 일을 좋아한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이

이 들쭉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ㅅ’이 빠진 것은 한국 漢字音에 終聲 ‘ㄷ, ㅅ’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訓民正音』(解例本)에 나타나는 대표자들은 각 字母의 音價를 보이기 위한 目的 외에도 여러 가지 입체적인 고려가 행해진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 이기로 한다.

(18) 訓民正音 音價 代表字의 選擇과 排列

- 가. 代表字는 牙舌脣齒喉의 調音點을 橫으로 하고, 全淸, 全濁, 次淸, 不淸不濁의 資質을 縱으로 하여 그들이 交叉하는 位置에 正確히 놓일 수 있는 漢字를 選擇한 것이다.
- 나. 代表字는 초성자 音價를 正確히 反映하면서, 同時에 同一한 漢字들의 集合에 같은 中聲을 가진 漢字의 짝이 正確하게 각각 두 개씩만 包含되도록 配慮한 것이다.
- 다. 代表字는 위의 (가), (나)와 함께 同一한 한자들의 集合에 같은 終聲을 가진 漢字들의 짝이 正確하게 두 개씩만 包含되도록 配慮한 것이다.
- 라. 代表字는 위의 (가), (나), (다)와 함께 同時에 牙舌脣齒喉의 漢字들이 各 各 全淸, 全濁, 次淸, 不淸不濁의 資質에 따라 一定한 意味를 表現하도록 配慮한 것이다.
- 마. 代表字는 위의 (가), (나), (다), (라)와 함께 中聲의 天地人 三才와 初出 字 及 再出字의 順序로 排列된 漢字들이 의미가, 初聲자들의 連結이 가지 는 意味의 範圍를 벗어나지 않도록 配慮한 것이다.

世宗은 英特한 君王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5次元的인 頭腦 作業도 可能하 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君王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18)을 세종이 하였다면 君王으로서 世宗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숨겨 놓을 必要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누군가 頭腦가 非常하게 좋은 사람이 한 일이다. 그것은 아마도 信眉 가 한 일일 가능성이 있다. 金守溫이나 貞懿公主의 힘이 보태졌을 可能性도 있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正音의 公式的인 創制者가 世宗이라는 事實이 달라 지는 것은 아니다.

5.5. 貞懿公主와 母音字에 대한 假說

正音을 오늘날의 한글과 같이 되게 하는 데 決定的인 役割을 한 것은 母音字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母音字는 유감스럽게도 發音器官을 象形하고 있지 않다. 왜 母音字만은 特別히 天地人 三才를 象形한 것일까? 이 點에서 『竹山安氏大同譜』에 실린 ‘貞懿公主遺事’는 吟味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19) 貞懿公主와 訓民正音 관련 紀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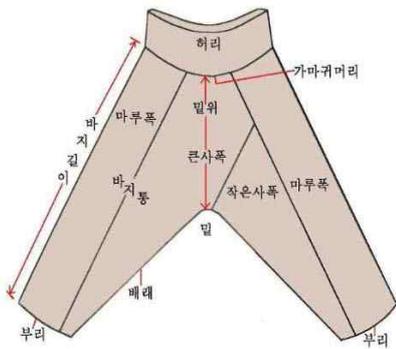
가. 우리나라 諺書는 世宗朝에 延昌公主가 지은 것이다. (我國諺書 卽世宗朝 延昌公主 所製也) <李遇駿 『夢遊野談』 ‘刪造文字’, 李家源(1994) 참조>

나. 世宗이 우리말이 漢字와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비로소 訓民正音을 만들었으나, 變音吐着을 아직 다 窮理해 내지 못하여 여러 大君으로 하여금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마침내 公主에게 내려 보내자 公主는 곧 窮理하여 풀어서 올리었다. 世宗이 크게 稱賞하고 特別히 奴婢 數百口를 下賜하였다. (世宗憫方言不能以文字相通 始製訓民正音而變音吐着 猶未畢究 使諸大君解之 皆未能 遂下于公主 公主卽解究以進 世宗大加稱賞 特賜奴婢數百口) <『竹山安氏大同譜』의 ‘貞懿公主遺事’, 李家源(1994) 참조>

(19가)의 延昌公主는 延昌尉 安孟聃에게 下嫁한 世宗의 둘째 딸 貞懿公主이다. (19가)의 ‘諺書’를 正音이라 하고, (19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貞懿公主가 정음 창제자라는 것이 된다. 安秉禧(2004)에 依하면 이는 實錄 等の 記事와 정면으로 背馳된다. 安秉禧(2004)에서는 (19가, 나)와 같은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나)는 정의공주가 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變音吐着’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假說이 나와 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필자의 소박한 가설은 ‘變音’을 글자 그대로 音을 變化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가령 鄭樵(1104-1162)의 『通志』 卷34의 ‘六書略’의 ‘起一成文圖’에 나오는 圖形에 대하여 거기에 주어진 音을 바꾸고(變音) 그것에 새로운 音을 附加하는 것을 吐着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起一成文圖’에 가령 ‘ㄱ’형은 ‘折一爲ㄱ(音及)’과 같이 되어 있으나, ‘變音’을 적용하여 ‘及’을 가령 ‘기’와 같이 바꾸어 붙였다는 것이 된다. ‘起一成文圖’에는 正音의 基本母

音字와 類似한 形態인 ‘丨, 一’에는 단지 ‘衡爲一, 從爲丨’같이 되어 있지만 하고 이름이 없다. 물방울과 같은 點에는 ‘·(音掛괘)’와 같이 되어 있다. 이들에 『訓民正音』(예의본)에서와 같이 音價를 붙이는 作業이 貞懿公主가 某種의 關係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 推測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복바지의 허리, 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에 대한 四象學的인 解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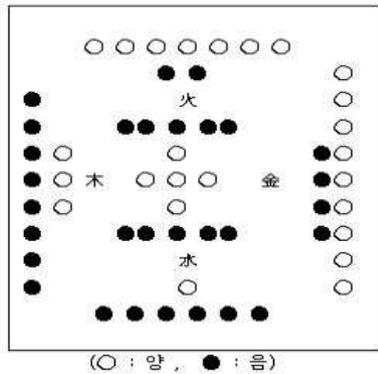


한복 바지

허리 部分은 둥글며, 마루폭은 긴 直四角形으로 되어 있고, 사폭은 큰사폭, 작은사폭이 시옷字처럼 되어 있다. 이때 허리는 四象學的으로 하늘(天)에 該當하고, 마루폭은 땅(地)에 該當하고, 큰사폭, 작은사폭은 사람(人)에 該當한다고 한다. 貞懿公主가 女子라는 사실과 韓服을 만드는 일이 女子의 몫이라는 것과, 韓服의 部分에 대한 四象學的인 觀點에 대한 認識과 같은 것이 公主의 品格을 말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文宗 2年 2月 2日(丙寅)의 實錄 기사에는 “延昌尉는 安望之의 아들이니, 이름은 安孟聃인데, 貞懿公主에게 장가들었다. 富貴롭게 성장하여 學術은 없으며, 佛法을 몹시 좋아하여 밥먹이는 중이 항상 10餘名이나 되었다. 중의 옷을 입고 중의 아랫자리에 앉아서 佛經을 읽고는 밥

을 먹으며, 殺生을 싫어하고 養蠶도 하지 않았다.”는 記錄이 있다. 安孟聃이나 貞懿公主가 僧侶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들 속에 信眉가 있었는지는 確認되지 않는다. 그러나 貞懿公主는 僧侶들을 통해서 티베트 字母를 볼 수 있었을 可能性이 있고, 그것이 貞懿公主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提供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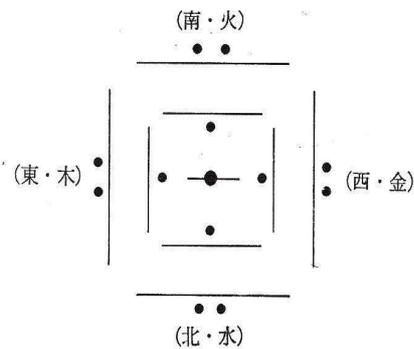
貞懿公主는 成宗 8年 2月 11일에 卒한다. 實錄에 나타난 그 卒記는 다음과 같다.

(20) 實錄의 貞懿公主 卒記

貞懿公主가 卒하였다. 公主는 世宗의 딸인데, 延昌尉 安孟聃이 그를 받들었다(結婚하였다). 公主는 性品이 聰明하고 知慧로우며, 曆算을 解得하여서, 世宗이 사랑하였다. (貞懿公主卒 公主世宗女 延昌尉安孟聃尚之 公主性聰慧 解曆算 世宗愛之)

여기서 특히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貞懿公主가 曆算을 解得하였다는 것이다. 曆算을 解得하였다는 것은 周易에 精通하였음을 뜻한다. 貞懿公主는 ‘河圖’³¹⁾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天地의 生位와 成數에 따라 天地人 三才字와 初出字와 再出字를 配定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貞懿公主 혼자 힘으로 한 것인지, 信眉나 金守溫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訓民正音解例』 制字解는 分明히 河圖的인 母音의 配置를 보여 주고 있다. 정의공주는 單純히 암시만 주었을 뿐이고, 이것을 정음에 實際로 適用한 것은 正音 八儒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으로 解例의 모



이성구(1985)의 하도 모음배치도

든 中聲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中聲 두 글자의 合用으로 이루어진 ‘과, 꺼, 꺼, 꺼’는 河圖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한 글자로 된 中聲이 ‘ㅣ’를 가진 相合字 ‘이, 니, 비, 히, 기, 꺼, 꺼, 꺼, 꺼’도 河圖에서는 찾아지지 않고, 두 글자로 된 中聲이 ‘ㅣ’를 가진 相合字 ‘내, 꺼, 꺼, 꺼’도 河圖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五行	木	火	水	金	土
方位	北	南	동	西	中
生位	⊥ 天一	⊥ 地二	⊥ 天三	⊥ 地四	· 天五
成數	⊥ 地六	⊥ 天七	⊥ 地八	⊥ 天九	— 地十
無位數					ㅣ

이성구(1985)의 方位 生成數와 母音

31) ‘河圖’는 中國 上古時代에 나타났다는 神物로서 伏羲氏가 天下에 왕노릇할 때에 黃河에서 나온 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이다.

訓民正音의 起源說 중 古篆起源說은 訓民正音과 類似한 字形이 豊富하게 提供되고 있다는 點에서 注目되고, 八思巴 文字나 티베트 文字 模倣說에서는 몇 가지 子音字의 類似성과 함께 原理的으로 母音字가 子音字와 獨立되어 있다는 點이 注目된다. 그러나 그것은 『訓民正音解例』의 發音器官 象形說 및 三才 象形說과 同等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訓民正音解例』에 提示된 것과 같은 모든 基本字와 結合字 및 合用字나 相合字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그 모든 字母들을 一貫된 原理로 說明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正音 字母는 發音器官 象形이나 三才 象形을 바탕으로 原理的이며 體系的인 方法에 의하여 創制된 것이며 그렇게 說明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信眉나 貞懿公主의 役割이 일정한 部分 作用하고 있었을 可能性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亦是 假說的인 段階에 머무는 것이며, 公式的으로 訓民正音의 創制者는 여전히 世宗으로 남아 있다.

7. 結 論

本稿는 任洪彬(2006, 2008, 2012a, 2012b)를 中心으로 『訓民正音』(解例本)의 發掘 및 訓民正音 創制와 관련하여 잘못 認識되었거나 잘 解決되지 않은 問題들을 다시 檢討해 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명해져야 할 것은 『訓民正音』(예의본)과 『訓民正音解例』가 다른 책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두 다른 책이라는 것은 안병희(1986)에서 밝혀진 것인데, 관련 사실들이 선명해지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御製 序文과 鄭麟趾 序文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어제 서문은 『訓民正音』(예의본)의 서문이며, 정인지 서문은 『訓民正音解例』의 서문인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모호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訓民正音의 誕生을 처음으로 알리는 實錄의 記錄은 世宗 25年 12月條 末尾에 있다. 본고는 이 기록이 정밀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음 창제 記事는 상당한 誤謬와 模糊性을 가진다. 그것은 正音 창제에 대하여 偏見과 反對 意思를 가진 史官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訓民正音解例』 鄭麟趾 서문과 世宗實錄의 正音 창제 기사를 비교하여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1443년 세종 25년 겨울 창제된 문자의 이름은 ‘正音’이

라는 것이다. 종래에는 ‘訓民正音’이 문자 이름을 뜻하기도 하고, 책 이름을 가리키기도 하여 重義性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자 이름을 ‘訓民正音’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鄭麟趾 序文을 잘못 읽은 것이다. ‘훈민정음’은 ‘略揭例義’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백성에게 정음을 가리키는 부분이다. 정음 28자에 대해서도 1443년 당시에는 그렇게 보기 어려움도 중시하였다.

1940년 『訓民正音』(解例本)의 發掘되었고, 첫 두 장에 대한 李容準의 보사가 이루어졌다. 이용준의 보사는 상당한 缺陷을 가지는 것이다. 그동안 그 修正을 위한 제안도 많이 이루어졌다. 李容準의 補寫 部分 중 ‘便’은 入聲의 聲點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을 強調하였고, 句讀點은 대해서는 原理를 세워 다시 짚어 보았다.

實錄은 正音이 세종의 친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訓民正音』 세종 서문에서도 정음이 자신이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고, 『訓民正音解例』 및 정인지 서문에서도 세종의 창제를 기리는 글들이 여기저기 들어 있다. 公式的으로 正音 創制者는 분명히 世宗이다. 公式的인 創制者를 世宗으로 하게 된 동기의 하나는 당시 유학자들의 반대를 무마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유학자들의 생각을 여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 실록의 1446년 『訓民正音』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여러 가지 오류와 오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종에 대한 테러라고 할 만한 것들이다. 비록 문자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거의 大逆에 가까운 것이다. 오자, 오류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訓民正音』 초성의 대표자들이 4성 7음의 체계에 따라 배열된 것은 중국 韻學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 글자들이 一定한 意味를 가지게 하는 것, 같은 모음을 가진 代表字들이 꼭 들썩이고 그 중에 하나는 종성을 가진 자이고 다른 하나는 終聲을 가진 자라는 것으로 排列한 것, 종성도 동일한 종성을 가진 代表字들이 각각 들썩이라는 것 등은, 창제에 관계한 인물들의 사고가 엄청나게 정밀하고 다차원적인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임금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여도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다. 이것은 實質的으로 正音 創制에 임한 사람이 따로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람의 하나로 信眉를 들 수 있고, 貞懿公主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推測이 正鵠을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正音의 공식적인 創制者는 世宗임이 否定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도움을 준 人物에 지나지 않는다. 創制의 意志와 使命意識을 가지고 일을 끝까지 推進한 人物이 世宗이라는 것은 變함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논저

- 孔在錫(1967), “한글 古篆起源說에 대한 한 考察,” 『中國學報』 7(1), 45-54.
- 權在先(1988), 『訓民正音 解釋 研究』, 牛骨塔.
- 金光海(1982), “訓民正音의 偶然들,” 大學新聞, 1982. 11. 19. 서울大學校.
- 金光海(1989), “訓民正音과 108,” 『周時經學報』 4, 塔出版社, 158-163.
- 金榮起 編(1998), 『世宗大王: 15世紀 韓國의 빛』, 國立國語研究院 叢書 1, 新丘文化社.
- 金完鎭(1975), “訓民正音 子音字와 加畫의 原理,” 『語文研究』 7·8, 語文研究學會. 金完鎭 (1996),
- 金完鎭(1983), “訓民正音 制字 經緯에 對한 새 考察,” 『金哲俊博士回甲紀念史學論叢』. 金完鎭(1996), 再錄, 358-376.
- 金完鎭(1984), “訓民正音 創制에 關한 研究,” 『韓國文化』 5, 1-19. 金完鎭 (1996), 377-398.
- 金完鎭(1996), 『音韻과 文字』, 新丘文化社.
- 金周源(2005),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래 모습,” 대한토목학회지 53(5), 97-100.
- 리득춘(1989), “훈민정음 기원의 이설 하도기원론,” 중국조선어문 44, 11-17.
- 박영선(2005),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 경위에 대한 재고,” 『한글새소식』 395, 8-12.
- 朴鐘德(2005), “『訓民正音解例本』의 流出過程 研究 : 學界에서 바라본 ‘發見’에 대한 反論의 立場에서,” 『韓國語學』 31, 韓國語學會, 171-197.
- 박지홍(1979), “한문본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글 164, 한글학회. 61-86.
- 世宗大王紀念事業會 編(1999), 『世宗聖王 600돌』.
- 安秉禧(1986), “『訓民正音』 解例본의 復原에 對하여,” 『國語學新研究』, 塔出版社. 安秉禧 (1992), 86-195에 “『訓民正音』 解例本의 復原”이란 題目으로 再錄됨.
- 安秉禧(1992), 『國語史研究』, 文學과 知性社.
- 安秉禧(1997), “『訓民正音』 解例本과 그 複製에 對하여,” 震壇學報 84/安秉禧 (2007), “『訓民正音』 解例本과 그 複製,” 25-44.
- 安秉禧(2002), “『訓民正音』 解例本 3題,” 『震壇學報』 93/安秉禧 (2007), 45-79.
- 安秉禧(2004), “世宗의 訓民正音 創制와 그 協贊者,” 『國語學』 44, 國語學會, 3-38.
- 安秉禧(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오봉형(1950), “한글 하도 기원론,” 『교육통신』 2기~6기. [참고] 리득춘 (1989).
- 兪昌均(1966/1977), “象形而字倣古篆에 對하여,” 『震壇學報』 29·30. 李基文 編 (1977), 153-179.

- 李家源(1994), “訓民正音의 創制,” 洌上古典研究 7, 洌上古典研究會, 5-24.
- 李基文(1974), “訓民正音 創制에 관련된 몇 問題,” 『國語學』 2, 國語學會, 1-15.
- 李基文(1992), “訓民正音 親制론,” 『韓國文化』 13, 1-18.
- 李基文(2008), “訓民正音 創制에 對한 再照明,” 『韓國語研究』 5, 5-45.
- 李基文 編(1977), 『國語學論文選 7: 文字』, 民衆書館.
- 李敦柱(1988), “訓民正音의 解說,” 申相淳·李敦柱·李桓默 編(1988), 1-40.
- 李成九(1985), 『訓民正音 研究』, 동문사.
- 李賢熙·이수연(2012),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Preface to Hunminjeongeum by King Sejong,” in Proceedings of the Scripta 2012 : Interactions of Writing Systems, 訓民正音學會.
- 任洪彬(1999), “訓民正音의 名稱에 대한 한 가지 疑問,” 世宗大王紀念事業會 編(1999), 283-288.
- 任洪彬(2006),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한글 創制者와 訓民正音 代表字,” 『李秉根先生退任 紀念 國語學論叢』, 太學社, 1347-1395.
- 任洪彬(2008), “訓民正音의 몇 가지 問題,” 韓國學中央研究院 主催 ‘八思巴文字와 訓民正音’ 國際學術會議 資料集.
- 任洪彬(2012a), “訓民正音創制者と音價表示代表字に關する問題,” 朝鮮學報 222, 朝鮮學會, 1-49.
- 任洪彬(2012b), “訓民正音 創制의 秘密,” 第二十一屆 中韓文化關係國際學術會議 論文集, 84-107.
- 任洪彬 譯註(2010), 『譯註 月印釋譜 15』, 世宗大王紀念事業會.
- 田蒙秀(1949), “訓民正音의 音韻組織,” 朝鮮어연구 창간호, 1949-4, 朝鮮어문연구회.
- 鄭 喆(1954), “原本 訓民正音의 保存 經緯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9, 國語國文學會, 15.
- 鄭宇永(2001), “訓民正音’ 漢文本의 落張 復原에 대한 再論,” 『國語國文學』 129, 國語國文學會, 191-227.
- 조규태(2007), 『훈민정음 언해본 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 문화제청 용역 연구보고서.
- 조영현(2006), “신미(信眉) 대사와 한글,” 조선일보 2006. 10. 11. 조영현 살롱.
- 崔世和(1997), “『訓民正音』 落張의 復元에 대하여 : 그 修訂 補完을 위하여” 國語學 29, 國語學會, 1-32.
- 崔鉉培(1940/고친판: 1976), 『한글갈』/『고친 한글갈』, 正音社.
- 河野六郎(1989), “한글과 그 기원(日文),” 日本學士院紀要 43-3. [참고] 安秉禧 (2004). 한글학회(1997), 훈민정음, 복원본.
- 洪起文(1946), 『正音發達史: 上, 下』, 서울新聞社 出版局.
- 洪允杓(2005), “訓民正音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國語學』 46, 國語學會, 53-66.
- 홍현보(2012), “우리 사전의 왜곡된 ‘언문’ 뜻풀이에 관한 연구,” 한글 298. 한글학회, 51-105.
- Hope, E. R. (1957), “Letter Shape in Korean Önmun and Mongol hPhagspa Alphabets,” Oriens 10(1), 150-159.

- Kanazawa, S. (1907), *Über den Einfluss des Sanskrits auf das japanische und koreanische Schriftsystem: Ein Beitrag zur vergleichen den Grammatik der ostasiatischen Sprachen*, Tokio: Sanseido. 346–357.
- Kim, Chin-W. (1988), *Sojourns in Linguistics: Collected Papers*, Tower Press. (=김진우 1988)
- Kim-Renauld, Y.-K. (1997), *The Korea Alphabet: Its History and Structur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edyard, G. K. (1966/1998),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신구문화사.
- Lee, Ki-Moon (1997), “The Inventor of the Korean Alphabet,” in Y.-K. Kim-Renauld (1997), 11–30.

개별 발표 1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의 서지와 목서 내용

김주원(서울대학교) · 남권희(경북대학교)

이 글에서는 2008년 7월 30일에 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책은 상주에서 공개되었는데¹⁾ 당시에 한국국학진흥원의 소속 연구원이 실사하여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동 MBC 뉴스 방송팀이 촬영하였다. 당시 안동 MBC에서 촬영된 화면을 통해서 책을 살펴본 필자(남권희)도 역시 세종 당시에 간행된 원본으로 간주한 바 있다.

불행히도 이 책은 소유주 논쟁에 휘말려 세상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책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원소유주로 인정받은 분이 2012년 5월 3일자로 국가에 기증하였다. 앞으로 책을 찾는다면 국가 소유의 문화재가 되고 학자들이 실물을 보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안동 MBC에서 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책에 적힌 목서의 내용에 대해서 고찰함으로써 목서의 기입 근거와 시기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1) 이 책은 상주에 있는 골동품점에서 발견된 것인데 주인 조용훈 씨의 말에 의하면 안동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상주본'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이미 있는 훈민정음해례본도 안동에서 나온 것이니 이 책을 '안동본'이라고 하면 혼동이 되므로, 당분간은 세상에 알려진 대로 '상주본'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1. 서지 사항²⁾

1.1. 형태적 특징

1) 지질

전형적인 조선 전기의 닥종이로 습기에 노출되어 열화된 상태이며 앞장부터 일부 면은 기름이나 다른 오염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하여 아랫부분의 1/3 정도가 심하게 얼룩지고 찢어져 있다.

2) 인쇄 상태

훼손되지 않은 부분은 인쇄 상태가 양호하며 가필이나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

3) 표지

능화관의 문양은 연꽃과 보상화문(寶相華紋)이 어우러진 16~17세기까지의 유형이다. 배접되어 있으며, 현존의 본문 부분 첫째 장의 훼손과 오염 상태로 볼 때 책의 표지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분리된 표지에는 같은 유형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표지는 본문이 낙장되어 시간이 경과되고 앞장의 하단부가 다시 훼손된 후 개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표지에는 5침안의 장정 흔적이 있다.

4) 장정 형태

제본의 실이 일부 남아 있는 파책의 상태이며 각장의 내부에 남은 당시의 침안을 볼 때 4침안, 5침안의 흔적이 있다. 현존 표지의 침안은 5침안이므로 초간될 당시의 제본 형태는 4침안으로 추정된다.

5)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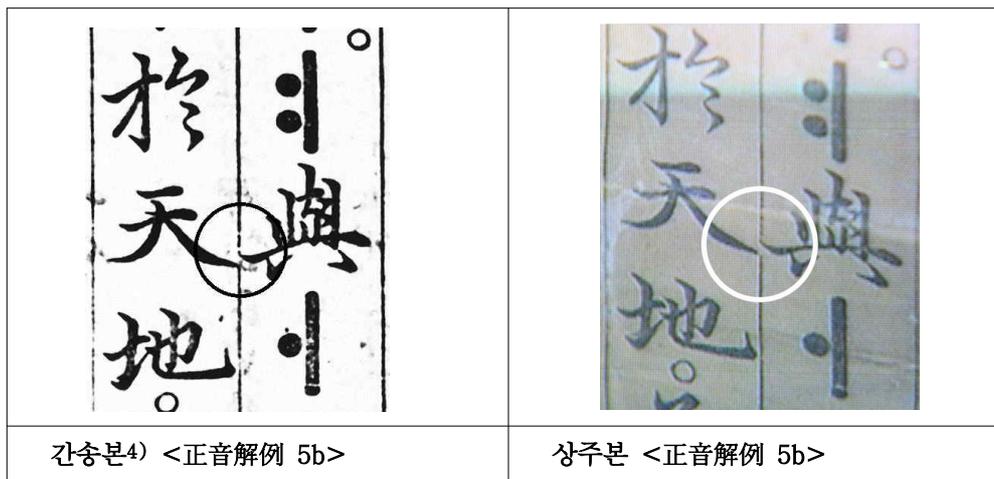
현존 표지에 ‘五聲制字攷³⁾’로 묵서로 적혀 있다. 이 책의 소유주가 제책 후에 서명을 추정하여 적은 것이다. 이로 볼 때 서명을 쓴 시기는 앞부분이 낙장되어 원제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쓴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2) 제1장의 앞부분은 남권희(2009)의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3) 이상규(2012:8)에서는 “五聲制字考”로 보고 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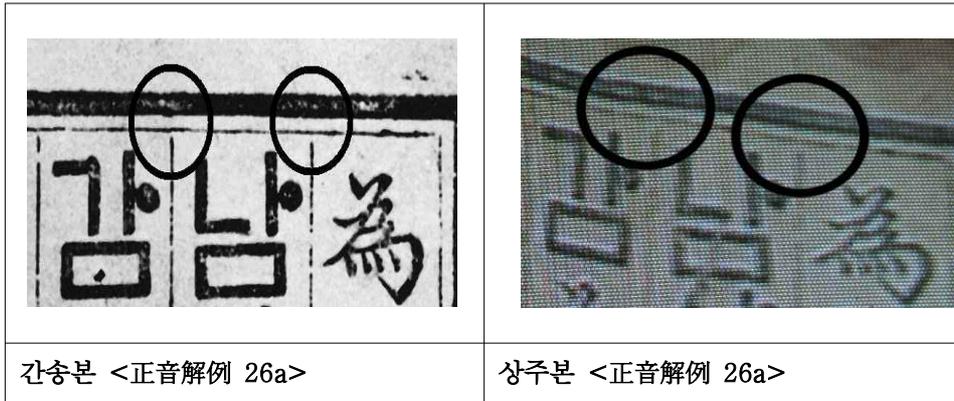
1.2. 간송본과의 비교

상주본은 사진 상으로 볼 때 간송본과 같은 목판에서 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 사실의 일치로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같은 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보이거나, 비의도적 사실 즉 우연하게 발생한 사실마저 같다는 점을 보여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후자의 방법으로 보이도록 한다. 번각한 목판이 아니라 동일한 목판에서 쇄출되었다면 계선의 모양까지도 일치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 판본의 경우 계선의 모양이 파손되지 않고 뚜렷하게 보이지만 몇몇 곳에서 글자를 새길 때에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고 일부 계선은 상단 계선과 닿아 있지 않은 모양을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은 책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동일한 목판에서 쇄출된 것임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둘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우발적인 부분까지 일치함을 알 수 있다(사진 1과 2 참고).



<사진 1> 계선의 파손 부분

4) 간송본의 이 부분은 계선이 떨어져 나갔지만 뒷면의 붓글씨 때문에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뒷면의 붓글씨에 대해서는 김주원(2005) 참고.



<사진 2> 계선이 위 광곽 내부 선과 떨어져 있는 부분

<사진 1>은 [天]과 [興] 글자의 획으로 인해서 두 글자가 닿은 부분의 계선이 파손되어 있는데 두 판본 모두 이 점에서 일치하며, <사진 2>는 계선이 위의 쌍변의 내부 광곽선과 닿아 있지 않은 우연한 사실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두 판본은 동일한 목판에서 쇄출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김주원(2005)에서 뒷면의 붓글씨로 보아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은 책의 위아래가 잘린 책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상주본이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3>은 두 책을 합성한 사진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주본은 위아래가 잘리지 않은 원래의 책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존 간송본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⁵⁾

5) 왼쪽의 상주본 사진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0921183821950.htm>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진 3> 훈민정음 책 크기 비교(왼쪽이 상주본 <正音解例 5b>, 오른쪽이 간송본 <正音解例 1a>)

2. 본문의 현존 부분과 목서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제9장 즉 正音解例(관심제) 제5장부터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제5장의 하단 3분의 1이 기름 때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첫 장으로 노출되어 있는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화면으로 확인되는 장은 모두 11장이며 다음과 같다:⁷⁾

正音解例 부분 5, 8, 9, 10, 11, 12, 13, 14, 26, 27, 28.

이에 따르면 세종의 서문과 例義(관심제 正音 1~4)부분이 없으며 해례 부분도 제1장에서 제4장까지가 없으며, 제15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정인지 서문의 마지막 장(즉 正音解例 29)이 없다.⁸⁾

이 책에는 여백에 목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확인되는 부분은 10b, 11a, 11b, 12a, 12b이다. 목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는 각각의 그림 참고). 10b에는 訣의 여백 부분 상하단에 글씨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상단부에 적혀 있다.

2.1. 상단부의 목서

상단부의 것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 또는 정리하여 다시 적은 것이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정음해례 10b의 목서는 2.2.에서 보인다).

6) 훈민정음해례본은 세종의 예의(관심 正音, 4장)와 신하들이 쓴 解例(관심 正音解例, 29장)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차가 1부터 시작한다(김정수 1990 참고).

7) 이상규(2012)에 의하면 正音解例 6과 7이 더 있으므로 모두 13장이 있는 셈이다.

8) 참고로 훈민정음해례본에서 “訓民正音”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장은 정음 1a, 해례 1a, 해례 27b, 해례 29b로 모두 네 번 나타난다. 이 책의 현 상태로는 27b에 訓民正音이라는 글자가 한 번 나타난다.

정음해례 11a

제2행	二十三字母	
제3행	君 군	
	斗 두	
제4행	弩 변	
	卽 즉	全 淸
제5행	戊 순	
	挹 흡	
제6행	快 과	
	呑 툃	
제7행	漂 포	次 淸
제8행	侵 침	
	虛 허	

정음해례 11b

제1행	虬 규	
	覃 탐	
제2행	步 뽀	全 濁
	慈 쯤	
제3행	邪 싸	
	洪 흥	
제4행	業 업	
	那 나	
제5행	彌 미	不 淸
	欲 욱	不 濁
제6행	閭 러	
	穰 상	
제7행	中聲十一	
제8행	· 一	
	卜 卜 卜	

정음해례 12a		
제1행	ㅍ ㅑ ㅋ	•
	ㅌ ㅓ	
제3행		一
제5행		
제7행		ㄱ
정음해례 12b		
제1행		ㅌ
제5행		ㅍ
		ㅑ
제7행	ㅌ ㅋ	
	ㅓ ㅋ	

2.2. 하단부의 묵서

정음해례 10b 상단부와 하단부에 적힌 묵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음해례 10b	
상단 제4행	ㄱ ㅋ ㆁ ㅇ 牙 角
	ㄷ ㅌ ㅓ ㄴ 舌 徵
상단 제5행	ㅍ ㅑ ㅓ ㅌ 唇 羽
	ㅈ ㅊ ㅍ ㅌ ㅓ 齒 商
상단 제6행	ㅇ ㅎ ㅎ ㅇ 喉 宮
	ㄹ 半 舌 半 徵
상단 제7행	△ 半 齒 半 商
하단 제3행	元和韻譜及神珙
	喉音爲宮土
하단 제7행	韻譜及沈約神珙
	皆以唇爲羽音

상단부에서는 언어의 7聲(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과 음악의 7音(角, 徵, 羽, 商, 宮, 半徵, 半商)을 각각 나란히 적되⁹⁾ 훈민정음 제자해의 설명과 달리 정리한 후에, 하단부에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제자해에서 제시한 [脣-宮]의 배합과 [喉-羽]의 배합이 문제가 있는데 “元和韻譜及神珙 喉音爲宮土”라고 하여 [喉-宮]의 배합이 옳으며, 이어서 “韻譜及沈約神珙 皆以脣爲羽音”이라고 하여 [脣-羽]의 배합이 옳다고 한 것이다. 훈민정음 제자해에는 오성과 오음(또는 칠성과 칠음)을 다음과 같이 배합해 놓았다(번잡함을 피하여 연관된 것만 보인다).¹⁰⁾

오성	牙	舌	脣	齒	喉
기본자	ㄱ	ㄴ	ㅇ	ㅅ	ㅇ
오행	木	火	土	金	水
오음	角	徵	宮	商	羽

이하에서는 위 목서에 나타난 元和韻譜, 神珙, 沈約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하는데 이 목서와는 별도로 국어학계에서는 훈민정음해례의 오성과 오음의 배합이 다른 책과는 달리 되어 있다는 사실이 몇 차례 지적된 바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¹¹⁾ 즉 최현배(1941: 36)에서는 “脣音を 宮이라 하고, 喉音

9) 聲과 音이라는 용어는 뒤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종이 “또 그대가 운서를 아느냐? 四聲과 七音を 알며, 字母가 몇인지 아느냐?”<세종 26/02/20, 1444>고 했을 때의 四聲은 ‘平上去入’의 聲調에 대한 것이고 七音은 ‘牙舌脣齒喉 半舌 半齒’를 지칭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聲’이 聲調를 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聲을 ‘牙舌脣齒喉’를 지칭하는 용어로, 音을 ‘宮商角徵羽’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통상적으로 써온 牙音, 舌音 등등의 용어는 그대로 쓸 것이다.

참고로 “예기(禮記)”에서는 ‘궁상각치우가 뒤섞임을 音이라 하고, 홀으로 나오는 것은 聲이라 한다.’(강신항 2003:25에서 재인용)라고 한 데서 보듯이 聲과 音은 책마다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다.

10) 五聲과 五音의 배합은 당시의 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신숙주가 쓴 東國正韻의 서문에서 보듯이 禮記(卷37 樂記)를 따라서 “아! 聲을 살피면 音을 알게 되고, 音을 살피면 樂을 알게 되고, 樂을 살피면 政治를 알게 되니, (생략) (吁 審聲以知音 心音以知樂 審樂以知政)”(강신항 2003:27에서 재인용)라고 하였는데, 聲과 音을 제대로 알아서 政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단 禮記의 聲, 音은 우리가 논의하는 聲, 音과는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참고하던 古今韻會舉要와 洪武正韻에서 五聲과 五音이 서로 달리 배합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에 대하여 적잖이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을 羽라 함은 다른 책들과 서로 거꾸로 된 것이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¹²⁾ 고 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성원경(1970)은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 나온 것과 글쓴이가 다른 운서들을 추가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¹³⁾

五音-五聲	출전	참고
宮-脣, 羽-喉	切韻指掌圖 중 五音五聲 辨字母次第例 四聲等子, 夢溪筆談, 古 今韻會學要	훈민정음 제자해
宮-喉, 羽-脣	切韻指掌圖 중 辨五音 例, 玉篇의 廣韻指南, 洪 武正韻	

2.2.1. 심약(沈約, 441-513)

심약(沈約)은 양(梁)나라 (502-557년) 때의 사람으로서 4성을 처음으로 의식하였으며 《사성보(四聲譜)》 (또는 《사성운보(四聲韻譜)》)를 지었다고 한다. 심약은 한어 성운학상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조선에서도 이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먼저 동국정운의 서문¹⁴⁾(신숙주 찬)에서 당시에 조선의 학자들이 알고 있었거나 참고했던 중국 성운학에 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沈約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다.

11) 따라서 훈민정음의 목서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지적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서는 지적인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이 글을 알기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끝나 있었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 목서를 통하여 조선의 학자(들)이 어떤 서적을 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최현배(1941: 332)에는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宮, 土에 脣音を 配하고, 羽, 水에 喉音を 配함은 “洪武正韻”의 그것과 상반되는 것이요, “韻會”의 그것과 일치한 것이니, 보기에 서투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느 것이 옳은지 똑똑히 알지 못하겠다.” 같은 책 394쪽도 참고할 것.

13) 이돈주(1992: 534-535)에서는 오성과 오음의 배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14) 세종실록(세종 29/09/29, 1447)에도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강신항(2003)의 번역을 취한다.

(1) 이런 까닭에 복희가 패를 만들고 창힐이 글자를 만들어낸 것도 역시 모두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만물의 정을 통한 것이다. 심약(沈約)과 육법언(陸法言) 등에 이르러 음(한자음)을 휘(彙)로 나누고 유(類)로 모아서 성(聲, 子音)을 고르게 하고 운을 맞추니(즉 한자 분류법이 생기니) 성운학에 관한 이론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 뒤) 운서를 편찬한 이들이 줄을 이었으나, 각각 모두 제 주장을 하였으므로 논의도 많아지고 잘못도 역시 많아졌다. 이에 송나라 때에 와서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운도를 짓고 소강절(邵康節)(소옹)이 성음도 수리론으로 밝혀서, 깊은 이치를 찾고 심오한 이치까지 연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설을 하나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의 음이 각각 달라 옳고 그름을 따짐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같지가 않았다.¹⁵⁾ (강신항 2003: 214에서 인용)

심약은 《홍무정운》(1375) 序에도 나오며(인용 생략) 《洪武正韻譯訓》(1455) 序에서도 다시 언급된다. 여기에서는 沈約이 南方音으로 운서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나온다.

(2) 성운학은 가장 깨치기 어려운 학문이다. 대개 사방의 풍토가 같지 않으면 기(氣)도 이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소리는 기에서 생기는 것이라, 이른바 사성과 칠음, 곧 성과 운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이다. 심약이 《사성운보》를 지은¹⁶⁾ 이후로 중국 남방음이 섞이어서, 식자들이 이를 근심해 왔으나 역사상 아직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없었다. (강신항 2003: 223에서 인용)

한편 조선조 후기에 오면 실록에 정조 때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3) 임금이 말하기를, “운서(韻書)는 어찌하여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니, 서명웅이 말하기를, “소장형(邵長衡)¹⁷⁾·여유기(呂裕祺)¹⁸⁾의 운서를 살펴보면 통운(通韻)과 협운(協韻)의 법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고(通考)》¹⁹⁾와 《성휘(聲彙)》²⁰⁾ 등의 책은 심약(沈約)의 운자(韻字) 풀이로 더불어 서로 증산(增

15) 신숙주의 이러한 서술은 어쩌면 책에 따라서 달리 배합된 宮과 翎을 염두에 둔 것 인지도 모른다.

16) 원문에는 ‘沈約著譜’로 되어 있음. 즉 책명은 나타나지 않음.

17) 邵長衡(1637-1704)은 淸나라의 문인으로 《古今韻略》 등의 저서가 있다. 이 책은 《奎章全韻》(1796년) 凡例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다.

18) 呂裕祺(1587~1641)는 明末 문인으로 《음운일월등(音韻日月燈)》을 지었다.

19) 三韻通考(조선 중기, 편자 및 간행연대 미상)를 이름. 이후 朴斗世가 《삼운통고보유(三韻通考補遺)》(또는 《삼운보유(三韻補遺)》, 1702년)를 간행하였다.

刪)한 것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절충하기가 어려워 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²¹⁾ 하였다. <정조 02/11/29, 1778>

19세기의 인물인 李圭景(1788~?)은 《五洲衍文長箋散稿》(19세기 중엽)의 ‘韻書辨證說’에서 沈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²⁾

2.2.2. 元和韻譜, 神珙

元和는 당(唐) 헌종(憲宗, 806~820)의 연호이다. 元和韻譜라는 책은 전하지 않으며 책명만 다른 책에 인용되어 전한다. 그 책이 다른 아닌 《大廣益會玉篇》(1013년)이다. 이 책은 양(梁)나라의 고야왕(顧野王)이 지은 《玉篇》

(543년)을, 당(唐)의 손강(孫強)이 보충한 것(674년)을, 북송(北宋)의 진종(眞宗) 때에 진팽년(陳彭年)·오예(吳銳)·구옹(邱雍) 등이 어휘를 대거 추가하여 증보한 책이다. 우리가 흔히 ‘옥편’으로 줄여 부르는 책이다. 이 책은 조선에서도 1414년에 북각본이 간행되는 등²³⁾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옥편은 이후에 획순 한자음 사전의 대명사가 되어 《全韻玉篇》(1819년) 등의 여러 가지 玉篇류가 저술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앞부분에 玉篇廣韻指南이 첨부되어 있고²⁴⁾ 그 중의 한 대목이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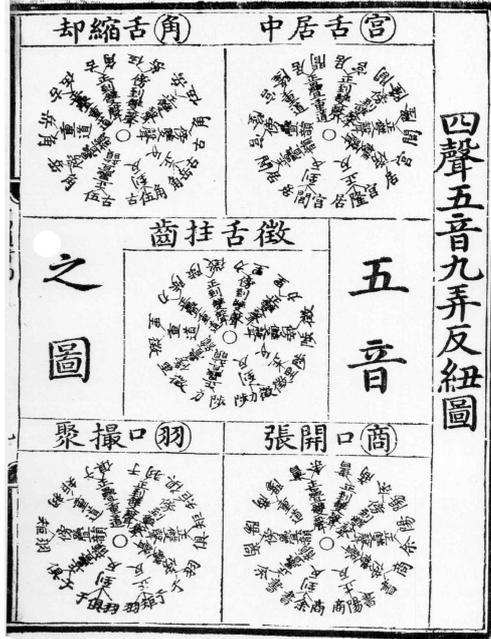


사진 4. 五音之圖 (明판본)

20) 三韻聲彙(洪啓禧, 1751년)를 이름. 上下 2권이며, 부록으로 玉篇이 붙어 있다.

21) 정조는 三韻류의 운서에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四韻을 다 갖춘 《奎章全韻》(1796년)과 《全韻玉篇》(1819년)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22) 한국고전종합DB의 《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경전류 小學 韻書의 ‘운서에 대한 변증’ 참고.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

23) 小倉進平(1964: 530)과 岡井慎吾(1933: 341) 참고. 이들이 소개한 책은 북각본이지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을해자본 옥편도 있다(가람고귀 495.13 J563d, 권 5~권10). 아래의 조선왕조실록 1412년의 기사도 참고할 것.

24) 小倉進平(1964: 529)에 의하면 明版 원본 및 조선북각본(1414)에는 책의 앞부분에 玉篇廣韻指南이 있으며 四聲五音九弄反紐圖는 그 중의 한 항목으로 첨부되어 있다(序文—大廣益會玉篇總目—玉篇廣韻指南—本文).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일사

聲五音九弄反紐圖序”(沙門神珙撰)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4) ...昔有梁朝沈約創立紐字之圖...唐又有陽甯公南陽釋處忠此二公者又撰元和韻譜...
譜曰平聲者哀而安上聲者厲而舉去聲者清而遠入聲者直而促²⁵⁾...

神珙은 당나라의 승려인데 심약과 元和韻譜(處忠 撰)에 대해서 언급하고, 거기에 나오는 四聲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뒤이어 신공이 만들었다는 四聲五音九弄反紐圖의 도판이 두 장 들어 있는데 그 중 五音之圖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훈민정음 목서 기입자가 쓴 내용인 “元和韻譜及神珙 喉音爲宮土”와 “韻譜及沈約神珙 皆以脣爲羽音”의 출처를 찾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즉 《大廣益會玉篇》의 권말에 있는 玉篇廣韻指南에는 神珙의 이름과 함께 심약, 원화운보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어서 五音之圖에는 宮 舌居中(喉音), 角 舌縮却(牙音), 徵 舌拄齒(舌頭, 舌上), 商 口開張(齒頭, 正齒), 羽 口撮聚(脣重, 脣輕)로 五聲의 특징을 기술하였다.²⁶⁾ 한편 동일한 책(玉篇)에 있는 “三十六字母五音五行清濁傍通撮要圖”(일반적으로 말하는 三十六字母圖임)에는 角木牙, 徵火舌(舌頭, 舌上), 羽水脣(脣音重, 脣音輕), 商金齒(齒頭, 正齒), 宮土喉 등을 포함하는 표가 제시되어 있다. 훈민정음 목서 기입자가 말한 “喉音爲宮土”, “脣爲羽音”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이 책에 이들 단어가 모두 들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보고 한 말로 짐작할 수가 있다.

한편, 《大廣益會玉篇》 또는 간략 명칭인 《玉篇》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나온다. 우리에게는 실로 친숙한 책이었던 것이다. 이하는 실록의 관련 내용을 보인다.

495.13 D13g, 목판본, 간년 미상.)에도 마찬가지로의 편차를 보인다. 宋판본에는 책의 뒷부분에 이 도판이 붙어 있으며(岡井慎吾 1933: 23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宋판본(澤存堂本, 1704년 복각본) 大廣益會玉篇(분류번호 3914 77)을 보면 明판본 보다는 내용이 소략하게 들어 있는데 (즉 明판에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음) 우리가 주목하는 ‘五音聲論’, ‘四聲五音九弄反紐圖’ ‘五音之圖’ 등은 수록되어 있다.

25) 사성의 특징에 관한 이 부분은 최세진의 훈몽자회(凡例 4a)에 인용되어 있으며, 훈민정음 합자해에는 용어가 조금 달라져 있다(남광우 1953: 109, 허웅 1955: 59, 이기문 1972: 145).

26) 괄호 속의 내용은 성원경(1970: 133) 참고. 한편 돈황에서 발견된 唐나라 승려 守溫의 韻學 殘卷에도 “欲知宮 舌居中, 欲知商 舌開張, 欲知徵 舌拄齒, 欲知羽 撮口聚, 欲知角 舌縮却”이라는 유사한 내용이 있다(黃易靑 2007: 68에서 재인용함, 切韻指掌圖(辨五音例)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다. 성원경 1970: 135 참고).

- (5) 사관(史官) 김상직(金尙直)에게 명하여 충주(忠州) 사고(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는데, 《소아소씨병원후론(小兒巢氏病源候論)》·《대광익회옥편(大廣益會玉篇)》·《귀곡자(鬼谷子)》·《오장육부도(五臟六腑圖)》·《신조보동비요(新彫保童秘要)》·《광제방(廣濟方)》·진랑중(陳郎中)《약명시(藥名詩)》·《신농본초도(神農本草圖)》·《본초요괄(本草要括)》·《오음지장도(五音指掌圖)》·《광운(廣韻)》·《경전석문(經典釋文)》·《국어(國語)》·《이아(爾雅)》(중략) 등의 책이었다. <태종 12/08/07, 1412>
- (6)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년 2월에 본부에서 교지를 받자와, 심문하는 형장을 칠 때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중외에 반포하였사온데, 그 그림에는 형장의 머리가 바로 무릎 아래에 닿고 조금도 넓적다리[腿]에는 범하지 않게 하였사오나, 그러나 다시 퇴(腿)라는 글자의 뜻을 자세히 상고하온즉, 옥편(玉篇)에 이르기를, ‘경(脛)이라.’ 하고, 또 이르기를, ‘고(股)이니 경(脛)의 밑둥이 고(股)인데 아랫몸을 돕는 것’이라 하였으며, (중략)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1/10/17, 1439>
- (7) 신이 옥편(玉篇)에서 장자(臧字)의 해석을 보온 즉 장(藏)이라고 하였고, 장자(藏字)의 해석은 ‘은닉(隱匿)하다.’ 또는 ‘창고에 감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로써 보오면, 계장(計臧)의 법은 물건을 숨겨서 창고에 감추어 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노비가 창고에 갈무리한 것을 가지고 어찌 계장(計臧)의 예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종 23/10/20, 1441>
- (8)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본원(本院)의 직책이 간쟁(諫爭)을 맡고 겸하여 서무(庶務)를 살피는 것인데, 모든 주사(奏事)에 있어 고열(考閱)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난신(亂臣)²⁷⁾의 집에서 적몰(籍沒)한 《사서(四書)》·《경(經)》·《좌전(左傳)》·《소미통감(少微通鑑)》·《송원절요(宋元節要)》·《통감강목(通鑑綱目)》·《통감속편(通鑑續編)》·《대학연의(大學衍義)》·《원류지론(源流至論)》·《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예부운략(禮部韻略)》·《옥편(玉篇)》·《고려사(高麗史)》·《삼국사(三國史)》·《동국사략(東國史略)》·《대명률(大明律)》·《원육전등록(元六典瞻錄)》·《속육전등록(續六典瞻錄)》 등서(等書)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02/11/04, 1456>
- (9) 상호군(上護軍) 최세진(崔世珍)이 《운회옥편(韻會玉篇)》과 《소학편몽(小學

27) 책의 제목으로 보건대 이보다 5개월 전인 1456년 6월 8일에 단종 복위 역모로 처형을 당한 사육신, 특히 집현전 학사일 가능성이 크다.

便蒙)》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에는 《운회》는 있으나 《옥편》이 없기 때문에 상고하여 보기가 어려우므로 신이 글자의 유(類)를 모아 《운회옥편》을 만들어 바칩니다. <중종 32/12/15, 1537>

이 외에도 숙종 16년(1690년)과 고종 1년(1864년)에 기록이 나타난다(인용은 생략)²⁸⁾.

2.2.3. 舌縮과 舌根

목서 필사시기를 추정하기(2.2.4.) 전에 위의 五音之圖에 기술된 舌縮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글자인 훈민정음 창제를 즈음하여 세종대왕을 비롯하여 집현전 신하들은 중국의 성운학을 열심히 연구하여 통달하여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初聲中聲終聲의 삼분법이라는, 중국 성운학의 이분법을 뛰어 넘은 훌륭한 이론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중국의 성운학을 답습 내지는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며 기존의 연구에 이러한 점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독창적인 것으로 믿어지는 용어가 있었는데 舌縮이 그것이다. 이기문(1998: 141-142)에도 언급하였듯이 “그런데 이 설명에 사용된 술어들은 혀에 대한 “舌縮, 舌小縮, 舌不縮”, 입에 대한 “口張, 口蹙”과 같이 매우 독특한 것들이다.”²⁹⁾ 적어도 한국의 학자들은 이들 용어가 중국 성운학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용어로 생각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舌縮”과 “口張”을 이 책 즉 玉篇에서 볼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비록 어두 자음에 관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角음 즉 牙音에 대해서 “舌縮却”이라는 용어를 맞닥뜨리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훈민정음 해례의 경우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舌根閉喉之形)”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문제는 있지만³⁰⁾ 조음음성학적으로 보아 능동부와 고정부를 언급하는 훌륭한 기술이라고

28) 위의 五音之圖 또는 이와 관련된 글은 그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이진환의 《國文直解》(1923) 또는 그것의 수정판인 《朝鮮文直解》(1926)가 그것인데 그 책에는 ㄱ음을 설명하기를 “ㄱ 牙音舌縮之牙...” 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 표현이 같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하동호(1978), 이현희(1991) 참고.

29) Lee & Ramsey (2011: 156)에도 “unique description”이라고 하고 있다.

30) 글자 그대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 인두음(咽頭音)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개음과 후두음의 대립이 없는 당시 조선어의 자음체계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

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는 牙音을 “舌縮却”으로 기술한 것은 능동부의 움직임
을 기술한 것이지만 다소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훈민정음해례에서는 이 용
어를 모음 기술에 사용하고 있다. 물론 중국 운학의 경우 모음 부분 즉 중성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훈민정음에서 각각의 중성을 설명하려면 독창적
인 용어를 고안해 내거나, 성운학에서 자음을 기술한 용어를 변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의 작자들은 牙音을 기술한 이 용어를 특정 부류의 모음의 특
성을 설명하는데 이용하였다. 즉 “· 舌縮而聲深, ... ㄱ 與 · 同而口蹙, ... ㄷ
與 · 同而口張” (制字解)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口張”을 발견하는데
이 역시 商音 즉 齒音을 설명하는데 사용된 용어이다. 물론 舌縮과 口張이 이것
을 참조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것과의 일치는 우연의 소치라
고 말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玉篇이 조선조의 많은 학자들이 즐겨
본 책이었으며 상당한 정도의 용어가 중국 성운학 이론에서 빌려온 것임을 감안
하면 이 용어도 빌려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성운학 용어의 적절한 변용과 독창적인 해석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학계
를 비롯하여 세계의 언어학계에서는 음절의 삼분법이 시대를 뛰어 넘는 놀라운
독창성이라고 보고 있지만, 글쓴이로서는 모음류를 舌縮의 정도에 따라 셋으로
나누고 그것으로 모음조화를 설명할 수 있게 한 것이 더욱 놀라운 점이라고 말
하고 싶다.³¹⁾ 즉 세계의 언어학계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모음조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舌縮의 정도를 중요 자
질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
에서 舌縮 개념은 훈민정음 해례 기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舌根과 舌縮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2.2.4. 목서를 쓴 시기

위에서는 목서의 내용과 그 연원을 추정하여 보았다. 이 절에서는 목서가 쓰인
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표기들은 다음과 같다.

정음해례 11a	(참고: 언해본의 표기)	
제5행	戊 순	슌
제6행	快 과	괩

31) 이에 대해서는 김주원(1988) 참고.

제7행	漂 표	플
정음해례 11b		
제2행	慈 쯔	쨌
제3행	邪 싸	쌩

이들 표기는 이 목서가 쓰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성의 표기는 무시하고 중성 표기만을 보자면 위의 표기는 자음 뒤에서 활음 [j]가 탈락하는 전형적인 경상도 방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것은 다음에서처럼 몇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 (ㄱ) 戌 술(또는 술) > 술(또는 술)
邪 싸 > 싸
- (ㄴ) 漂 표 > 표
- (ㄷ) 快 쾌 > 콰
- (ㄹ) 慈 쯔 > 쯔 (변화 없음)

우선 (ㄹ)의 예에서 보듯이 /·/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18세기까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다. 즉 19세기 이전에 적힌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ㄱ)을 보아서 [s] 아래에서 [j]의 탈락을 보이므로 대략적으로 18세기 중엽 이후의 기록이다. 이는 한국어 전체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한편 (ㄴ)은 그 외 자음 아래에서도 [j]가 탈락하는 전형적인 경상도 방언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ㄷ)은 ‘쾌’가 [kwaj]로 실현되던 시기에 어말 하향활음 [j]의 탈락이 일어나 [kwa]로 실현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경상도 방언에서 발견되는 음운 현상이다(백두현 1992: 175 참고).³²⁾ 이렇게 볼 때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이 목서는 18세기 중엽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히려 18세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³³⁾

32) 김주원(1984: 155)에서는 경상도 북부방언을 반영하는 普勸念佛文(1704년)에 ‘예천(醴泉)’이 ‘여천(呂泉)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33) 이상규(2012: 41~42)에서는 조선 후기의 경북 지역의 현실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의 서지 사항과 목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책은 현재로서는 몇 장의 불완전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첫 네 장이 없으며 그 외 본문 여러 장과 마지막장이 없다.
2. 표지는 나중에 붙였으며 제목이 ‘五聲制字攷’이다.
3. 현존 간송본 훈민정음해례와 같은 판목에서 쇄출된 책이며, 간송본이 책의 위아래가 잘려나갔음에 비해 출간 당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4. 목서의 내용은 制字解의 내용을 詩로 요약해 놓은 訣 부분의 아래위 여백에 적었는데 해당 내용 위에 초성 23자모에 대하여 五聲·五音의 배합과 例字, 그리고 淸濁 등을 요약 정리하였고 중성 11자도 표기해 놓았다. 특히 五聲과 五音의 배합이 기존의 서적들의 그것과 다르게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5. 五聲과 五音의 배합이 다르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 근거는 北宋에서 간행된 大廣益會玉篇(1013년)에 들어 있는 “四聲五音九弄反紐圖序”(沙門神珙撰)임을 밝혔다.
6. 목서를 쓴 시기는 한자음의 음가 표기를 통하여 볼 때 경상도 방언이 반영되었으며 18세기(1700년) 이후에 적힌 것으로 추정하였다.
7. 훗날의 연구자를 위하여 사진 자료를 참고하여 목서 내용을 책에 적힌 대로 복구하여 부록으로 붙였다.

참고 문헌

- 장신항(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정수(1990), 한글의 역사와 미래, 서울: 열화당.
- 김주원(1984), 18세기 경상도방언을 반영하는 몇몇 불서에 대하여, 목천 유창균박사 회갑 기념논문집.
- 김주원(1988), 모음조화와 舌縮 —훈민정음해례의 설측에 대하여—, 언어학 9·10: 29-43
- 김주원(2005), 훈민정음해례본의 뒷면 글 내용과 그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5: 177-212.
- 남광우(1953), 방점고, 국어국문학 7: 106-109.
- 남권희(2009), 새로 발견된 《訓民正音解例本》과 일본판 石峯 《千字文》 소개, 훈민정음 학회 학술대회 발표문(2009.10.9. 서울대학교).
- 성원경(1970), 훈민정음 제자 이론과 중국 운서와의 관계 (其一) —一切韻指掌圖와 廣韻을 위주로—, 학술지(건국대학교) 11: 131-147.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서울: 탑출판사.
-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서울: 태학사.
- 이돈주(1992), 전정증보판 한자학총론, 서울: 박영사.
- 이상규(2012),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 한글 298: 5-50.
- 이현희(1991), 訓民正音의 異本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교육(전남대학교) 21: 59-74.
- 최현배(1941), 한글갈, 서울: 정음사.
- 하동호(1978), <국문직해(國文直解)> 해지. 눈피 허웅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서울: 과 학사. pp.869-884.
- 허웅(1955), 방점 연구 (경상도 방언 성조와의 비교), 동방학지 2: 39-194.
- 岡井愷吾 (1933/1969), 玉篇の研究, 東京: 東洋文庫.
- 小倉進平·河野六郎 (1964), 増訂補注 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 黃易青 (2007), 《守溫韻學殘卷》反映的晚唐等韻學, 北京師範大學學報 2007-3(총201): 60-69.
- Lee, Kimoon & S. Robert Ramsey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UP.

<붙임>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의 붓글씨 내용 (밑면은 간송본의 사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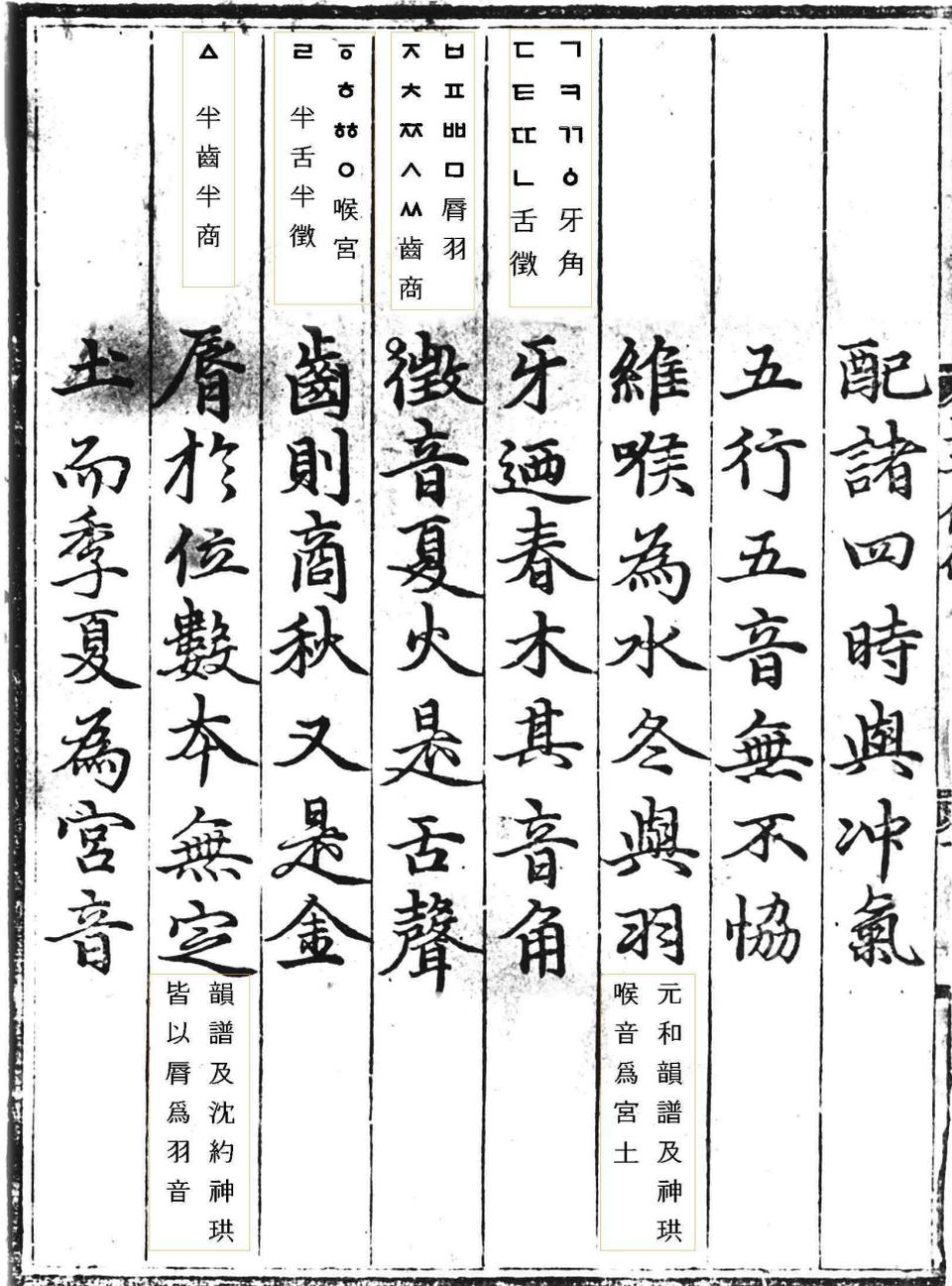


그림 5. 상주본 正音解例 10b

<p>二十三字母</p>	<p>君斗 斗君</p>	<p>警卮 卮警</p>	<p>戍舍 舍戍</p>	<p>快刮 刮快</p>	<p>漂丑 丑漂</p>	<p>侵침 虛허</p>
<p>聲音又自有清濁 要於初發細推尋 全清聲是君斗警 卮戍挹亦全清聲 若迺快吞漂侵虛 五音各一為次清 全濁之聲蚘覃步 又有慈邪亦有洪</p>						

그림 6. 상주본 正音解例 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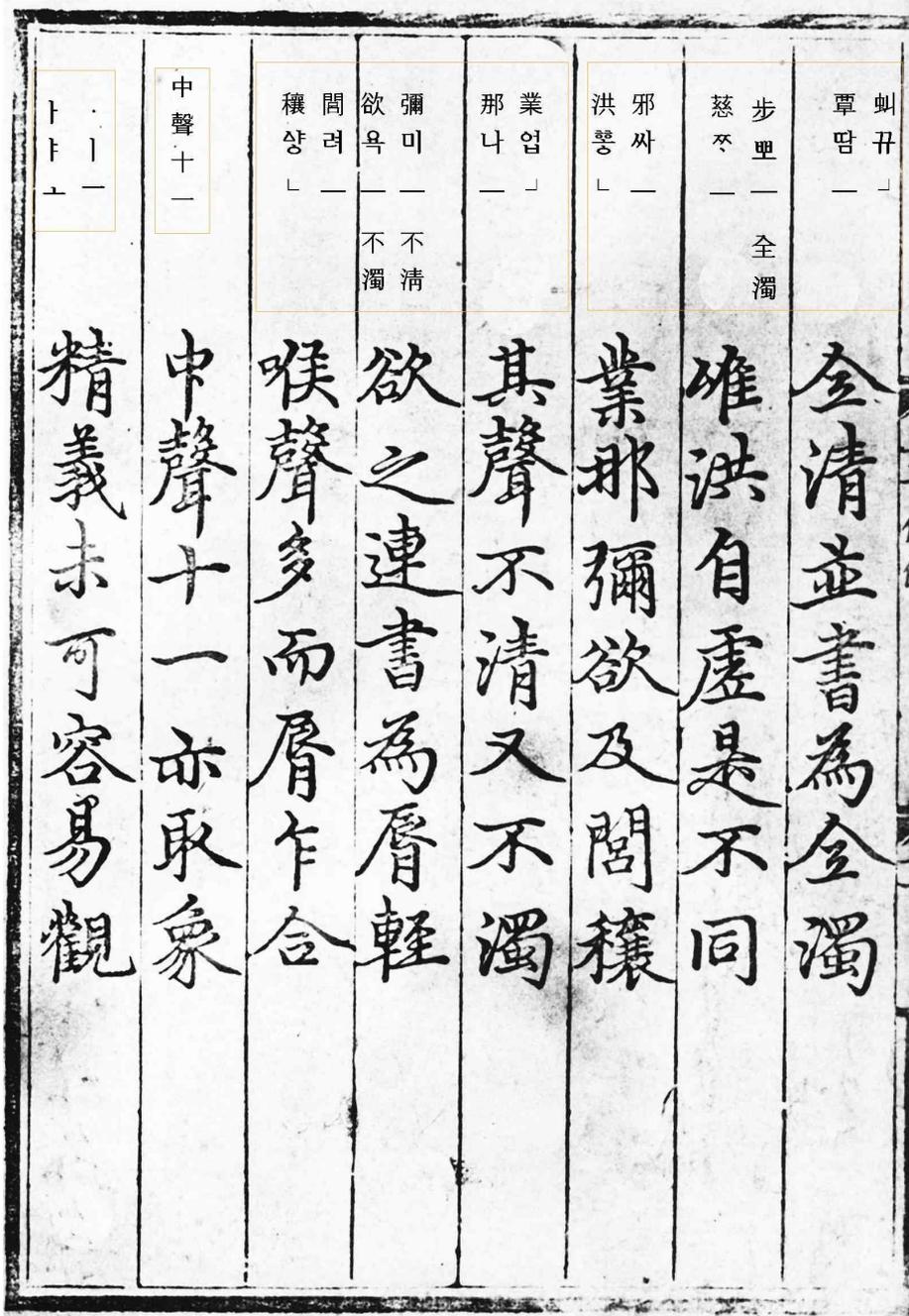


그림 7. 상주본 正音解例 11b

十一 十一 十一	一	吞擬於天聲最深	一	所以圓形如彈丸	一	即聲不深又不淺	一	其形之平象乎地	一	侵象入立厥聲淺	一	三寸之道斯為備	二	洪出於天尚為闔	象取天圓合地平
----------------	---	---------	---	---------	---	---------	---	---------	---	---------	---	---------	---	---------	---------

그림 8. 상주본 正音解例 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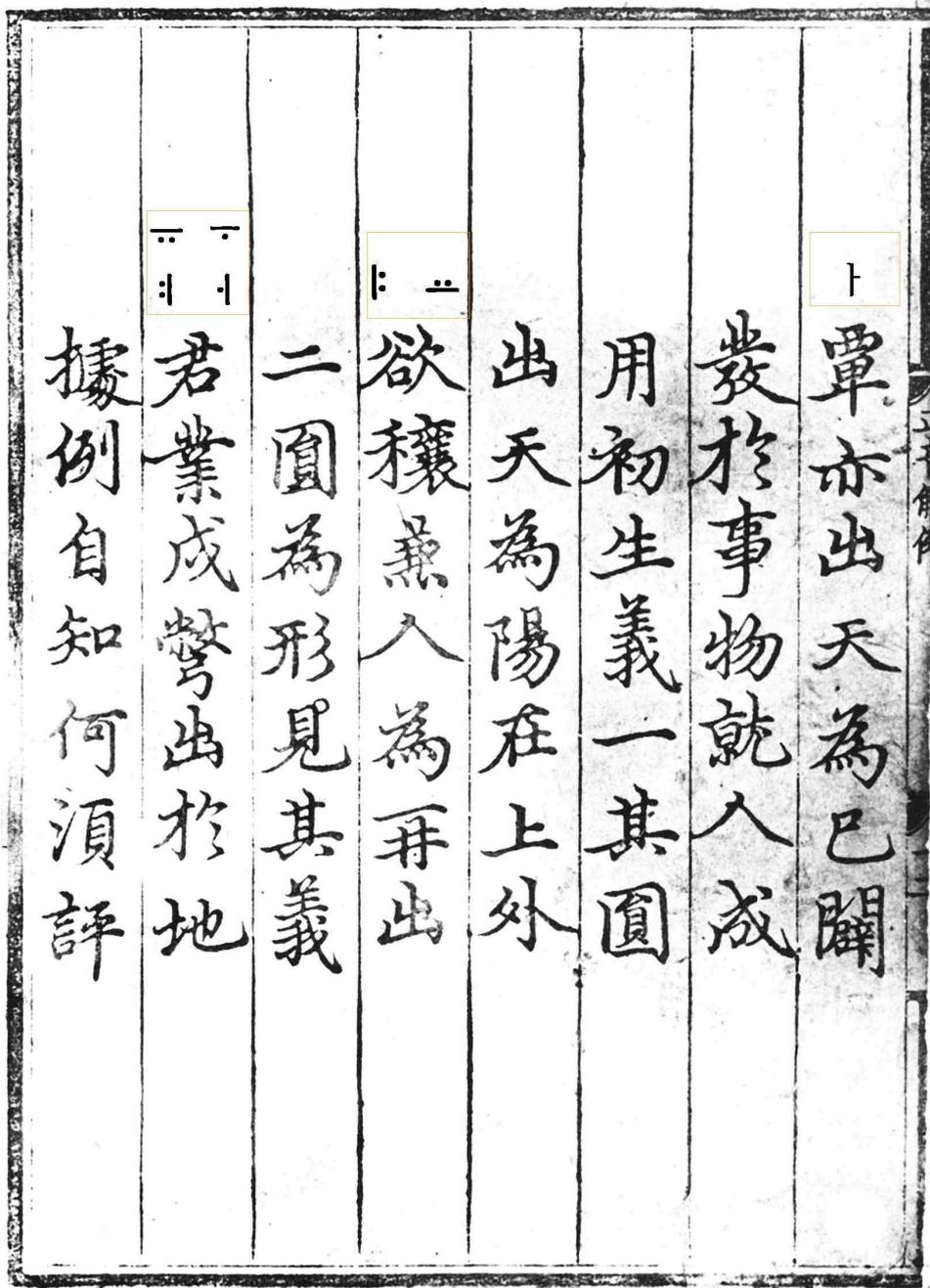


그림 9. 상주본 正音解例 12b

《訓民正音》 해례본 ‘例義篇’의 구조 분석 — ‘解例篇’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정 우 영 (동국대학교)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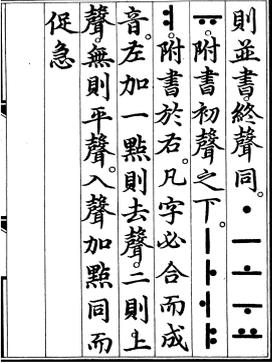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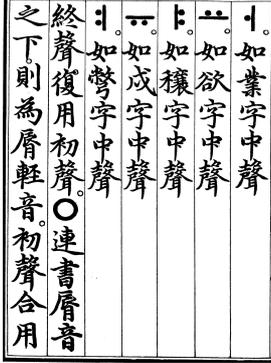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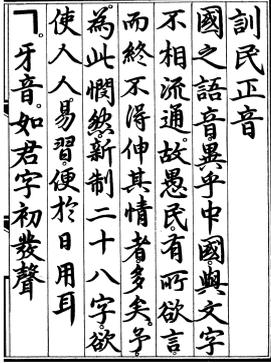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World Documentary Heritage)”에 등재, 1962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국보 제70호”로 지정.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에 대한 국내외의 공식적인 평가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은 世宗의 ‘예의편(例義篇)’과 정인지를 비롯한 정음학자 8명의 ‘해례편(解例篇)’으로 구성되어 있다.¹⁾ 특히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예의편’은, ① 문자 ‘訓民正音’의 창제자 세종이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과, ② ‘훈민정음’의 초·중성 자형과 음가 규정, 그리고 ③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의 文字化를 위한 문자 운용규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사진으로 보이면 [사진 1]과 같다.²⁾

1) 이와는 달리 해례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① 세종서문+예의, ② 해례(5해+1례), ③ 정인지서(또는 꼬리말)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외형적 기준으로 볼 때 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글을 쓴 주체(세종: 신하들), ㉡ 행관(行款) 및 글자의 크기(1면 7행 11자: 8행 13자), ㉢ 판심제와 장차(張次)의 독립적 처리. 正音(一~四): 正音解例(一~二十九), ㉣ 문헌에 존대법의 사용 유무[사용하지 않음: 대두(擡頭)·공격(空格)의 방법을 사용] 등. 이에 대하여는 이현희(1997), 백두현(2009) 참조.

2) 특히 ②③ 부분만을 따로 ‘예의(例義)’ 또는 ‘본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예의(例義)는 국어 표기법의 핵심 기본 골격이 들어 있으므로, “국어 표기법의 母胎요 聖典”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홍기문(1946: 상1)과 이익섭(1992: 39) 참조.

[사진 1]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편'의 구성

문자 운용 규정	초성·중성·종성 규정	세종어제 서문
		
정음 4ㄱ	정음 3ㄴ	정음 1ㄱ

한편, ‘해례편’은 이른바 ‘5해 1례(五解一例) — 制字解·初聲解·中聲解·終聲解·合字解; 用字例 — 와 ‘정인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세종(世宗. 1397~1450.2)이 1443년 음력 12월에 ‘訓民正音(諺文)’을 창제하고 새 문자에 대해 간략히 들어 보인 ‘예의(例義)’를 토대로,³⁾ 정인지를 포함한 8명의 학자(최항·박팽년·신숙주·성삼문·강희안·이개·이선로)가 ‘자세히 해석을 붙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라’[詳加解釋以喻諸人]는 세종의 명을 받들어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상한에 완성한, 일종의 ‘훈민정음’ 해설집(解說集)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정리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성

구분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例義篇)	해례편(解例篇)

3) 1443년 12월에 세종이 보이신 ‘약계예의(略揭例義)’와 1446년 9월에 간행된 해례본의 ‘예의편’이 어느 정도나 같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례본의 ‘예의편’과 같이 새 문자와 그 운용법에 관한 간략한 내용일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두 자료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한다. 이 기회를 통해 ‘약계예의’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주 제	세 종 서 문	초· 중· 중성 규정	문자 운용 규정	제 자 해	초 성 해	중 성 해	중 성 해	합 자 해	용 자 례	정 인 지 서
--------	------------------	----------------------	----------------	-------------	-------------	-------------	-------------	-------------	-------------	------------------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조에 대하여는 1940년 해례본이 발견·소개된 이후, 각종 훈민정음 주석서의 해제(解題)나 논문을 통해 그 개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례본 전체의 구조와 상관관계는 깊이 연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의 논의로 주목되는 것으로, 백두현(2009)에서는 해례본의 구조를 정치하게 분석·기술하여 이 텍스트의 전체를 조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광호(2010)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전체 구조와 ‘예의편’을 상호 대조하여 ‘해례편’이 먼저 기술되고 그 후에 세종의 ‘예의편’이 편찬되었으리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해례본 텍스트의 전체 구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세부 단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훈민정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반가운 일이다.

이 글의 목적은 《훈민정음》 해례본 텍스트 중에서 ‘예의편’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주로 ‘해례편’이 세종의 ‘예의’에 대한 ‘상가해석(詳加解釋)’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두 글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양상과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예의편’의 구조와 위상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데 있다. 잘 아시듯이, ‘예의편’은 문자 ‘훈민정음’ 규정을 학습자가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압축·제시한 공시문(公示文)이다. 따라서 ‘해례편’의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예의’의 규정만으로는 그 본래 의미가 학습자(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 ‘예의편’에 있는 ‘세종서문’을 비롯하여 여러 규정들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전체를 7장으로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세종서문’ 내용이 ‘해례편’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곳을 찾아 그 양상을 검토하되, 특히 장르가 같은 ‘정인지서’와의 상관관계도 분석·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서문’의 번역과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몇 가지 문제, 즉 ‘文字’의 의미를 비롯해 “而終不得...•其情者多矣”에 나오는 ‘終=ㄹ출내’의 현대국어 번역 문제도 검토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예의편’의 초성·중성의 규정을 두 절로 나누어 각 규정이 ‘해례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문자 운용규정’ 단락에 들어 있는 5개 규정의 내용을 살피고, ‘해례편’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규정이 중성 제자규정 또는 중성 표기규정으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례편’의 해설을 통해 이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본문에서 분석·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의편’ 텍스트의 구조도 및 ‘해례편’과의 상관 관계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논쟁적인 주제가 아니므로 선행연구는 본문에서 간단히 논평하는 정도로 그친다.

2. 세종어제 서문

주지하듯이, ‘세종어제 서문(世宗御製序文)’은(이하 ‘세종서문’으로 줄인다.) 창제자인 世宗이 문자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 취지를 밝힌 글이다. 이 장에서는 ‘세종서문’ 내용이 ‘해례편’에 반영되어 있는 단락을 찾아 그 양상을 검토하되, 특히 장르가 같은 ‘정인지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두 글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서문’의 번역과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文字’의 의미와 “而終不得...其情者多矣”에서 ‘終=ㄹ춤내’의 현대국어 번역 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세종서문’의 원문 이미지와 ‘해례편’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문장 단위로 분절한 한문 원문을 보이면 [사진 2]와 같다.⁴⁾

4) 위에 제시한 원문 이미지는 해례본의 복원본 중 하나인 한글학회(1998)를 편의상 축소 가공한 것이다. 자료의 이미지로는 이용하지만, 낙장 부분(1~2장)의 서체와 구두점에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국어학·서지학 공동 연구팀이 구성되어 간송미술관 소장의 해례본(국보 제70호)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 복원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오른쪽의 활자 입력 자료는 그 오류를 검토·수정한 정우영(2001) 복원안에 따랐으며, 문장 앞의 01~03 번호는 ‘예의편’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전체(45문장)에 논의의 편의상 부여한 일련번호이다. 원본에는 성조를 구분하는 권점(圈點)과 마침표에 해당하는 구점(句點。), 그리고 쉼표에 해당하는 두점(讀點○)이 표시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점’은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해례본은 구두점 방식이 비서성 교서식(秘書省 校書式)이어서 문장이나 어구가 뒤에 이어지지 않으면 구점(。)을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장 단위로 분절하는 데 통일을 기하기 위해 모두 구점을 표시하였다. 구두점 방식과 관련해서는 최세화(1997) 참조.

[사진 2] 예의편의 '세종어제 서문'과 문장 분절

	구분 (번호)	세종어제 서문
	서명	訓民正音
	01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
	02	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03	予爲 [°] 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 人易 [°] 習。便於日用耳。
		※03 <爲 [°] >·<易 [°] > : 거성(去聲) 표시
세종어제 서문 <正音 1가>		정우영(2001) 복원안

‘세종서문’은 3문장 54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서문’의 제1문장 “國之語音 ○ 異乎中國 ○ 與文字不相流通。”은 《訓民正音》 해례본의 맨 앞에 나오며, “나랏 말쓰미 中등國·국·에 달아...”와 함께 눈에 익숙한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밝힌 내용은 ‘해례편’의 핵심이라 할 ‘5解 1例’에는 나오지 않고, 글의 성격이 같은 ‘정인지서’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⁵⁾

구분	관련 내용
세종서문	01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
	01-나랏 :말쓰미 中등國·국·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르 슷·디 아니홀씨
정인지서	03 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
	04 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

5) ‘세종서문’의 번역문은 세종 재위시에 번역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언해본의 번역을 이용한다. 그러나 ‘해례편’에 들어 있는 모든 현대역은 박병채(1976), 박지홍(1984), 조규태(2000/2007), 박창원(2005), 강신항(2003) 등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번역문에는 부분적으로 글의 문맥을 고려해 필자가 () 속에 그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번역의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p>05 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柄鑿之鉏鋸也。豈能達而無礙乎。</p> <p>06 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強之使同也。</p> <p>07 吾東方禮樂文章。侷擬華夏。</p> <p>08 但方言俚語。不與之同。</p>
	<p>03- 그러나 사방(=은 세상)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말소리[聲]와 기운[氣]도 이에 따라 다르다.</p> <p>04- 대개 외국(=중국 이외의 나라)의 말은 그 말소리[聲]는 있으나 그 (말소리를 기록할) 글자[字]가 없다.</p> <p>05- (그래서) 중국의 글자[字]를 빌려서 그 쓰임에 통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모난 장부를 둥근 구멍에 끼움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어찌 능히 막힘이 없이 통달할 수 있겠는가?</p> <p>06- 요컨대 (글자를 포함하여) 모두 각기 그 처해 있는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사용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p> <p>07- 우리 동방(=우리나라)의 예악·문장은 화하[中國]와 견줄 만하다.</p> <p>08- (그러나) 다만 (우리 동방의) 방언·이어는 중국(=화하)과 같지 않다.</p>

‘세종서문’의 제1문장은 세종 재위시에 언해본으로도 간행된 바 있지만, 현대 국어 번역에서 이견이 많은 문장 가운데 하나다.⁶⁾

‘세종서문’의 제1문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정인지서’이다. ‘정인지서’는 총 33개 문장, 558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제시한 ‘정인지서’의 03~08 문장

6) 논란의 중심에 제1문장의 ‘文字’가 들어 있다. 이것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최근까지도 이견이 제기된 바 있다. ‘文字’의 의미를, 홍윤표(2008, 2012)에서는 “한자로 쓰인 문구(文句), 한문구(漢文句)”로, 전성호(2009) 및 이현희(2012)에서는 “문서(文書)”로 이해하였다. 두 견해 모두 ‘우민’이 ‘文字(漢字)’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석하였는데, 그렇다면 ‘훈민정음’을 창제할 필요도 없이 전자에서는 ‘한문구’ 공부에 매진하면 해결될 문제이고, 후자는 ‘한문구조’만 이해하도록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세종서문’의 문맥은 ‘한문구’나 ‘한문으로 된 문서’의 이해 수준이 모자라 ‘不相流通~多矣’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직접구성요소인 중국어음을 적기 위해 만들어진 ‘漢字(文字)’ 그 자체를 모름으로써 ‘不相流通~多矣’ 상태가 된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文字’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은 연구동 외(2012가, 2012나)에서 밝혀졌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文字’의 의미는 ① 글자, ② 단어·문구, ③ 문장, ④ 글, ⑤ 문서, ⑥ 책, ⑦ 학식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현재 국역본에 번역된 것만 해도 7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세종서문’의 ‘文字’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동일한 시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확보해 해당 문장의 전후 문맥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946년부터 최근까지 ‘세종서문’의 번역 양상에 대하여는 김슬옹(2010: 236~268)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을 분석해보면, ‘세종서문’ 제1문장의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정인지서’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세종서문’의 심층 문장을 추정하면 대체로 다음 세 문장 정도로 요약된다. ① (我)國之語音異乎中國(之語音) :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다르다. ② 中國(之語音)與文字相流通 : 중국말은 (중국의 어음을 글자[字]로 나타낸) ‘文字’(=중국문자, 한자)와 서로 잘 통한다. 그러나 ③ (我)國之語音與文字不相流通 :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을 적기 위해 만든) ‘文字’와 잘 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몇 개의 문장이 생략·중복·압축 과정을 거쳐 ‘세종서문’의 제1문장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①에서는 생략된 ‘語音’을 복원하고, ②번 문장을 보충하여 읽으면 ‘세종서문’ 제1문장의 어색함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세종서문’의 제1문장을 번역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중국의 어음을 적기 위해 만든) ‘文字’(=중국문자,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정도가 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예의편’의 ‘세종서문’ 내용이 ‘정인지서’에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해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의(例義)’에 대한 “상가해석(詳加解釋=자세히 해석을 가한 것)”이 ‘5解 1例’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인지서’에서도 그 지침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간명하게 압축된 ‘세종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킬 목적으로 새 문자 창제의 배경과 필요성을 폭넓게 해설·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세종서문’의 제2문장(故愚民~多矣.)을 검토해보자. 이 문장의 내용도 ‘해례편’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정인지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구분	관련 내용
세종서문	02 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02-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마.츄.내 제 .쁘.들 시.러 퍼.디.물.흙 .노.미 하나.라
정인지서	09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10 昔新羅薛聰。始作吏讀。官府民間。至今行之。
	11 然皆假字而用。或濫或窒。
	12 非但鄙陋無稽而已。至於言語之間。則不能達其萬一焉。
	09- 글을 배우는 사람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의 뜻[旨趣]을 깨치기 어

	<p>려움을 근심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자세한 사정)을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고 있다.</p> <p>10-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청이나 민간에서 이를 사용해 오고 있다.</p> <p>11-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字=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어떤 것은 결끄럽고 어떤 것은 막힌다.</p> <p>12- (이두는) 비루하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적는 데에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통달할 수 없다.</p>
--	---

‘세종서문’과 ‘정인지서’의 글의 내용은, 주제문에 대해 자세한 해설을 붙인 보조적 문장 정도로 이해된다. 따라서 둘을 아울러 이해하면, ‘세종서문’의 ‘愚民’은 배움이 없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정인지서’의 09문장에 나오는 바와 같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學書者’나 옥사를 다루는 서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백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인지서’의 10~12 문장은 새 문자 창제 이전에 백성들의 문자생활을 평가한 것인데, 한자를 빌려[假字] 쓰는 이두(吏讀)로써 우리말을 적는 것으로는 의사전달의 만분의 일도 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문의 文理를 터득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 다수가 ‘文字’(필자 : 한자 및 한자를 직접구성요소로 하는 그 이상의 언어 단위)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애쓰지만, 끝내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세종서문’의 제2문장을 풀이하면, “그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ㄹ춤내=끝내’ 저들의 뜻[情]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정도가 될 것이다.⁷⁾ ‘세종서문’의 제2문장이 보편적·일반적 명제라면, ‘정인지서’는 ‘세종서문’의 진술을 고금의 구체적인 사례로써 해설·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세종서문’의 제3문장 내용이 ‘해례편’에 반영된 곳을 찾아보자. 이 문장 중에 있는 ‘新制二十八字’만은 해례본의 전체(용자례에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내용은 ‘정인지서’에만 반영되어 있다.

7) 해례본 ‘예의편’의 ‘세종서문’ 제2문장에 나오는 ‘而終不得...’의 ‘終’을 흔히 ‘마침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훈민정음》 언해본의 ‘ㄹ춤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ㄹ춤내’와 현대국어의 ‘마침내’는 음운형태는 유사하지만, 의미 자질이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대국어 의미에 맞게 번역한다면 언해본의 ‘終=ㄹ춤내’는 “끝내”로 대응·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구분	관련 내용
세종서문	03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03-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엿.비.너.겨 .새.로 .스.믈.여.뚝.字.쥁.를.땡.그.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너.겨 .날.로 .부.메 便.뻔.안.한.의.하.고.져.흥.썩.르.미.나.라
정인지서	13 癸亥冬。
	14 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
	15 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
	16 三極之義°二氣之妙°莫不該括。
	17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
	18 故智者不終朝而會°愚者可浹旬而學。
	19 以是解書°可以知其義。
	20 以是聽訟°可以得其情。
	21 字韻則清濁之能辨°樂歌則律呂之克諧。
	22 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
	23 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矣。
	13~14-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셨다.
	15- (글자는) 모양을 본떴으되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였으며, 말소리[聲]를 따라서 소리[音]가 칠조(七調)에 맞는다.
16- 삼재(三才)의 뜻과 이기(二氣=陰陽)의 묘함을 포괄하지 않은 것이 없다.	
17- (정음) 28자로써 전환이 무궁하며, 간단하면서도 요긴하고, 정밀하면서도 통한다.	
18- 슬기로운 이는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가 있다.	
19- 이(=정음)로써 (한자로 기록된) 글을 풀이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20- 이 글자로써 송사를 들으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21~22- 한자음에 있어서는 청탁(淸濁)을 능히 가릴 수 있고, 음악에 있어서는 율려(律呂=가락)가 고르게 된다. 쓰는 데 있어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은 바가 없다.	
23-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세종서문’ 제3문장의 내용이 가장 잘 반영된 곳은 ‘정인지서’ 전체 33문장 중에서 11개 문장(13~23번)이다. 이를 좀 더 분석하면, 13~14번에는 창제 시기, 창제자(세종), 글자의 수, 간략한 예의(例義), 문자의 명칭 정보가 제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15~16번에는 훈민정음 문자의 기원을 비롯해 새 문자에 갖추어진 역학의 이치를, 17~23번 문장에는 훈민정음의 탁월한 실용성과 우수성 등을 구체적인 예로써 보충 해설하고 있다. ‘제자해’에 서술된 내용을 요약해 ‘세종서문’의 제3문장을 해설·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서문’ 제3문장을 풀이하면, “내가 이를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나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씬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정도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종서문’의 내용은 키워드 ‘(正音)二十八字’는 해례본의 전체에 반영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정인지서’에만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정인지서’의 전체 33문장 중에서 ‘세종서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관여한 문장은 대략 21개 정도이다. 나머지 몇 문장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새 문자 창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약 2/3 정도가 ‘세종서문’ 내용의 이해와 설득, 해설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정인지서’의 나머지 1/3 분량(24~33문장)에만 ‘세종서문’과는 별도로 ‘해례편’ 자체의 서문 역할을 하며, 주로 세종의 ‘간략한 예의[略揭例義]’에 대하여 상가해석(詳加解釋)한 해례본을 편찬하게 된 경위와 참여자, 그리고 창제자(세종)에 대한 찬양과 서문 작성 시기와 작성자 등을 기록하였다.

결론적으로, ‘세종서문’과 ‘정인지서’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자가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와 기원을 담은 내용이라면, 후자는 ‘해례편’의 서문으로 ‘해례본’의 편찬 경위를 밝히며 주로 ‘세종서문’을 해설·보충·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세히 해석을 붙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라.[詳加解釋○以諸喻人]”는 세종의 명이 ‘오해일례(五解一例)’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정인지서’에도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종서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인지서’를 제1의 보충·해설 자료로 삼아 읽는 것이正道라 하겠다.

3. ‘훈민정음’의 초·중성 규정

이 단락에는 ‘세종서문’에서 밝힌 훈민정음 ‘新制二十八字’의 자형과 음가, 자모(字母) 등 언어를 ‘훈민정음’ 체계로 문자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를 3.1 초성 규정과 3.2 중성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음절 합자의 기본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중성’에 대하여는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에 그 규정 내용이 들어 있음이 분명하나, 현재 중성 제자규정 또는 중성 표기규정으로 달리 해석되고 있으므로, 그 정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제5장에서 별도로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3.1. 초성 규정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편’에 제시된 초성 규정 내용이 ‘해례편’에서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그것의 원론적 해설 자료인 ‘해례편’ <제자해>의 초성 설명과, <초성해>·<용자례> 등에 나타난 이 규정의 반영 양상을 검토한다. ‘초성 규정’의 실상을 사진으로 보이면 다음 [사진 3]과 같다.⁸⁾

8) 이 사진 자료는 한글학회(1998) 복원본을 필자가 발췌·축소한 것이다. 반치음(△)을 제외하고, 나머지(ㄱ~ㄴ) 부분은 낙장을 복원한 것인데, 훈민정음의 자형에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해례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논의는 정우영(2001) 참조.

(4) 초성의 청탁(淸濁) 배열순서도 ‘예의편’과 <제자해>의 그것이 서로 다르다.¹¹⁾ ‘예의편’에서 ‘아음~치음’은 ‘전청-전탁(=병서)-차청-불청불탁’ 순서로, ‘후음’만은 ‘전청-차청-(전탁=병서)-불청불탁’ 순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자해>에서는 韻書(동국정운 등)과 같이 ‘아·설·순·치·후음’ 모두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 순서로 제시되었다.

위의 (3)(4)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와 공백()의 독법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예의편’ 초성 규정의 청탁 배열순서(아음-후음)

<p>ㄱ.牙音。如君字初發聲 [ㄱ는 아음이니, ‘君(군)’자 처음 발음하여 나는 소리와 같다.]</p> <p>()竝書。如虬字初發聲 [()자는 (‘ㄱ’의) 병서(ㄱ)이니, ‘虬(유)’자 초발성과 같다.]</p> <p>ㅋ.牙音。如快字初發聲 [ㅋ는 아음이니, ‘쾌(快)’자 초발성과 같다.]</p> <p>ㅇ.牙音。如業字初發聲 [ㅇ는 아음이니, ‘업(業)’자 초발성과 같다.]</p>
<p>ㅎ.喉音。如挹字初發聲</p> <p>ㅎ.喉音。如虛字初發聲 [ㅎ는 아음이니, ‘虛(허)’자 처음 발음하여 나는 소리와 같다.]</p> <p>竝書。如洪字初發聲 [()자는 (‘ㅎ’의) 병서(ㅎ)이니, ‘虬(유)’자 초발성과 같다.]</p> <p>ㅇ.喉音。如欲字初發聲</p>

(5) ‘예의편’의 초성 규정과 <제자해>의 원론적 해설을 대조해보면, ① 청탁 배열 순서, ② 술어(전탁 : 병서), ③ 제시된 자형의 숫자(23자 : 17자)가 서로 다르다. 첫째, ‘세종 서문’의 ‘新制二十八字’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탁 6자의 자형이 삭제된 것이다. 둘째, 자형 삭제로 인해 ‘빈칸’이 된 全濁(ㄱ·ㄷ·ㅁ·

凝而爲全濁也(제자해). 후음만은 전청 ㅎ이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ㅎ은 ㅎ보다 소리가 얕아 엉기므로 차청을 병서해야 전탁이 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11) ‘예의편’의 청탁(淸濁) 배열순서는 韻書(고금운회거요/ 동국정운 등)의 그것과 다르게 되어 있다. 후음(喉音) 서열만 운서의 편찬체계를 따르고 있고, 나머지 牙·舌·脣·齒音의 경우는 그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예의편’과 ‘해례편’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ㄷ/ㄸ)자를 연상시키기 위해 아·설·순·치음은 청탁 순서를 바꾸었다. 셋째, 전청자의 다음 행에 ‘奎濁’이라는 용어 대신 ‘並書’라는 표기법 용어를 쓴 것은, ‘예의편’이 훈민정음에 대한 간략 정보를 담은 공시문(公示文)이므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문적인 술어를 하향 조정한 결과로 추정된다(정우영 2001).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자해>의 원론적 서술과 세종이 작성한 ‘예의편’이 다른 것은, 세종이 ‘훈민정음’ 규정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방법으로서, 공간 여백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묘수(妙手)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3.2. 중성 규정

이 규정에는 ‘세종서문’에서 밝힌 훈민정음 “新制二十八字” 중에서 중성 11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한 글자에 “자형, 자모, 음가” 등의 정보를 한 문장에 표현하였는데, 11문장 66자로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 이를 사진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진 4] 훈민정음 ‘예의편’의 중성 규정



(1) 중성 11자는 “(중성 자형)。如○字中聲”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ㄷ’ 까지 11자)

(2) 중성 11자의 음가는 자모(字母)의 기준 운서음인 동국정운 한자음을 기초로 한 것이다.

(3) 중성 11자의 순서와 해당 글자의 자모(○위치)는 “·(吞)/一(卽)/丨(侵)/ㄱ(洪)/丨(覃)/ㄷ(君)/ㄷ(業)/ㄱ(欲)/ㅈ(穰)/ㅍ(戍)/ㄷ(驚)”이다.

(4) ‘예의편’에 제시된 중성 11자(자형, 자모, 음가) 정보는 ‘해례편’의 여러 곳에 분산 반영되었다. <제자해>에는 주로 중성 자형의 제자 관련 정보가, <용자례>에는 중성 11자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4개 단어씩)가 제시되었다. <중성해>에서는 중성 11자의 순서에 따라 초성·중성과 음절을 이루는 방식을 자형과 자모로써 설명하였다. 또 <중성해>에는 그 밖에 중성 11자를 병서하여 여러 종류의 重中聲(2자합용, 1자·2자상합) 글자(18자)를 만들어 자형과 함께 제시하였다.

4. 문자 운용 규정

4.1. 연서법(連書法)

이 규정은 15세기 당시의 일반적인 쓰기 방식인 세로쓰기[縱書]에 맞추어 순경음(입술가벼운소리)을 적는 방법으로, 후음 ‘ㅇ’를 순음(양순음) 아래에 이어서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창제자가 인식하고 있었거나 또는 새로 인식해 사용하고자 하는 초성을 표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분	관련 내용	
예의편		39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正音 3ㄴ>
		ㅇ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울가벼운소리 ㄴ외니니라
해례편	제자	051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者○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ㅇ’를 순음 아래에 연서하면 순경음이 된다. 이것은 가벼운

해	소리로서 입술이 잠깐 합쳐지고 목구멍소리가 많다. 訣154 欲之連書爲脣輕 ‘欲(ㅇ)’모를 연서하면 순경음이 된다.
합 자 해	29 若欲備用○則依脣輕例○○連書ㄹ下○爲半舌輕音○舌乍附上 脣。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순경음의 예에 따라 ‘ㅇ’을 ‘ㄹ’ 아래 연서하면 반설경음이 되니, 혀를 잠깐 잇몸에 붙인다.
용 자 례	10 ㄹ○如사·비爲蝦○드·뵈爲瓠。 ‘ㄹ’은 ‘사·비’[蝦], ‘드·뵈’[瓠](의 ‘ㄹ’과) 같다.

(1) ‘해례편’의 <제자해>에는 순경음의 표기 및 발음 방법을 갖추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초성 규정에 음가가 제시된 23자(17자+병서6자)를 제외하고, 합용병서로 만들어진 다른 초성들에 비하면 ‘예외적’인 설명이어서 ‘특례’ 조항이라 할 수 있다.¹²⁾

(2) <합자해>에서는 연서법을 응용한 표기 사례를(ㄹ 설경음), <용자례>에서는 그 구체적인 단어를 제시하였다. 이들 단어(사비[蝦], 드뵈[瓠])는 당시 국어에 순경음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이용되기도 한다.¹³⁾ 다만, 15세기 정음 초

12) 여기 ‘예외적’이니 ‘특례’니 하는 말은 오늘날에는 그 음가를 알기 어려운 ‘ㅅ’[ㅅ, 隻], ‘ㅈ’[ㅈ, 隙]과 같은 합용병서는 쓰는 방법과 용례만 제시했을 뿐 발음 방법은 설명된 적이 없다. 그러나 순경음(ㄹ, 𐄀, 𐄁, 𐄂)은 ‘예외편’에서는 표기 방법을, ‘정음해례’ <제자해>에서는 표기 방법뿐만 아니라 발음 방법까지 해설하였다. 이처럼 예외 또는 특례로 처리된 이유를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재한 음소가 아니고 ‘인위적/추상적’(外來語的?) 음소였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ㄹ’이 이와 같은 해설 없이는 인식하거나 조음하기 어려운 소리(=고유요소가 아닌)였기 때문에, 발음(조음) 방법에 특별한 설명과 주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국어 표기로는 1461년 능엄경언해(활자본)부터 폐지되지만, 외국어 표기(중국어·범어·일본어 등)를 위해서는 18세기까지 생산적으로 쓰인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3) 순경음(ㄹ) 표기가 실제로 존재했으니까 문자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正音’의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 차자 및 전사 자료에서 순경음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 1461년 이전 문헌까지는 아주 생산적으로 쓰이다가 楞嚴經諺解(1461)에 와서 일괄 소멸된 점, 방언에 순경음이 음소로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은 국어 음운사 연구자들에게는 이것이 국어 고유의 음소였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 한글문헌부터 1460년경 문헌까지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1461년 능엄경언해를 기점으로 일괄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이로써 ‘훈민정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 ‘초성’은 초성 규정의 23자(초성 17자+전탁6자)와 순경음 4자가 추가되어 총 29자가 초성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4.2. 병서법(竝書法)

이 규정은 초성이나 종성으로 서로 다른 소리를 합하여 쓸 경우에는 초성글자를 병서(=나란히 쓰기)하라는 규정이다.¹⁴⁾ 나란히 쓴다는 ‘병서(竝書)’의 의미 그 자체만으로는 중성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초성과 종성에 한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구분	관련 내용
예의편	40 初聲合用則竝書○終聲同。 <正音4ㄱ>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글바쓰라 乃內終중ㄱ소리도 혼가지라
해례편	<p>09 初聲二字三字合用竝書○如諺語·ㅅㅈ爲地○ㅅㅈ爲隻○·뽕爲隙之類。 초성의 2자·3자 합용병서는 우리말 ‘·ㅅㅈ’[地]·‘·ㅅㅈ’[隻]·‘·뽕’[隙] 등과 같다.</p> <p>11 中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과爲琴柱○·화爲炬之類。<解例 21ㄱ~21ㄴ> 중성(글자)을 2자·3자 합용한 것은 우리말의 ‘·과’[琴柱]·‘·화’[炬] 등과 같다.</p> <p>12 終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 ㅎ爲土○·낫爲釣○·늪·뻬爲酉時之類。 종성(글자)을 2자·3자 합용한 것은 우리말의 ‘·ㅎ’[土]·‘·낫’[釣], ‘·늪·뻬’[酉時] 등과 같다.</p>

14) 백두현(2009: 83)에서는 이 규정을 ‘합용법’으로 명명하였으나, ‘예의편’의 이 문장은 설명의 초점이 ‘(초·종성의) 並書’에 있으므로 ‘병서법’으로 부르코자 한다.

	<p>13 其合用並書○自左而右○初中終三聲皆同。 그 합용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초성·중성·종성 세 소리가 모두 같다. 訣40 初終合用各並書 초성·중성(글자)을 합용하려면 각각 병서하고 訣41 中亦有合悉自左 중성(글자)도 합용하되 다 왼쪽부터 쓴다.</p>
중성해	<p>06 二字合用者○ㄱ與ㄴ同出於·○故合而爲과。 2자를 합용(合用)함에는 ㄱ와 ㄴ가 다 같이 ‘·’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과’가 된다. 07 ㄱ與ㄴ又同出於 ○故合而爲과。 ‘ㄱ’와 ‘ㄴ’가 또한 ‘ ’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과’가 된다.</p>

(1) 병서법 규정인 “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이 규정대로 적용된 곳은 <합자해>의 해설문(09-초성, 12번-중성)이며, 이 규정이 압축·표현된 곳은 운문(訣40번)이다.

(2) 그러나 병서법 규정에 대하여 <합자해>에는 13번처럼 제시되었으나, ‘중성’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공시문과 해설문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성의 경우는 ‘合用’(중성해-06번), ‘合用並書’(합자해 13번)라는 용어를 써서 해설하였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의편’ 규정에서는 ‘中聲’이 빠져 있다.

(3) ‘병서법’ 규정에서 ‘中聲’을 빼고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공시문의 오류일 가능성. 즉 “初聲合用則並書○(中)終聲同”이어야 하는데 규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並書’라는 용어의 특수성에서 初聲並書로 만들어진 ‘全濁’의 代用¹⁵⁾ 사례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뺐을 가능성. 즉 초성 규정에서 이미 ‘全濁’(ㄱㄴㄷㅈㅊㅌㅍㅍㅍㅍㅍ)이라는 용어 대신 ‘並書’로 쓰고 있으므로, 초성과 중성의 ‘並書’의 내포적 의미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서 문자 운용규정에서 ‘中聲並書’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15) “049 全清並書則爲全濁○以其全清之聲凝則爲全濁也。”[전청을 나란히 쓰면 전탁이 되나니, 그것은 전청의 소리가 엉기면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解例4 ㄱ~4 ㄴ>. “訣 150 全清並書爲全濁”[전청을 나란히 쓰면 전탁이 된다.] <解例11 ㄴ>

(1) ‘예의편’의 부서법 규정은 <합자해>에 해설되어 있으며, 주제문은 04~05번 문장이다. ‘예의편’ 규정과 조금 다른 점은 해당되는 훈민정음 중성자들이 부서법에는 주어로 앞에 제시되었는데, <합자해>에는 뒤편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2) 해설문은 초성 또는 중성을 기준으로 부서(附書, 붙여쓰기)에 대하여 일반적 진술(02번, 訣34~37번)을 하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표기 사례(03~06번)를 보였다. ‘중성’과의 부서 방법도 ‘예의편’에서 규정으로 제시했을 법하나, 음절구조상 중성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 규정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¹⁶⁾

(3) 이 규정에 동원된 중성은 훈민정음 중성 11자이며, 음절 합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수적 표기 규정이라 할 수 있다.

4.4. 성음법(成音法)

‘성음법’은 음절(자절)을 구성하는 대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음절 구성의 기본요소인 초성·중성·종성이 합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인구어와 같은 풀어쓰기 방식이 아닌, 초·중·종성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7자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규정이지만, 초·중·종성의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자해>와 <합자해>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구분	관련 내용	
예의편	제	43 凡字必合而成音。 <正音3ㄱ>
	해	믈읳 字쫁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해례편	제	104 初聲有發動之義○天之事也。<解例8ㄱ~8ㄴ>
	해	105 終聲有止定之義○地之事也。

16) 종성과의 부서 방법은 종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07 終聲在初中之下。”(종성은 초성과 중성의 아래에 있다.)<합자해> 그 용례로는 “08 如君字ㄴ在 구下○業字ㅂ在어下之類。”[‘君(군)’자의 ‘ㄴ’은 ‘구’의 아래에 있고, ‘業(업)’자의 ‘ㅂ’은 ‘어’의 아래에 있는 것 등과 같다.] <합자해>

	<p>중성에는 그치고 정해지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106 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人之事也。 중성은 초성이 생겨나는 것을 이어 중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107 蓋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 대개 음절[字韻]의 핵심은 중성에 있는바, 초성·중성과 합하 여 소리[음절]를 이룬다. 108 亦猶天地生成萬物。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역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더라도, 잘 조절하여 집고 돕는 것 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힘입음과 같다.</p>
합 자 해	<p>01 初中終三聲。合而成字。 초성·중성·종성 세 소리가 합하여 글자[음절/자절]를 이룬다.</p>

(1) ‘예의편’의 이 규정이 반영된 곳은 <제자해>와 <합자해>이다.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문은 <제자해>의 107번과 <합자해>의 01번 문장이다. 이를 아울러 보면, “合而成音=合而成字”라고도 할 수 있다.¹⁷⁾

(2) <제자해>의 경우에는 104~106번, 그리고 108번 문장은 107번 주제문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문장으로, 초·중·종성의 역할을 삼재(三才)의 이치로 해석하면서 중성이 핵심이 되어 초·중성과 합해 음절을 구성함을 설명하였다.

(3) 이 규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음절(자절)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초성·중성·종성의 자형(음가)과 표기법이 앞에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초성·중성은 앞서 살펴본 바처럼 그것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성’의 경우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 무엇을 위한 규정인지, 해석 여하에 따라 이 ‘성음(자)법’ 규정을 포함한 문자 운용규정이 ‘아직 더 보완되어야 할 초보 단계의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4) 이 문자 운용규정 단락이 초·중·종성 순서로 체계를 갖추어 제시되었다고 가정하면, 문자 운용규정 단락의 문맥상 이 ‘성음법’ 규정의 앞에 와야 할 규정은 종성 표기규정으로 — 그것이 ‘중성부용초성’이든 ‘팔중성가족용’ 규정이든 간에 — 제시되어 있어야만 이 ‘성음법’ 규정이 문자 운용규정 단락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17) 표기법의 관점에서는 성자법(成字法)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4.5. 가점법(加點法)

이것은 音節(字節)을 형성한 글자의 왼쪽에 점(點)을 찍어 성조(聲調)를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두 문장 23자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국어학계에서는 관례적으로 방점법(傍點法/旁點法)이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傍點·旁點’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그것이 반드시 글자의 ‘왼쪽에 찍는/찍은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예의편’과 ‘해례편’의 관련 서술을 참고하여 ‘가점법(加點法)’이라 부르코자 한다.¹⁸⁾ 다만, 이때의 ‘加點’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문맥상 “字之左”(글자의 왼쪽)가 생략된 것이므로, 그것을 넣어서 이해해야 의미가 완전하게 들어온다. 이 규정과 관련된 해설을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 내용	
예의편		44 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
		45 入聲加點同而促急。<正音4> 왼녀긔 혼 點덤을 더으면 ㅁ노폰소리오 點덤이 둘히면 上쌍聲성이오 點이 업스면 平聲이오 入입聲성은 點덤 더우면 혼가지로되 ㅅ르니라
해례편	합 자 해	15 諺語平上(상성)去入○如 활爲弓而其聲平○:돌爲石而其聲上○·갈爲刀而其聲去○·분爲筆而其聲入之類。<解例21ㄴ~22> 우리말의 평성·상성·거성·입성은 ‘활’[弓]이 평성이 되며, ‘:돌’[石]이 상성이 되며, ‘갈’[刀]이 거성이 되며, ‘분’[筆]이 입성이 되는 것 등과 같다.
		16 凡字之左○加一點爲去聲○二點爲上聲○無點爲平聲。 무릇 글자의 왼편에 1 점을 더하면 거성이 되고, 2 점을 더하면 상성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 된다.
		17 而文之入聲○與去聲相似。자음(字音)의 입성은 거성과 서

18) 한자 ‘傍·旁’은 본래 한자 구성에서 한자의 부수나 형성자의 음부자(音符字)가 그 한자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한자의 용례를 살펴보면 글자의 결이나 위쪽에 찍는 것까지 통틀어 ‘방점’이라 불러오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방점법’이라 불러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p>로 비슷하다.</p> <p>18 諺之入聲無定。或似平聲。如간爲柱。넙爲脅。 우리말의 입성은 정해진 것이 없다. 혹은 평성과 비슷하니, ‘간’[柱]·‘넙’[脅]과 같다.</p> <p>19 或似上聲。如:남爲穀。:깁爲繒。 혹은 상성과 비슷하니, ‘남’[穀]·‘:깁’[繒]과 같다.</p> <p>20 或似去聲。如·뎡爲釘。·입爲口之類。 혹은 거성과 비슷하니, ‘뎡’[釘], ‘·입’[口]과 같다.</p> <p>21 其加點則與平上去同。 그 점을 더함은 평성·상성·거성과 같다.</p> <p>訣46 音因左點四聲分<解例24> 소리는 왼쪽의 점으로 사성을 나눈다.</p> <p>訣47 一去二上無點平 1 점은 거성, 2 점은 상성, 무점은 평성이니,</p> <p>訣48 語入無定亦加點¹⁹⁾ 우리말의 입성은 일정하지 않으나 역시 점을 더한다.</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중성해</p>	<p>05 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 소리에는 느리고 완·급의 차이가 있으므로 평성·상성·거성은 그 중성이 입성의 축급함에 들지 못한다.</p> <p>07 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 전청·차청·전탁 글자는 그 소리가 센 까닭에 중성으로 쓰면 입성에 알맞다.</p> <p>08 所以ㄱㄴㅇㄹ△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 그러므로 ㄱㄴㅇㄹ△ 6자는 평성·상성·거성의 중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중성이 된다.</p> <p>訣20 不清不濁用於終 불청불탁을 중성에 쓸 것 같으면</p> <p>訣21 爲平上去不爲入 평성·상성·거성은 되나 입성은 되지 못한다.</p> <p>訣22 全清次清及全濁 전청·차청 및 전탁은</p> <p>訣23 是皆爲入聲促急 <19ㄴ> 이들 모두 입성이 되어 축급하다.</p>

19) <합자해>의 해설문 “18 諺之入聲無定。或似平聲。如간爲柱。넙爲脅。”[우리말의 입성은 정해진 것이 없다. 혹은 평성과 비슷하니, ‘간’[柱]·‘넙’[脅]과 같다.]에 의

(1) 가점 규정에서 사성점(四聲點)의 경우는 ‘해례편’의 <합자해>에 자세히 반영되어 있으나, 특히 ‘촉급(促急)’과 관련된 사항은 <종성해>에 반영되어 있다.

(2) 사성의 가점에 관한 핵심 주제문은 <합자해>의 16번·21번과 결 46~47문장이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15, 18~20번은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용례를 보여주는 예문이다.

(3) ‘예의편’의 “45 入聲加點同而促急”은 입성의 가점 방법과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핵심어 ‘促急’은 <종성해>의 05번 문장과 결22~23문장을 통해 확인된다.

(4) 이 규정은 독립적인 문장이기는 하지만, 앞의 ‘성음(자)법’ 규정과 아울러 보아야 언어학적 의미가 살아난다. 왜냐하면, “凡字必合而成音”에 따라 언어를 음절(자절) 단위로 문자화한 뒤에 가점 규정에 따라 사성 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음운론적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²⁰⁾

4.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예의편’에 나오는 ‘종성부용초성’ 규정이 어떤 성격을 띤 규정인가의 문제는 학계에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학습자들이 이 규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도로 간략하게 표현한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싶다. 그 한 예로, 이 규정을 일제 강점기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할 때 주시경을 비롯한 학자들은 “초성에 쓰인 모든 글자는 다시 종성(받침)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즉 ‘종성 표기규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이기문(1963, 1970)에서는 이 규정을 철자법상의 규정으로만 이해해온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그 규정의 본지는 어디까지나) 종성자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자로 통용하게 한다.”고 해석하면서부터 이른바 ‘종성 제자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우세하게 되었다.²¹⁾

거하면, 결(訣)의 “訣48 (語)入無定亦加點”은 ⇒ “(諺)入無定亦加點”이 옳을 것이다.
 20) ‘성음법’과 ‘가점법’은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다른 조항과는 다르게, “凡뽕字·뽕 | 必뽕合뽕而뽕成뽕音뽕 ㅎ·ㄴ·ㄷ·ㄹ~뽕뽕而뽕促·촉急·급 ㅎ·ㄴ·ㄷ·ㄹ”와 같이 연결어미로 있고, 가점법 규정까지를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묶어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가점법’의 경우 “左加一點則去聲...”에서 맨 앞에 “凡字之”를 추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1) 중세국어 문법서들을 보면, 이 규정을 ‘종성 제자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단연 우세해 거의 통설처럼 수용되고 있다. 안병희·이광호(1990), 고영근(2010) 참조.

오늘날에는 후자가 통설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두 견해 각기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해례편’에서 찾아보고, 두 견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히 지적하기로 한다.

4.1. 종성 제자규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

‘해례편’의 <제자해>에 “終聲復用初聲”이라는 이 규정의 핵심어가 그대로 나온다.

구분	관련 내용	
예의편	38 終聲復用初聲。 乃 냉終중기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해례편	제자해	<p>097 中聲以深淺闔關唱之於前。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而爲初亦爲終。<7ㄴ~8기></p> <p>중성이 깊고 얕음과 오므라지고 퍼짐으로써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과 청탁으로써 뒤에서 화답하니, 초성이 다시 중성이 된다.</p> <p>098 亦可見萬物初生於地。復歸於地也。</p> <p>역시 만물이 처음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다.</p> <p>109 終聲之復用初聲者。以其動而陽者乾也。靜而陰者亦乾也。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8ㄴ></p> <p>중성에서 초성(자)을 다시 쓰는 것은, 동(動)해서 양(陽)이 된 것도 건(乾, 초성 글자)이요, 정(靜)해서 음(陰, 중성)이 된 것도 건(乾, 초성 글자)이니, 건이 실지로는 음과 양으로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주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p> <p>110 一元之氣。周流不窮。四時之運。循環無端。故貞而復元。冬而復春。<9기></p> <p>일원(一元)의 기운이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돌고 돌아 끝이 없는 까닭에, (元亨利貞에 따라) 정(貞.</p>

	<p>끝)이 다시 원(元.시작)이 되고 겨울에서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다. 111 初聲之復爲終○終聲之復爲初○亦此義也. 초성이 다시 중성이 되고 중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뜻이다. 訣196 初終雖云分兩儀 초성과 중성이 비록 음·양으로 나뉜다고 하지마는 訣197 終用初聲義可知 중성에 초성을 쓴 뜻을 가히 알리로다.</p>
--	--

(1) 예의편의 ‘終聲復用初聲’ 규정이 <제자해>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109번 문장은 핵심 주제문이고, 111번도 순서만 다를 뿐 이 규정의 내용과 같다. 나머지는 주제문을 위한 보조적 문장들이고, 마지막 두 문장은 해설을 요약해 운문(訣196,197)으로 표현한 것이다.

(2) ‘중성부용초성’을 역학이론을 동원하여 초성·중성이 비록 음·양으로 나뉘지만, 일원의 기운이 무궁하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환 무단한 것과 같이 같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제자해>에는 이 규정에 관한 설명이 초성자-중성자 해설이 끝난 뒤에 나오며, ‘예의편’에서도 초성·중성 규정 뒤에 이 규정이 위치해 있어 체계적 대응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예의편’에서는 문맥상 초성-중성 다음에 ‘중성’의 자형과 음가가 제시되어야 할 위치이며, 이 단락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고 보면 이곳은 틀림없이 중성 규정이 나올 곳이지 중성 표기규정이 나올 위치는 아니다.

(4) 문제점: 이것으로만 해석할 경우, ① 실제로 쓰인 표기의 원론 규정이 없고, 음절 합자에서 중성을 적는 위치 및 중성으로 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규정이 없다. ② <중성해>에 있는 ‘빛꽃’[梨花], ‘엿의갓’[狐皮]과 같은 표기의 근거 규정은? ③ 정음 창제 초기문헌에서 ‘곶, 깊고, 움브리, 빛나시니이다’<용비어천가>를 비롯해 ‘낫, 날, 궂, 낫, 불’<월인천강지곡> 같은 표기의 근거 규정은? ④ ‘홍배/뿔디면’과 같은 국어 표기, 그리고 한자음 표기의 ‘復響/漂響/如聲’에 나타난 중성 ‘ㄹ/ㄹ/ㅇ’ 표기들의 근거 규정은? ⑤ <용자례>에 나오는 ‘닥[楮], :곰명[鱗鱒], ·간[筓], 신[屨], 섭[薪], :범[虎], ·못[池], ·달[月]’과 같은 표기 근거는?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예의편’의 규정은 ‘아직 더 보완되어야 할 초보적인 단계’의 것이라 평가될 것이다.

4.2. 종성 표기규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

‘해례편’의 <종성해>와 특히 정음 창제 초기문헌에 나타난 여러 표기 사례로 볼 때, 이 규정을 종성 표기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구분	관련 내용	
예의편	38 終聲復用初聲。	
	乃냉終중ㄱ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는니라	
해례편	종성해	<p>01 終聲者○承初中而成字韻。 종성은 초성과 중성을 이어받아 자운(字韻, 음절)을 이룬다.</p> <p>02 如卽字終聲是ㄱ○ㄱ居즈終而爲즉。 예컨대 卽(즉)자의 종성은 곧 ㄱ인데 ㄱ은 ‘즈’의 끝에 있어서 ‘즉’이 된다.</p> <p>04 舌脣齒喉皆同。</p> <p>06 不清不濁之字○其聲不厲○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17ㄴ-18ㄱ> 불청불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거세지 않으므로 종성으로 쓰면 평·상·거성에 마땅하다.</p> <p>07 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 전청·차청·전탁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종성에 쓰면 입성에 마땅하다.</p> <p>08 所以○ㄴㄷㄹ○ㄷㄹㅁㅂㅅ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 그러므로 ○ㄴㄷㄹ○ㄷㄹㅁㅂㅅ의 6자는 평성·상성·거성의 종성이 되고, 그 나머지(필자. 전청/차청/전탁 글자)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p> <p>09 然ㄱ○ㄷㄴㄷㅁㅂㅅ八字可足用也。 그러나 ㄱ○ㄷㄴㄷㅁㅂㅅ 8자만으로 쓰기에 족하다.</p> <p>10 如빛곳爲梨花○엿·의갓爲狐皮○而ㅅ字可以通用○故只用ㅅ字。 예를 들면 ‘빛곳’[梨花], ‘엿의갓’[狐皮]은 ‘ㅅ’자로 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ㅅ’자를 쓰는 것과 같다.</p> <p>11 且○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18ㄱㄴ> 그리고 ○는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종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국어의) 종성이 음[음절]을 이룰 수 있다.</p>

(1) <종성해>의 10번 문장에서 ‘빛꽃’[梨花]·‘엿의갓’[狐皮]은 07~08번 주제문에 대한 구체적 예시이며, 이때 종성 ‘ㅅ,ㅈ,ㅊ,ㅌ’을 ‘ㅅ’자로 통용할 수 있는 근거는 09번 문장이다.

(2) 특히 07번 “전청·차청(ㄱㅈㅊㅌㅎ)·전탁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종성에 쓰면’ 입성에 마땅하다.”[全淸次淸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는 문장은 종성으로 표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원론적 설명이라고 본다. 음절 합자에서 종성으로 쓸 수 있는 종류는 ‘훈민정음’ 초성 17자(06번 불청불탁자 포함)와 전탁자 ‘ㄱㅈㅊㅌㅍㅊㅌㅍㅌ’ 등 23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3) 09번(8자종성), 11번(후음○종성) 문장은 (2)와 같은 방법으로 초성 23자를 쓸 수도 있으나, 종성 글자의 개수를 제한해서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8개 종성만으로도 충분(필요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²²⁾

(4) 이 규정을 종성 표기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종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초성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모든 초성을 종성에 쓸 수 있다. ‘예의편’의 규정에 의한 것만 해도 정음 “초성(17자)+병서(전탁 6자)+초성합용병서+연서법에 의한 순경음(4자)” 등이다.

(4) 문제점 : ① 초성·중성은 ‘예의편’ 규정에 의해 자형과 음가가 명시되었으나, 종성의 경우는 종성 글자의 제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예의편’의 단락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면, 문맥상 초성-중성 다음에 ‘종성’의 자형과 음가가 제시되어야 할 위치이지 종성 표기규정이 나올 위치가 아니다. 만약 이것을 종성 표기규정으로 보고자 한다면 체계적 서술을 어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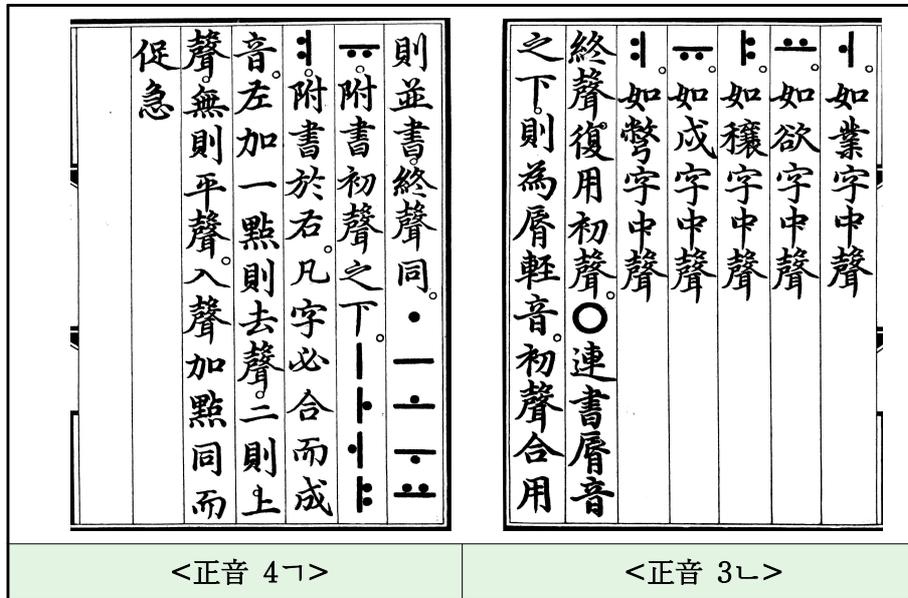
- 이상에서 간략히 두 견해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나, 두 견해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의 규정을 오늘날의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 규정 자체가 ‘종성 제자규정’이자 ‘종성 표기규정’의 중의적(重義的) 규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정우영 2013). 그것은 세종이 만든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명할 몇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규정이 ‘자모 규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표기규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예의편’은 공시문이며, 체계적인 규정이었던 것을 학습자(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압축(생략)·조정·통합하였을

22) “초성이 종성이 됨은 이치가 실로 그러하나, 다만 8자를 가지고 쓰더라도 궁하지 아니하다.”[初作終聲理固然 只將八字用不窮]<종성해 결>. “ㄱㅈㅊㅌㅍㅊㅌㅍㅌ八字可足用也”에 대해 “只將八字用不窮”이라고 표현한 마음을 헤아려 볼 일이다.

가능성이 있다.²³⁾ 따라서 현재의 ‘예의편’ 규정을 원론에 근거하여 재구·복원한 다음 현재의 것과 비교해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예의편’은 세종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결한 규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공간(여백) 활용과 단락 구성에 절묘한 장치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성 규정의 ‘병서 행’에서 ‘공백(여백)’이 그것이며, 또 여기에도 그것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으로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즉 초·중·종성 규정 단락과 문자 운용규정 단락의 교차점에 ‘중성부용초성’ 규정을 배치한 것이다. 공간 활용의 백미(白眉)라고 평가할 만하다.

[사진 5] 훈민정음 ‘예의편’의 문자 운용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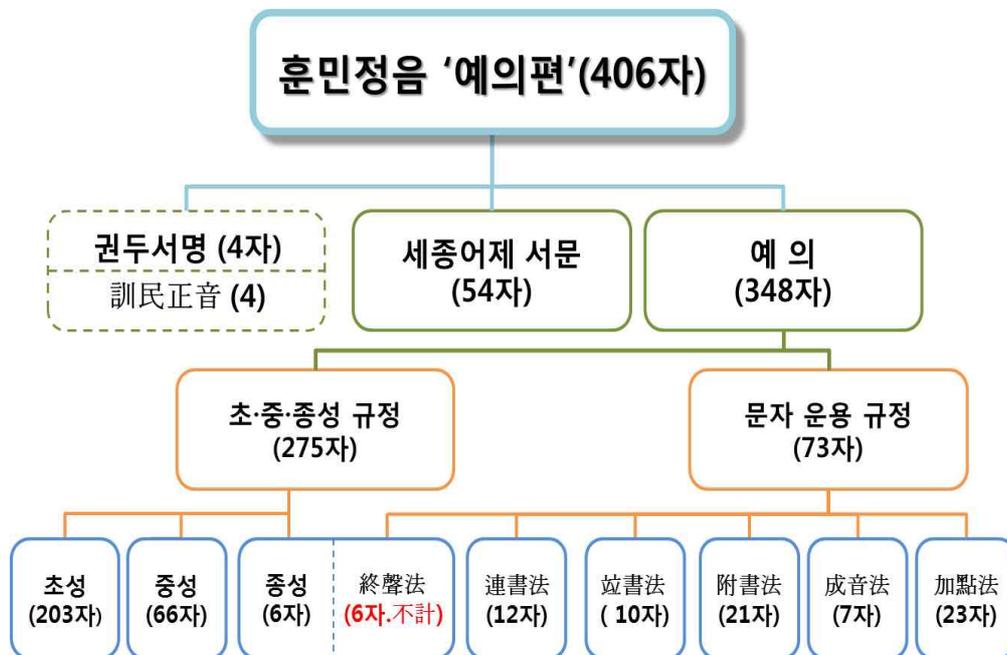
23) ‘세종서문’이 54자로 생략·압축하여 표현한 글이라는 견해는 김광해(1990), 임홍빈(2008) 참조.

6.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의 구조도와 ‘해례편’과의 상관도

6.1.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의 구조도

이상 본문에서 분석한 바를 토대로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의 구조를 구조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 구조도



이 ‘예의편’의 구조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례본 전체 442문장 5337자 중에서 ‘예의편’은 총 45문장 406자로 구성되어 있다.

(2) 권두서명은 <訓民正音>이며, 내용상으로는 크게 3단 — ① 세종서문, ② 초·중·종성 (체자)규정, ③ 문자 운용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다시 ㉓ 문자 운용규정은 6개 규정 — ① 종성법, ② 연서법, ③ 병서법, ④ 부서법, ⑤ 성음법, ⑥ 가점법 — 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이 구조도의 특징 : “종성부용초성”은 다른 규정과는 달리 ‘종성 제자규정’과 ‘종성 표기규정’의 중의적(重義的) 규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

6.2. ‘예의편’의 구조도와 ‘해례편’과의 상관도 (PPT로)

이상의 논의에서 검토한 ‘예의편’과 ‘해례편’의 상관관계를 관계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금 더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표 3]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편’과 ‘해례편’ 관계도

예의편		상관관계	해례편	
세종어제 서문			초성 (17자)	제 자 해
초성 규정			청탁분류(초성 23자)	
중성 규정			순경음	
종성부용초성	종성 제자 규정		중성 (11자)	
	종성 표기규정		초·중·종성 관련성	
			종성부용초성	
연서법			초성해	
병서법(초성·중성)			중성해	
부서법			종성해	
성음법			합자해	
가점법			용자례	
			정인지서	

7. 결론 (발표 중에 강조한 내용으로 대신함)

참고 문헌

- 강신항(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창석(1992), “15세기 음운이론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고영근(2010), 《제3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권재선(1999), 《훈민정음 표기법과 음운: 중세 음운론》, 우골담.
- 김광해(1990), “훈민정음 창제의 또 다른 목적”, 《강신항 교수 회갑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26~36.
- 김민수(1957), 《주해훈민정음》, 통문관.
- 김슬옹(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 김유범(2009),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바라본 해례본 『훈민정음』 기술 내용의 몇 문제, 《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05~124.
- 김주원 외(2007), “훈민정음 언해본의 정보 제작에 관한 연구”, 《국어사 연구》 7, 국어사학회, 7~40.
- 박병채(1976), 《역해 훈민정음》, 박영사.
- 박중국(1984),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지홍(1984), 《풀이한 훈민정음: 연구·주석》, 과학사.
- 박지홍(1986), “원본 훈민정음의 짜임 연구: 예의와 꼬리말의 내용 견증”, 《석당논총》 12, 동아대학교, 141~156.
-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백두현(2009),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구조 연구”, 《국어학》 54, 국어학회, 75~107.
- 송기중(2009), “팍바('Phags-pa 八思巴) 문자와 훈민정음”, 《국어학》 54, 국어학회, 17~74.
- 안병희(1972), “해제: 세종어제훈민정음”, 《국어학자료선집[Ⅱ]》, 국어학회 편, 일조각, 309~311.
- 안병희(1986), “훈민정음해례본의 복원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927~956.
- 안병희(1992가),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1992나),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2002), “훈민정음(해례본) 삼제”,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173~191.
-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연규동·이전경·김은희·김남시(2012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文字’의 의미”, 《동방학지》 158, 연세대 국학연구원, 143~182.
- 연규동·이전경·김은희·김남시(2012나),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에 나타난 ‘文字’의 번역 문제”, 《인문과학》 96,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45~65.
- 유창균(1996), 《훈민정음 역주》, 형설출판사.
- 이광호(2010),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에 대한 가설”, 《제181회 전국학술대회》,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기조강연)
-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 이기문(1970), 《개화기 국문연구》, 일조각.
-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1~15.
- 이기문(1992), “훈민정음 친제론”, 《한국문화》 1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18.
- 이동림(1973),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이십칠자’ 책정근거”, 《양주동박사고회기념논문집》, 탐구당, 113~144.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출판부.
- 이현희(1991), “훈민정음의 이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교육》 21,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59~74.
- 이현희(1997), “훈민정음”, 《새국어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237~254.
- 이현희(2012가), “단어 ‘한글’ 및 ‘문자’와 음운론적인 정보”, 2012 훈민정음학회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훈민정음과 오늘》, (사) 훈민정음학회. (별지)
- 임용기(2008),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115~156.
- 임흥빈(2008),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 국제 학술Workshop》, 한국학중앙연구원, 163~195.
- 전성호(2009), “세종시대 내부 통제 시스템”, 정윤재 외 지음,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95~144.
- 정요일(2008), “『훈민정음』 「서문」의 ‘者’·‘놈’의 의미와 관련한 고전 재검토의 필요성 논의: ‘者’와 ‘놈’은, ‘것’ 또는 ‘경우’를 뜻한다-” 《어문연구》 3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69~295.
- 정우영(2001), “훈민정음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191~227.
- 정우영(2005), “국어 표기법의 변화와 그 해석”,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93~326.
- 정우영(2008), “대한민국 국보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훈민정음』”, 《문화재사랑》 47, 문화재청, 32~35.
- 정우영(2013), “《訓民正音》 언해본 텍스트의 새로운 분석”, 《제63차 한국어학회 전국학

- 술대회», 한국어학회. (별책 1~16).
- 조규태 외(2007), 《훈민정음 언해본 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 문화재청.
- 조규태(200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2007년 수정판].
- 조규태(2005), “최초의 옛한글 표기법 재구”, 《국어사 연구》 5, 국어사학회, 121~142.
- 최세화(1997), “훈민정음 낙장의 복원에 대하여”, 《국어학》 29, 국어학회, 1~32.
-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 홍기문(1946), 《정음발달사》(상·하), 서울신문사.
- 홍윤표(2008), “훈민정음의 ‘與文字不相流通’에 대하여”,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개척자》, 대학사, 767~785.
- 홍윤표(2012), “훈민정음에 대한 몇 가지 주장”, 2012 훈민정음학회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훈민정음과 오늘》, (사) 훈민정음학회, 1~29.
- Lee Hyeon-hie & Lee Soo Yeon(2012),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preface to Hunmin jeongeum by King Sejong”, 《Proceedings of the SCRIPTA 2012》, The Hunmin jeongeum Society, 225~237.

개별 발표 2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백두현(경북대학교)

1. 문제의 제기

한국인은 한글¹⁾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예찬하고 자랑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에 계도 이 점을 가르친다. 그런데 학술적 차원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식상한 느낌마저 든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의 저명 언어학자들이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훈민정음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 두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에 담겨 있는 본질과 그 특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낸다면, 우리는 훈민정음에 대해 보다 새롭고 심화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필자는 훈민정음에 보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이것이 가진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성찰해 보고자 한다.

한자나 로마자에 비해 훈민정음은 2천년 정도 늦게 만들어진 문자이다. 뒤늦게 만들어진 만큼 훈민정음 창제자는 음성 분석 방법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음성 분석 방법론으로 중국 성운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였고, 문자학적으로는 한자의 구성원리를 비롯하여 몽고 문자, 거란 문자, 파스파 문자 등 동아시아의 제 문자에 대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었다. 훈민정음은 발전된 음성 분석 방법과 문자 정보를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뒤늦은 시기에 만들어졌으니 우수한 문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훈민정음은 알파벳이나 한자처럼 역사적으로 점진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문자가 아니라 특정 시기에 특정 창제자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 이 글에서 ‘훈민정음’과 ‘한글’은 같은 의미로 쓰지만 창제 당시와 관련하여 기술하는 문맥에서는 전자를 주로 쓰고, 현대적 상황과 관련된 기술에서는 ‘한글’을 주로 쓴다.

만든 문자이다. 그리하여 훈민정음은 하나의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제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창제 목적 그리고 창제 원리에 관련된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 훈민정음은 태어날 때부터 창제 목적과 창제 원리와 연관하여 일정한 가치관을 내재한 문자이다. 달리 말해, 훈민정음은 태생적(胎生的)으로 창제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창제 원리와 관련하여 사상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내재한 문자라는 것이다. 이 점은 훈민정음이 가진 매우 특별한 성격이다. 세계의 어떤 문자도 문자 자체에 훈민정음과 같이 태생적으로 창제 목적 및 창제 원리와 관련하여 사상적 보편 가치를 내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²⁾

일반적으로 보편적 가치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문화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민족이나 종족을 초월하여 인류 모두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뜻한다. 훈민정음은 과연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는 무엇이며, 이 보편적 가치가 함축한 의미는 무엇인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보편적 가치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미래 시대에는 이 보편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훈민정음이 지닌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의 역사적 연변(演變)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나아가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 가치가 미래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2. 훈민정음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필자는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다음 세 가지로 파악한다. 첫째는 민주성, 둘째는 과학성, 셋째는 철학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훈민정음의 민주성은, 세종의 어제 서문에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백성들의 편리한 언어생활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을 뜻한다. 과학성과 철학성은 해례본의 본문 그 중에서도 제자해에 가장 잘

2)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알파벳이나 중국 한자와 훈민정음을 비교해 보면 이 점을 쉬이 알 수 있다. 로마자와 한자는 제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니와 긴 시간의 누적 동안 많은 변화를 겪은 문자이다. 이런 역사성 때문에 한자와 로마자는 한글의 경우와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

설과되어 있다. 과학성은 음성학적 분석과 가획과 합성 등 체계적 방법으로 이 문자가 만들어진 특성을 뜻하며, 철학성은 삼재론과 음양론 등 성리학 이론을 배경으로 한 점을 가리킨다. 필자는 먼저 훈민정음에 내재된 세 가지 보편 가치의 본질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정립하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역사적 연변(演變)을 겪어 왔는지 밝히고자 한다.

2.1. 민주성의 본질과 역사적 전개

본고의 진행에 앞서서 훈민정음의 민주성이 가진 속성을 좀더 자세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 서문에 나와 있듯이 이 문자의 창제 목적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훈민정음은 태어날 때부터 백성을 위한 문자로 만들어졌다. 이 점을 필자는 훈민정음의 ‘태생적(胎生的) 민주성’이라 부르려고 한다. 태생적 민주성을 약간 달리 표현하면 ‘내재적(內在的) 민주성’이라 부를 수 있다.

훈민정음이 비록 태생적으로 민주성을 내재하고 있었지만 이 속성이 창제 후 조선사회에서 바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민(民)의 절대 다수가 이 문자를 제 것으로 활용하기까지는 매우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런 측면을 필자는 태생적 민주성이 역사적 실현되어 가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실현적 민주성’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민주성이라는 민주(民主)라는 말뜻 그대로 백성이 주인 되는 문자의 속성을 뜻한다. 이 민주성은 세종대왕이 지은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일반 백성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의 쓰임에 편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권두의 어제 서문)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양반 지식인층과 중인층은 한자와 한문, 그리고 그것

을 변용한 이두문을 통해 문자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양인(良人), 천민 등에게는 한자 학습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백성들은 문자사용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양반 지배층과 이서를 포함한 중인층은 한자와 한문, 이두문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자 사용 능력은 지배 특권층의 상징이자 권위의 표지가 되었다. 문자사용에서 배제된 사회 계층을 위해 세종은 양인 이하 하층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것이다.

세종이 베푼 대부분의 정책은 모두 당시 백성들의 삶[민생 民生]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 대마도 정벌, 육진 정벌과 주민 이주 정책 등은 국방을 튼튼히 하여 백성들의 안보를 도모한 정책이었다. 농업 서적과 의학 서적 간행, 자격루, 측우기 등 천문 기기 제작, 금속활자 주조, 세제 개편 등 세종이 베푼 굵직한 정책들은 민생의 안정, 백성들의 복지 증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역시 이런 민생을 위한 정책과 정치적 동기를 같이 한다.

세종이 이와 같은 민생 정책을 취한 정치적 배경에 대해 한우근·이태진(1984, 99-100)의 역사학적 해석은 경청할 만한 것이다. 다음에 두 분의 견해를 인용한다.³⁾

“훈민정음 창제는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정치 사상의 발전의 한 산물이기도 하였다. 창제의 동기로서 강조되는 ‘便民’ 의식은 14-15세기의 역사 발전의 한 표현이었다. 이 시기의 지배관계의 개선은 흔히 신유학의 민본 사상으로 윤색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피지배층의 부당한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배 신분층의 정치 의식의 발전적 변모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훈민정음은 그러한 달라진 정치적 관계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마련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요컨대 훈민정음은 15세기의 한국의 역사가 지니는 발전적 조선 아래 아시아의 문화와 학문을 수렴한 역량으로 이루어진 한 結晶이었다. 편민과 교화, 그것은 훈민정음 창제의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이런 목적들은 실상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뒤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점진적으로 달성되지만, 창제 당시에 거론된 목적이 이러한 데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의식의 중요한 면모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고려 말기 이래 지방 중소지주층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하면서 정치의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중소 지주층은 생활의 기반을 지방 사회에 직접 가짐

3) 한우근 이태진 편저,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조선전기편』, 일지사, 1984년, 99-100.

으로써, 이전의 대귀족적, 대지주적 지배층에 비해 일반 피지배층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았다. 그리고 일반 피지배층도 12세기 말엽에 이미 구 지배체제의 가혹성에 대한 저항의 경험을 가졌을 뿐더러, 그 이후로도 거듭되는 外難 속에서 一線에 나아가 싸운 공적이 컸다. 따라서 새 왕조의 새로운 지배체제의 확립에서 그들의 입장은 결코 일반적으로 무시될 수 없었다. 지배 피지배의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대체로 신유학의 ‘민본’ 사상으로 수렴되지만,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로서의 편민과 교화는 그것이 보다 구체화된 면모였다. 세종 스스로 훈민정음의 창제에 앞장 선 것은 그러한 정치 의식이 누구보다도 투철했기 때문이었다.”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조선 초기의 정치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서 훈민정음이 탄생된 것이라는 역사적 해석을 찾을 수 있다. 고려말과 조선초기를 거치면서 민(피지배층)의 정치 의식이 성장되었으며, 이것이 민본사상으로 수렴되었고, 민본사상의 정책적 실현으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에 공감할 수 있는 바가 적지 않으나, 세종 개인이 지닌 정치적 의지와 언어와 문자에 대한 학문적 역량이 훈민정음 창제에 작용한 중요한 인자였음이 경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의 정치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세종의 정책 의지와 문자 창제를 가능케 한 학문적 역량을 소홀히 간주할 우려가 있다.

한편 어제 서문에 나타난 편민(便民) 의식은, 정인지의 서문에서 훈민정음을 사용하면 백성의 송사(訟事)를 다스릴 때 그 사정을 잘 알 수 있다는⁴⁾ 구체적 정책 논의로 표출된 것이라 하였으며, 이 편민 의식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라고 했다(한우근, 이태진 1984:99). 그러나 최만리 반대 상소문에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만일 ‘형살(刑殺)에 대한 옥사(獄辭 조서나 판결문)를 이두문자로 쓴다면 문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 글자의 착오로 간혹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한다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두 다 쉽게 이해해서 억울함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다면 이는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옛날부터 말과 글이 같았는데도 송사하는 사이에 억울한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에 갇혀 있는

4) 정인지가 쓴 서문에는 “以是聽訟 可以得其情”(이것으로 소송을 다스리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죄수로서 이두를 해득하는 자가 직접 초사(招辭)를 읽고, 그것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비록 언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형옥(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이 옥리(獄吏)가 어떠한에 달려 있지 말과 글이 같고 같지 않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문으로써 옥사(獄辭)를 공평하게 하려 한다면 신 등은 이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⁵⁾

최만리의 이 주장은 민생의 편의를 위한 훈민정음 창제 목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만리는 중국의 경우를 반박 논거로 삼았다.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의 억울함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옥사의 공평함은 판관의 자질에 달려 있지 말과 글의 같고 다름에 있지 않다고 최만리는 주장했다. 옥사에 휘말려 든 백성이 본인에 관한 형옥 문서를 읽을 수 없다면 아무래도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 말로 하면, 피고가 경찰관의 수사 조서나 검사의 기소문,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읽을 수 없다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만리의 주장은 검사나 판사의 자질이 더 중요한 것이고, 백성이 글을 읽고 못 읽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최만리의 반박은 얼핏 보면 그럴듯한 논리로 느껴진다. 최만리를 꾸짖은 세종의 답변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보이지 않는다. 세종도 잠시 응수할 만한 말이 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최만리의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말과 문자의 같고 다름만 강조하면서 최만리는 한자가 중국의 인민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자였음을 간과하였다. 이에 비해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배우기 매우 쉬운 문자여서 중국 한자의 경우와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최만리의 결정적 한계는 백성에 대한 재판권을 판관 개인의 자질 여부로 돌린 것이다. 재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가며이 생각하고, 판관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점은 경세가(經世家)의 판단이라 하기 어렵다.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최만리는 간과하였다. 백성에 대한 재판을 판관의 개인적 자질에 맡겨 두어서 지배층의 힘만 키워 주었고, 이것이 관리들의 농간과 부정부패로 이어졌음은 조선 후기의 역사가 이미 증명해 주었다. 결국 조선의 왕과 관료

5) 한우근 이태진(1984:104-105)에서 인용함. 원문의 한자 표기는 한글로 바꾸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넣음.

등 지배층은 한글을 형옥 등의 관문서에서 배제하고 이두문 내지 한문만 즐기게 사용함으로써 특권을 유지했고, 반대로 백성들의 삶은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다. 훈민정음이 태생적 민주성을 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성이 조선 왕조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발현될 사회적 제도 혹은 정치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최만리는 언문으로 관리의 행정 업무를 다 해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면 수 십년 뒤에는 문자(=한문)을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능히 언문으로써 관리의 사무를 다루어 낸다 하더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면 학문이 없고 답에 맞대고 선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한갓 언문에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⁶⁾

이 말에는 언문으로써 행정 관리의 사무를 다루어 낼 수 있음을 언급되어 있다. 세종의 뜻대로 이서들의 문서 작성에 있어서 이두를 한글로 바꾸었다더라면 조선 사회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권위와 학술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한자와 한문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에서 당시의 지배층은 한자에 기반한 이두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두문을 계속 쓰는 것이 이서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한 것이었다. 양반 지배층의 한문 숭배와 행정 실무를 맡은 하급 지배 계층인 이서층의 이해 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관문서 작성에서 언문은 배제되었다. 관문서에서의 이두 사용은 조선 조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양반 지배층과 이서층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문과 이두문 사용 능력은 지배 권력의 상징이었고 특권층의 신분을 과시하는 징표였다. 오늘날까지도 민법과 형법 관련 법률 조문이나 법원의 판결문 등에 난해한 한자 투성이 용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에는 이처럼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권층의 계급적 이익을 수호하려면 공적 문서에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법전에서 관문서의 한글 사용 금지 조항은 애초에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치는 것이었다. 『수교집록』(受敎輯錄)⁷⁾ 호전 징채(戶典 徵債) 조

6) 如此則數十年之後，知文字者必少。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不知聖賢之文字，則不學墻面，昧於事理之是非，徒工於諺文，將何用哉。

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出債成文 必具證筆者聽理 諺文及無證筆者 勿許聽理 [康熙乙卯承傳]
- 대출 문서에 반드시 증필(證筆)⁸⁾을 갖춘 경우에만 소송을 들어 주고, 언문으로 쓰여져 있거나 증필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들어주지 않는다. [1675년(숙종 1, 강희 을묘)에 받은 전교]⁹⁾

이 조항은 『수교집록』을 흡수한 『속대전』에도 수록되었다.¹⁰⁾ 채무 관련 소송 문서에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소송 접수를 한다는 것이다. 문서에 작성자와 증인의 수결이 있어야 하고, 그 문서는 언문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 채무 관련 송사에서 한글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위 법조항은 문면 그대로 보면 채무 관련 송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숙종 이전부터 이미 공적 문서에서 언문 사용은 제한되어 왔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중종 4년에 중실의 딸인 철비(鐵非)가 언문으로 상언(上言)하였는데 이를 의금부에 내려 조사케 했다. 정원이 아뢰기를 “철비는 언문으로 상언을 올려 지극히 무례하고, 또한 그 소원도 들어 줄 수 없는 것이니,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¹¹⁾ 철비가 언문으로 청원한 것을 무례하다고 기록한 것은 관문서를 언문으로 쓰는 것이 인정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와 다른 사례도 있다. 숙종 23년에 곽제송(郭齊嵩)이란 자가 대궐 문에 함

7) 『수교집록』은 숙종 24년(1698)에 편찬되어 숙종 32년(1706)에 간행된 『전록통고』(典錄通考)(편찬 책임자 최석정)에 수록되었다. 조선은 건국 후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법제를 확립하였으나 그 후 여기에 없는 새로운 교지, 조례가 많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경국대전을 보완하기 위해 성종대에 『대전속록』(大典續錄), 중종대에 『후속록』(後續錄)을 편찬하였고, 숙종대에 『후속록』 편찬 이후의 150여년 동안의 수교(受敎)와 조례(條例) 등을 모아서 1698년에 『수교집록』(受敎輯錄)을 편찬했다. 경국대전 이후에 편찬된 이 세 법전을 묶어서 1706년에 『전록통고』(典錄通考)를 간행한 것이다. (규장각 해제 참고)

8) 증필(證筆): 문서 작성에서 증인과 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말하며, 양자의 수결이 있어야 한다.

9) 『受敎輯錄』, 한국역사연구회 번역본(2001:101) 참고.

10) 대전회통 권2 戶典 徵債 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私債의 證書를 諺文으로 썼거나 또는 證人 및 筆者의 署名이 없으면 廳訟하지 않는다. (私債成文, 諺文及無證·筆者勿聽). 대전회통은 高宗 二年(1865년)에 편찬된 법전이다.

11) 중종 04/09/11.

부로 들어왔다가 병조(兵曹)에 잡혔는데, 스스로 상변(上變)할 일이 있다고 말하므로, 임금이 형방 승지(刑房承旨)를 시켜서 그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물어서 적어 올리게 하였다. 광제승이 언문 글씨로 두 장을 써서 올렸는데 말이 사리에 맞지 않았다.¹²⁾ 이 기록은 형방에서 죄인을 다스릴 때 죄인이 언문서를 수용하기도 했음을 보여 준다. 이때의 글은 정식 관문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이 임시방편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옳다.

명종 22년에 대비가 이준경에게 언문 교지를 내렸는데 사신(史臣)이 이 글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실록에 기록했다.¹³⁾ 숙종 15년에는 임금이 언문(諺文)으로 된 유지(有旨)를¹⁴⁾ 승정원에 내려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일기(日記)》에 추록(追錄)하게 하였다. 이에 도승지(都承旨) 유명견(柳命堅)이 아뢰기를, “언문 유지를 승정원에 내린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뒷날 폐단이 있게 됩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드디어 언문 유지를 삭제하라고 명하였다.¹⁵⁾ 숙종 대의 이 기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왕이 임금의 명령서인 유지를 언문으로 써서 승정원에 내린 것은 평소에 없었던 일이다. 그리하여 도승지 유명견이 언문 유지의 부당함을 아뢰었고, 이에 한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한 것마저 일기에서 삭제토록 했다. 왕의 언문 유지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승정원일기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문 유지를 내린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다. 실록의 이 기사는 국가의 공적 기록에 한문을 써야 한다는 당시 지배층의 관념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국가의 정책이나 왕실의 문제 등에 대해 중전이나 대비가 정부에 내린 언문서(諺文書)는 모두 한문으로 번역하여 공포하거나 실록에 실었다. 연산군 1년 1월 2일 기사에 대비가 성종의 효성을 칭송한 언문서를 지어 성종의 행장(行狀) 수찬(修撰) 자료로 내렸다. 신하들이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실록에 실었다. 명종 22년 3월 12일에 대비가 영의정 이준경 등에게 언문서를 내리자 사신이 이를 한문으로 기록하였다. 인조 1년 7월 4일에는 중전이 대행왕의 유교를 언문으로 써서 승정원에 내리니 승지와 사관 등이 둘러 앉아 펴서 읽고 다 통곡하였다. 이 글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별지에 써서 조정에 공포하였다. 중전이 여성이니까 언문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언문서를 공적 문서로 받

12) 숙종 23/09/23.

13) 명종 22/03/12.

14) ‘유지’란 승정원의 승지를 통해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로 교지(教旨) 혹은 전지(傳旨)라 부르기도 한다.

15) 숙종 15/04/24.

표하거나 기록할 때는 반드시 한문으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실록에 등장하는 증전이나 대비의 언문 기사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다.¹⁶⁾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양반 지배층은 공용(公用)의 기록 문자로 언문을 사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의 관리들이 왕의 언행과 국가 공사(公事)의 기록에 한글을 철저히 배제했지만 예외적인 시도도 있었다. 중종이 왕위에 있을 때, 경연을 하던 도중 조정의 중신들은 임금에게 여사(女史, 여자 사관)을 두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왕이 왕비나 비빈을 만나는 사적 공간에 여자 사관이 따르게 하여 왕의 언행을 기록하자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¹⁷⁾

조강에서 《속강목(續綱目)》을 강하다가 동지사(同知事)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여기에 태후(太后)와 신종(神宗)이 말한 일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이는 규문(閨門) 안의 말이라 사관(史官)으로서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여사(女史)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여사는 규문 안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모두 다 기록하므로 외인(外人)이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사책(史策)에 기록하여 농음으로써 뒷사람이 그것을 보고 선악(善惡)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문 안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은 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규문 안 임석(衽席)에서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어떻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고제(古制)에 따라 여사를 두어 그로 하여금 동정(動靜)과 언위(言爲)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장령(掌令) 기준(奇遵)은 아뢰기를,

“안국의 말이 합당합니다. 임금은 깊은 궁궐 속에 거처하므로 그 하는 일을 바깥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사를 두어 그 선악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깊숙한 궁궐 속의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일지라도 감히 방과(放過)하지 못했던 것이니, 모름지기 고제에 따라 여사를 두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여자(女子)들이 모두 글을 지을 줄 알았으므로 올바른 여사를 얻어서 궁궐(宮壺)의 일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글에 능한 여자가 아마도 적은 것 같으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16) 실록 기사에 대비나 왕비가 언문서를 내리면서, “나는 문자(=한문)를 모르는 사람이라...” 언문서를 작성한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도 자랄 때 집 안에서 웬만한 한문 공부를 했다. ‘달통’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한문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한문을 몰라서 어문으로 썼다고 말하는 것이 여성의 도리로 인식했던 당시의 실정이었다.

17) 중종 14년(1519년) 4월 22일 첫 번째 기사.

하매, 안국이 아뢰기를,

“여사는 반드시 글에 능해야만 될 수 있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자를 조금 해득할 수 있다면 규문의 일을 보는 대로 기록하여, 후왕(後王)과 후현(後賢)으로 하여금 선왕(先王)은 규문 안 혼자 있는 곳에서도 잘못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면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권징(勸懲)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밖에서는 좌우에 시종(侍從)·사관(史官)이 갖추어 있으면서 안에는 여사(女史)가 없으니, 치도(治道)의 큰 흠절(欠節)입니다. 규문 안 임석(祗席)에서의 일에 대하여 후세의 자손들이 어찌하였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이청(李清)은 아뢰기를,

“세속의 이른바 언문(諺文)으로 기록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찌 문자(文字)로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사의 직임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니, 반드시 마음이 올바른 여자를 얻는 뒤에야 가하다. 뿐만 아니라 사관(史官)도 모름지기 정직(正直)한 사람을 가려야 한다. 사필(史筆)을 잡는 것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매, 이청이 아뢰기를,

“사관은 여사와 다릅니다. 사관은 공의(公議)를 유지(維持), 포폄(褒貶)을 명백하게 하여 만세(萬世)에 보이는 것이 직무이고, 여사는 규중 안에서의 임금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동지사(同知事) 김안국(金安國)이 중국 명나라 신종의 예를 들어 명에서는 황제의 사적 일상생활을 자세히 기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자 사관이 없어서 규문 안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어서 후세인이 선악을 참고할 수 없음이 문제라고 말하였다. 장령(掌令) 기준(奇遵)이 김안국의 말을 지원하여 고제(古制)에 따라 우리도 여자 사관을 두자고 했다. 이에 대해 중종은 글에 능한 여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피해 갔다. 김안국이 다시 여자 사관은 글에 능할 필요가 없고 문자(=한문)를 조금만 알면 가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강관(侍講官) 이청(李清)이 아뢰기를, 여자 사관이니 언문으로 기록해도 무방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중종은 여자 사관의 직임이 선악을 구별하여 잘 기록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니 마음이 올바른 여자를 찾는 뒤에야 이 일이 가하다고 다시 평계를 대고 있다. 중종은 왕의 사생활까지 간섭받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이에 한문 잘하는 여자를 찾기 어렵다고 둘러댔다가, 신하들이 언문으로 기록해도 된다 하니 중종은 다시 마음이 바른 여자를 찾는 뒤에야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로써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¹⁸⁾

조정 관료들이 역사 기록은 철저히 한문으로 했으나 여자 사관의 기록은 언문으로 해도 된다고 말한 점도 주목된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당시 관료들이 한글로 역사를 기록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여자 사관으로 하여금 언문으로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다시 한문으로 번역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일은 중종의 기피로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왕과 신하 간에 여자 사관의 기록 문자에 대한 대화를 통해 문자 사용을 성별로 차별하려던 이들의 문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언문에 대한 이런 통념과 역사적 배경이 결국에는 숙종대의 『수교집록』(受敎輯錄) 호전 징채(戶典 徵債) 조항에 나오는 채무 관련 소송에서 언문 문서 금지라는 법률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문이 국가의 공용(公用) 문자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은 『경국대전』이다. 이 법전은 성종 2년에서 16년 사이(1471-1485)에 수보(修補)되었는데, 여기에 『삼강행실도』의 언해와 반포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김슬옹 2005:63).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언문(諺文)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士族)의 가장(家長)·부로(父老) 혹은 교수(敎授)·훈도(訓導) 등으로 하여금 부녀자·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만약 대의(大義)에 능통하고 몸가짐과 행실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漢城府)가, 지방은 관찰사(觀察使)가 왕에게 보고하여 상(賞)을 준다. <경국대전 권3 예전(禮典) 장권(獎勸)>

『이륜행실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지만 『삼강행실도』의 언해 및 보급을 국가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에 명기한 것이다. 『삼강행실도』에만 언해본 간행 규정을 둔 것은 조선 왕조가 삼강[忠孝烈]의 이념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언문으로 번역케 한 것은 훈민정음을 통치 목적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활용한 명시적 사례이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삼강행실의 교육 대상이 ‘부녀자와 어린이’로 밝히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녀자와 어린이’는 사족층은 물론 그 이하 신분의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하였을 것이다. 경국대전의 이 규정은 그후 『삼강행실도』가 지속적으로 간행된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이어서 간행되는 『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등 행실도류는 물론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경민편언해』 등은 모두 백성

18) 동지사 김안국, 장령 기준, 시강관 이청 세 사람이 나서서 임금을 압박하는 형국에서 중종은 영민하게 대처하여 궁지를 모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류의 책에는 반드시 한글을 활용했던 것이니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교화 정책에 한글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공적 정책에서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또 하나의 경우는 왕이 백성을 대상으로 나라의 정책을 알리거나 백성을 위무하기 위해 내린 언문 교서 혹은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진휼(賑恤), 위무(慰撫), 계주(戒酒), 척사(斥邪), 양로(養老), 권농(勸農) 등이다. 특히 심한 흉년이나 전염병 등으로 재해가 극심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졌을 때 민습 수습을 위해 반포한 것이 여러 개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 현전하는 윤음언해(=언해문이 있는 윤음)는 선조 대의 한글 교서를 포함하면 모두 31건이다.¹⁹⁾ 이 수치는 『자훈전칙』과 『명의록언해』에 실린 ‘御製綸音’, 『천의소감언해』에 수록된 ‘눈음’도 포함시킨 것이다.

윤음의 반포는 왕이 백성과 소통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책 수단이었다. 본고의 관점에서 보면, 윤음 반포는 훈민정음이 지닌 민주성을 정치적 교화라는 유교적 틀 속에서 일정하게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음이 통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성을 구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의하달(上意下達)의 수직적 성격을 띤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진정한 민주성은 하의상달(下意上達)을 갖출 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는 있지만 윤음 반포는 왕조 체제 하에서 그나마 왕이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한 민주적 성격을 띤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윤음은 훈민정음이 지닌 민주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구현한 매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마땅한 것이라 하겠다.

조선 시대의 관아에서 윤음이 아닌 왕의 명령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체계도 있었다. 이에 대한 김봉좌(2013)의 연구는 한글의 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왕이 조회(朝會), 경연(經筵) 등 공식 석상에서 내린 구전하교(口傳下敎)나 승정원의 승지를 거치는 유지(有旨)에 의한 명령을 중앙 관청에서 관할 부서나 각 지방 관청에 지시 또는 협조 문서를 통해 한글로 번역하여 널리 알리도록 명하고, 상위 기관의 명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 군(郡) 단위의 지방 관청에서 면(面) 혹은 동(洞) 단위의 백성들에게 발급하였다. 왕의 명령을 곧바로 중앙 관청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유포하지 않고, 왕의 명령과 함께 한글로 번역하라는 지시만 내려 지방 관청에서 자율적으로 한글 번역문을 작성하여 게시했다는 것이다. 김봉좌(2013)는 한글의 보급 확산이 명령 문서의 대민(對民) 유포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았다. 지방 관아에서 왕의 명령 문서

19) 조선시대 인민 통치에 사용한 윤음의 목록과 이에 대한 분석은 백두현(2009)를 참고.

를 한글로 번역하여 지방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문이나 저자거리에 게시했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을 활용한 이러한 행정 조치는 한글이 지닌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훈민정음은 한문과 달리 일부의 평민들에게도 향유된 문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치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 기록은 계속 한문으로 이루어졌고, 관청에서 공무로 작성하는 문서의 대부분이 한문으로 쓰였다. 한글로 작성한 문서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용 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한 법률 규정은 한글 사용을 개인적·사적 차원에 국한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한글 문서는 대부분 19세기의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 한글 문서 작성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듯하다.

19세기에는 한글 사용 인구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판단은 18세기 말기 이후부터 19세기에 걸쳐 한글 소설[古談]이 방각본으로 다수 간행되면서 널리 읽혔다는 사실, 그리고 한글 편지를 쓰는 방법을 설명한 『언간독』이 19세기에 경향의 여러 곳에서 방각본으로 간행된 사실, 남아 있는 한글 편지 자료 등에 근거를 둔 것이다.

19세기에 한글 사용 인구가 확대되고 개화기 이후 독립 국가로서의 민족의식이 싹트게 되면서 한글을 ‘국문’(國文)으로 여기는 주체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갑오개혁은 ‘언문’이 ‘국문’으로 승격되면서 그 위상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894년의 갑오개혁에 이르러 국가 제도의 전반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 때 정부의 각종 공문서 기록을 한글 위주로 한다는 법령이 정해졌다. 한글이 한문을 대신하여 나랏글 즉 국문(國文)이 되었던 것이다.²⁰⁾ 고종이 내린 다음 두 칙령이 한글의 법적 위상을 국문으로 격상시킨 제도적 장치이다.

勅令 第一號 朕裁可公文式制 使之頒布 從前公文頒布例規. (…중략…)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칙령 제1호에서는 “내가 결재한 공문 규정을 공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공포 규정은 오늘부터 폐지하며 承宣院 公事廳도 전부 없앨 것이다.”라 하였다. 제14조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 쓴다. (고종 31년(1894) 11월 21일)

20) 국문(國文)을 좀더 정밀히 말한다면 ①문자로서의 한글과 ②한글로 쓴 문장을 동시에 포괄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개화기 및 20세기 초기에 작성된 법률이나 각종 문장에는 한자어가 압도적이어서 ②를 만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勅令 第八十六號 公文式 裁可頒布. (…중략…) 第九條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 써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國漢文을 混用함. ○칙령 제89호 공문식을 재가반포하다. 제1장 반포식 제9조. 법률과 명령은 다 국문으로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덧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혼용토록 함. (고종 32년 5월 8일)

칙령 제1호의 제14조에서 국가의 모든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라는 법이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칙령 제86호 공문식의 제9조에서 법률과 명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고종이 내린 이 두 칙령은 한글의 역사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1446년의 훈민정음 반포 이후 1894년에 이르러서야 한글의 민주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언문은 1446년 반포 이후 수백 년을 어린이와 여성 교육, 규방 가사나 한글 음식조리서 등의 생활의 실용적 필요에 따라 부차적 지위에 놓여 있었다.²¹⁾ 생활상의 실용적 필요에 의해 언문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생(自生)해 왔던 것이다. 이런 처지의 한글 ‘언문’이 1894년에 이르러 비로소 ‘국문’으로 제 자리를 잡은 것이다.²²⁾ 한글은 448년 동안이나 국가의 기록 문자가 되지 못하고 언문이라 불리면서 주로 개인적·사적 차원의 문자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한글이 지닌 민주성의 구현은 1894년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갑오개혁에 따른 국문 칙령은 문자생활의 민주화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위의 두 칙령은 한글 창제 이후의 가장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²³⁾ 이 제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20세기에 일어난 온갖

21) 사대부 지식인들은 언문을 한자음 표기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삼운통고』 등의 운서를 편찬한 점도 고려될 수 있다.

22) 송호근(2011:39, 41-43)은 이것을 ‘언문 담론’이 ‘국문 담론’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하고, 국문 담론은 조선의 인민들을 근대로 날라 준 비행체라고 했다. 송교수는 언문 담론을 통해 산발적으로나 ‘언문 문헌 공동체’가 형성되어 갔고, 이를 통해 정치, 종교, 문예의 제 측면에 그 영향을 고찰하였다. 동학을 계기로 언문 담론이 평민 공론장을 발전하여 한문을 통한 양반 담론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언문을 통한 역사적 추동력이 조선 인민을 근대적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송교수의 이러한 해석은 한글에 내재된 태생적 민주성의 구체적 실현 과정에 주목하는 필자의 관점에 유익한 점이 있다..

23) 국문을 기본으로 하는 고종의 이 칙령은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의 일본은 중국 청나라에서 조선을 떼어내기 위해 독립협회를 지원하는 등 조선의 독립을 도왔다. 대한제국을 세우거나 한문을 버리

정치, 경제, 학술,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수용하여 기록하고 교육하며, 창조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자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민족이 20세기에 경험한 모든 변화와 혁신을 포용하여 새로운 역사 창조를 가능케 한 그릇이 바로 한글인 것이다.

한글 사용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본 문자생활의 민주화에 기여한 주요 문자매체는 다음과 같다.²⁴⁾

① 실용의 생활문: 언간. 언간은 개인의 실생활에서 한글로 직접 문장을 작성 하였던 표현 매체로 한글의 보급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판단은 현전하는 언간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백두현 2005).

② 문학서: 한글고소설과 내방가사. 한글로 표기된 문학작품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사랑을 받았던 것이 한글 고담 즉 한글소설들이다. 한글 소설의 간본과 이를 필사한 자료가 매우 널리 유포되었던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한글 소설은 일찍부터 한글 전용을 실천한 대표적 존재이다.

③ 종교서: 불교서와 기독교서 등. 『석보상절』, 『월인석보』, 간경도감판 불교서 언해 등의 한글 불교서는 한글 창제 초기부터 한글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각 지역에서 꾸준히 간행된 『부모은중경 언해』와 18세기 이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간행된 『염불보권문』 등 한글 포교서가 한글의 대중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19세기 후기의 한글 성경 등 기독교서도 한글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④ 신문: 「독립신문」 등 한글 신문. 대중매체로 개화기 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독립신문」은 처음부터 한글을 전용하여 한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8년에 창간되 「한겨레신문」도 창간호부터 한글 전용을 하여 이런 정신을 이어갔다.

⑤ 신교육 교과서: 국민 교육을 위해 편찬된 한글 교과서. 개화기 초기 학부에서 간행된 교과서는 조선어와 조선 역사 교재를 중심으로 간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한문투에 한글 토씨를 겨우 넣은 정도였다. 국문 교육이 국가의 제도적 교육에 자리잡게 된 때는 1895년부터이다. ‘學部告示第四號’가 발령됨으로써 한글 교육은 법률적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²⁵⁾

고 국문을 공문서 작성 문자로 채택한 정책 등은 청나라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이 정책은 조선 합병을 꿈꾸는 일본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24) 이 내용은 백두현(2007)의 것을 일부 가져온 것이다.

25) 學部告示第四號 : (...중략...) 學徒 八歲以上으로 十五歲까지 增集호야 其科程은 五倫行實로부터 小學과 本國歷史와 地誌와 國文과 算術其他外國歷史와 地誌等 時宜에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성의 실현(=문자생활의 민주화)은 1894년 이후에 계속 진행되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갔다. 개화기는 물론 20세기 초기에 간행된 각종 간행물들은 한문 서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매우 많았다. 지나친 한자 사용으로 국문은 토씨의 표기에 사용되었다고 할 정도로 국한문 혼용이 심했다.²⁶⁾ 이런 상태의 한글 사용을 두고 문자생활의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대다수의 한국인이 한글 문해자(한글 독해 능력을 가진 사람, 비문맹자)가 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통의 한국인 대부분이 한글 해득(解得) 능력을 갖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 된 것이 아니다. 1945년 일본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당시, 비문해자는 국내 12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약 78%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⁷⁾ 1930년 10월 국세조사 결과에서 6세 이상 조선인의 비문해율(문맹률)이 77.7%로 발표된 바 있고, 1943년 12월 조선총독부자료에서는 조선인의 일본어 미해독자가 77.8%로 되어 있다.²⁸⁾ 1930년대의 조선인 비문해율 77.7%는 사실상 문맹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로 볼 때 1930년대에 문자(한글과 한문)를 해득하는 조선인의 비율은 22.3%가 된다. 조선인 10명 중 2명 정도가 한글을 해득했다는 것이 된다. 사실 이 수치는 잘 믿기지 않는 점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글 강습소를 통한 한글 교육이 전국적으로 베풀어지는 등 문맹퇴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기석(2001)은 1930년대의 이 수치는 1945년 전후 한글 문맹자의 비율이 아니라 식민지 교육기관에 접근하지 못한 성인 인구의 비율이었다고 주장하였다.(이희수 2002:40 각주 2번 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한글 교육은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미군정청은 문교부에 성인교육계를 설치하고, 1945년 12월에 성인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문해교육 사업(국문보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인교

適用한 書冊을 一切教授하야 (...하략...) ○학생은 8살부터 15살까지 더 모집하고 그 과정은 오륜행실로부터 소학과 우리 나라 역사와 지리, 국문, 산술 그 외에 외국 역사와 지리 등 시의에 적용되는 책을 일체 가르쳐서.... (고종 32년 9월 28일)

26) 대표적인 글이 독립선언서이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와 같은 문장을 국문이라 부르기는 난처한 감이 든다.

27) 이 수치는 최재만, “문맹퇴치에 관하여”, 문교월보 149호(1959.11)에 나오는 것이나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이희수 2002:40)

28) 이 수치는 이희수(2002:40)에서 인용하였다.

육계의 주 목적은 문맹율을 낮추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인교육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여기서 양성된 인력을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이 시기에 한글 해득층의 확산을 위해 국문강습소 설치, 성인교육사 양성, 성인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공민학교 운영 등의 교육 사업을 시행하였다. 국문강습소는 1947년 5월에 보통 선거가 거론되면서 선거를 대비하여 국민 전체가 한글 배우기를 의무화하는 한글개학촉진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로 문맹률은 1945년의 78%에서 1948년의 41% 선으로 감소된 것으로 추산되었다(문교부, 1959).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한글 보급은 1954년부터 1958년까지 5차에 걸친 문맹 퇴치 사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²⁹⁾

연도별 국문보급 현황

연도별	총인구수	국문해득자	문맹자	문맹률	비고
1945	10,253,138	2,272,236	7,980,922	77.8	해방당시
1948	13,087,405	7,676,325	5,411,080	41.3	정부수립당시
1953	12,269,739	9,124,480	3,145,259	25.6	
1954	12,269,739	10,560,719	1,709,020	13.9	제1차
1955	12,219,739	10,745,695	1,524,041	12.5	제2차
1956	13,911,678	12,492,713	1,419,205	10.2	제3차
1957	13,713,875	12,568,590	1,145,293	8.3	제4차
1958	13,713,873	13,150,891	562,982	4.1	제5차

자료 : 최제만(1959), “문맹퇴치교육에 관하여”, 문교부, 문교월보 제 49호, 55.

그런데 위 표에서 1958년의 문맹률이 4.1%라는 수치는 신뢰하기 어렵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문맹퇴치 교육에 착수했다. 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4년을 “문맹 없는 마을”을 만드는 해로 정하고, 1962년에는 60만 명을 교육하였고, 1963년에는 30만 명을 교육하였다(대한교육연합회, 1964 :206). 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4년 8월에 재건국민운동본부는 해체되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문해교육 사업은 3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전국의 자연 부락 단위의 교육장소를 가지고 한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맹자 조사도 실시하였다. 1961년과 1962

29) 이 내용과 아래의 표는 이희수(2002:42-45)를 인용한 것이다.

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집계한 문맹자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7> 12세 이상 문맹자 수(재건국민운동본부)

연도	남자	여자	계	비문해자(%)
1961	370,664	1,139,334	1,509,998	8.1
1962	344,394	1,249,735	1,594,129	9.5

자료 : 대한교육연합회(1964), 교육연감,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99.

위의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1961년과 1962년의 8.1%와 9.5%는 1959년 문교부 통계자료 4.1%와 대조된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수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통계의 문맹률이 높은 것은 국민학교 졸업 후 또는 한글 교육 이후에 계속적인 후속 교육이나 성인 기초 교육과의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윤복남, 1990:132). 일시적인 한글 교육 이후에 후속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1958년의 4.1%가 1962년에는 9.5%로 높아졌다는 뜻이 된다. 필자로서는 이 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통계 처리의 미숙 등에서 비롯된 연도별 오차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필자는 잠정적으로 1962년도의 문맹률 수치 9.5%를 받아들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962년까지만 해도 남한 인구의 10% 정도가 한글을 몰랐다는 것이 된다. 10%의 미해득층이 있기는 하지만 1960년 즈음에 한글은 국민의 문자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글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 즉 민주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시기는 1960년대라 할 수 있다. 1446년의 한글 창제와 1960년을 비교해 보면 514년이 지나서야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취된 것이 된다. 한글에 내재된 보편 가치인 민주성이 실현되는 데 무려 514년의 긴 세월이 걸린 것이다.

한글에 대한 한문(漢文)의 우위가 1894년 고종의 칙령을 계기로 역전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한자(漢字)는 한글 문장 속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다. 이른바 국한 혼용(國漢混用)이라 한글 문장 속에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이 공문, 판결문, 학술문, 신문 기사 등에서 1990년대까지 계속 되었다. 신문의 국한 혼용은 한겨레신문 창간(1988.5.15.)을 계기로 점점 약화되어 요즘에는 거의 모든 신문에서 한자가 퇴출되고 한글 전용이 대세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후반 이후부터 대중 매체의 전형인 신문에서 한자는 거의 사라졌다. 대중

독서 매체에서 한자가 사라진 1990년대는 한글 전용을 기준으로 볼 때 문자생활의 민주화가 완성된 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의 위세가 사그라진 대신에 영문(英文) 혹은 영문자(英文字)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최근 젊은이의 입에서는 감탄사로 ‘오마이갓’이 저절로 나오고, 젊은층이 즐기는 대중가요의 가사에는 영문이 통째로 들어와 국문 가사와 뒤범벅이 되어 있다. 한문 자리에 영문이 물밀듯이 들어와 버렸다. 거리의 간판과 온갖 상품 이름, 은행 이름, 기업 이름이 영문자로 바뀌어 있다. 탈북자나 이주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한국어에 뒤섞여 쓰이는 영어와 영문 표기라고 한다.

조선 시대 한문 능력자가 사회적 특권을 가진 집단이었던듯이 오늘날 영문 능력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영어를 잘하면 소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양상이 조선 시대 양반이 한문 능력을 갖고 지배 권력층이 된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보아 민주성이란 한글의 보편적 가치가 자리잡은 지 50여년 만에 한글은 새로운 도전 속에 놓인 셈이다.

2.2. 과학성의 본질과 현대적 활용

한글이 지닌 두 번째의 보편적 가치는 과학성이다. 한글의 자음 글자(=초성)은 창제 당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 다섯 개를 발음기관의 작용 모습과 발음기관을 본따 만들었고, 이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가획의 근거도 소리의 세기라는 음성과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글의 모음 글자(=중성)은 혀의 움츠림(舌縮)의 정도를 삼등분하여 기본자 세 개를 배정하고, 이 기본자를 합성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음성학적 분석과 가획 및 합성이라는 체계적 제자 방법은 한글의 과학성을 말하는 근거가 되었다.

말소리는 발음기관에서 생성되므로 음성학적 관찰에 의거하여 문자를 만든 것은 매우 과학적이다. 발음기관의 작용을 본따 만든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한글은 과학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과학성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띤 것이다. 현대 지구인의 삶은 과학적 탐구와 그 성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류의 진보는 합리

성을 본질로 하는 과학을 지향해 발전해 왔다. 이런 점에서 과학성은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다. 한글이 현대의 보편적 가치인 과학성을 내포하고 있고, 과학성이라는 한글의 본질적 바탕은 현대 사회의 주류인 과학적 세계관에 잘 부합된다.

훈민정음은 창제 때부터 과학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과학성도 창제 원리로서 내재된 태생적 과학성과 이 과학성이 현실 속에서 변용·실현되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를 태생적 과학성 혹은 내재적 과학성, 후자를 실현적 과학성으로 부르기로 한다. 훈민정음의 태생적 과학성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지닌 과학성의 첫 번째 근거는 초성 기본자와 중성 기본자가 발음기관에 대한 음성학적 관찰에 입각하여 만들었다는 점이다. 먼저 초성의 음성 과학적 제자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아음 ㄱ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³⁰⁾
- 설음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순음 ㅁ은 입 모양을 본뜬 것이다.
- 치음 ㅅ은 이 모양을 본뜬 것이다.
- 후음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

초성 기본자의 제자(制字) 원리는 발음기관의 조음동작과 발음기관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에 입각한 것이다. 아음과 설음의 기본자는 음성기관이 움직이는 동작을 글꼴로 형상화 했고, 순음, 치음, 후음은 발음기관의 형상을 글꼴에 반영하였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을 ‘발음기관 상형의 원리’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훈민정음 초성의 음성 과학적 특성이 되었다. 필자는 이 점을 훈민정음 초성이 태생적으로 지닌 보편 가치 즉 과학성이라 부른다.

중성 기본자의 제자 역시 초성자와 마찬가지로 발음기관의 조음 음성학적 관찰에 입각하였으며, 청음 음성학적 관찰도 병행하였다. 다음은 중성 기본자의 제자에 기술된 음성 과학적 내용이다.³¹⁾

·는 혀가 움츠러들고 소리가 깊다. (· 舌縮而聲深)

30) 해례본 원문에 ㄱ은 ‘舌根閉喉之形’, ㄴ은 ‘舌附上顎之形’이라 되어 있다.

31) 중성 기본자의 제자에서 천지인 삼재를 상형한 것은 문자의 시각화 단계에서 적용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적용된 것이 설축 등의 음성학적 관찰이다.

一는 혀가 조금 움츠러들고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다. (一 舌小縮而聲不深不淺)
 |는 혀가 움츠러들지 않고 소리도 얕다. (| 舌不縮而聲淺)

훈민정음 창제자는 중성 기본자 각각의 음가를 정확히 관찰하여 위와 같이 기술하였다. ‘舌縮’(설축)은 혀의 움직임이 나타낸 조음음성학적(articulatory phonetics) 술어이다. ‘聲深’과 ‘聲淺’은 소리의 느낌을 표현한 청음음성학적(auditory phonetics) 술어이다. ‘口蹙’(구축)은 입술이 오무라져 등글게 되는 것이고, ‘口張’(구장)은 입술이 옆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현대음성학 용어로 말하는 구축은 원순모음이고, 구장은 평순모음이다. 구축과 구장은 조음음성학적(articulatory phonetics) 술어이다.

초성 기본자와 중성 기본자의 제자 원리는 모두 음성 과학적 특성을 공유하면서 발음기관 상형의 원리가 작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훈민정음이 지닌 과학성의 두 번째 근거는 기본자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 때 적용된 제자 원리가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초성과 중성에서 각각 기본자를 만들어 놓고 이 기본자를 바탕으로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초성의 나머지 글자는 그것이 표상하는 소리의 거셈에³²⁾ 따라 기본자에 가획하여 만들었고, 중성의 나머지 글자는 기본자를 서로 합성하여 만들었다. 중성 기본자의 합성에 작용한 원리는 음양론이다. 기본자를 바탕으로 삼아 가획(초성자)과 합성(중성자)의 방법을 적용한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훈민정음이 과학성을 획득한 요체(要諦)가 되었다. 이 점은 훈민정음 문자체계의 가장 독창적인 특성을 이루는 것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보아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적 성취라 생각한다.

훈민정음의 과학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초성 제자의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이고 두 번째 원리는 가획이다. 초성에서 가획의 원리는 오음의 각 기본자에 모두 적용되었다. 또한 가획은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해졌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된다.

32) ‘거셈’은 해례의 ‘려’(厲)를 번역한 술어이다. ㅋ은 ㄱ보다 소리가 약간 거세게 나오므로 가획을 하였다. ㄴ과 ㄷ, ㄷ과 ㅌ, ㅁ과 ㅂ, ㅂ과 ㅃ 등도 모두 거셈의 크기에 따라 가획한 것이다. ㄴ-ㄷ-ㅌ은 ‘厲’의 정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지므로 획을 하나씩 더한 것이다. ‘厲’의 정도를 값으로 매긴다면 ㄴ(0)-ㄷ(1)-ㅌ(2)가 될 것이다.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畫.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ㅃ. ㅅ而ㅆ. ㅈ而ㅊ. ㅊ而ㅅ. ㅈ而ㅊ. 其因聲加畫之義皆同.

분류	기본자	1단계 가획	2단계 가획
아음(牙音)	ㄱ	ㅋ	
설음(舌音)	ㄴ	ㄸ	ㅌ
순음(脣音)	ㅁ	ㅃ	ㅍ
치음(齒音)	ㅅ	ㅆ	ㅈ
후음(喉音)	ㅇ	ㆁ	ㅎ

<초성자 제자의 두 번째 원리 - 가획의 원리>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 때 적용된 기준은 “소리가 약간 더 세다”는 것이었다. 해례본 ‘制字解’(제자해-글자 만든 원리를 해설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劃 (ㅋ은 ㄱ보다 소리가 약간 더 세게 나온다. 그런 까닭으로 가획을 하였다)

소리의 청각적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그 요소를 글자꼴에 반영하여 획을 하나씩 더해 간 것이 가획법의 핵심이다. 가획법에 안 들어가는 글자는 ‘異體’(이체-꼴을 달리함)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ㄹ, ㅇ, △이 이체자(異體字)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다.

훈민정음 초성자 제자의 세 번째 원리는 ‘竝書’(병서-같은 글자를 나란히 씀)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현대적 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반복’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병서의 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기본자	병서
아음(牙音)	ㄱ	ㄱㄱ
설음(舌音)	ㄸ	ㄸㄸ
순음(脣音)	ㅃ	ㅃㅃ
치음(齒音)	ㅆ	ㅆㅆ

	ㄱ	ㄲ
후음(喉音)	ㅎ	ஹ
	ㅇ	ஐ

<초성자 제자의 세 번째 원리 - 병서의 원리>

이 병서의 원리는 현대 기술의 총아인 휴대폰 문자 생성법의 중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원리 즉 발음기관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반복의 원리는 훈민정음을 과학적 문자로 만든 핵심 근거가 되었다.

중성자의 글자꼴을 만든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중성자 기본자 ·, 一, |는 삼재(天地人)를 상형해 글자꼴을 만들었다. 이 세 개의 기본자를 서로 합성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중성자 합성의 원리를 요약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	一+·=ㄱ	ㄱ+·=ㄲ
一	一+·=ㄷ	ㄷ+·=ㄸ
	+·=ㅌ	ㅌ+·=ㅍ
	+·=ㄴ	ㄴ+·=ㄷ

<중성자 합성의 원리>

중성자의 합성 원리는 초성자에서 본 가획의 원리와 공통점이 있다. 기본자를 먼저 정하고 이 기본자를 바탕으로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이 초성과 중성에서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였다. 중성자에 적용된 합성의 원리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어서 오늘날 휴대폰 문자 생성 기술에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과학적 원리가 내재된 글자꼴이기 때문에 현대의 첨단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형의 원리를 창안하여 먼저 기본자를 만들고 이 기본자에 가획법과 합성법을 적용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한자의 육서법 중 일부(상형, 형성, 회의)와 편방(偏旁)의 결합으로 한자의 구성 원리를 창의적으로 변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동일한 과학적 체계성을 가진 방법론 혹은 이론은 15세기 당시까지 이루어진 주변국의 학문과 문자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중국의 성운학과 문자학, 거란문자와 몽고문

자 그리고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파스와 문자 체계도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은 없었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세종대왕의 정치적 의도(민주성)도 놀라운 것이지만, 상형에 의한 기본자 제정과 가획 및 합성을 제자의 방법으로 창안한 과학성은 참으로 탁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방법을 적용한 결과 훈민정음은 같은 음성 계열에 속하는 글자는 서로 형태적으로 공통점을 띠게 된다. 예컨대 혀소리에 속하는 ㄴ, ㄸ, ㄹ은 ㄴ을 공통요소로 하여 그 모양이 비슷하고, 잇소리에 속하는 ㄷ, ㅌ, ㅍ은 ㄷ을 공통요소로 하여 그 꼴이 비슷하다. 이런 점으로 인해 글자를 배워 발음하기가 매우 쉬운 결과를 얻었다. 배우기 쉽다는 이 특성은 앞에서 본 민주성과 서로 연계됨으로써 상승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자와 한문 능력을 신분적 특권 혹은 신분 징표로 인식했던 조선시대의 양반 지식인과 위정자들은 거의 500년 가까이 훈민정음을 방치해 두었다. 그냥 내던져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긴 세월 동안 훈민정음이 살아남아 민간에서 꾸준히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자가 단순 명쾌하고 배우기 쉬운 특성에 힘입은 바 크다.

기나긴 방치의 세월을 경험했지만, 훈민정음이 지닌 가획과 합성에 의한 방법론적 과학성은 현대의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꽃을 피우게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민정음의 과학성이 구현될 만한 여건이 제공되지 못하였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문자 정보 처리에서 한글의 과학성은 제몫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의 타자기 시대의 한글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타자기에서 겪은 어려움의 원인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한 음절을 이루는 글자가 된다는 이른바 모아쓰기 규정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최현배 선생이 『글자의 혁명』에서 주장한 한글 풀어쓰기와 공병우의 세 벌식 글자판의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후자는 한글의 특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컴퓨터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벌식 사용의 지구적 대세에 밀려나 버렸다. 세 벌식의 퇴조는 매우 아쉬운 것이기는 하나 이른바 세계화의 추세 속에 세계인이 두루 쓰는 자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타자기 시대에 겪은 한글의 고충은 컴퓨터의 기술적 진화와 함께 해소되었다. 이제 모아쓰기 규정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한글의 예술적 조형미, 가독성의 증대로 인한 독서의 효율성, 지면(紙面) 공간 혹은 디지털 기기 화면(畫面) 공간의 효과적 활용, 정보의 압축성 등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자원리와 IT기술의 결합 :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

가획법과 합성법은 똑똑이전화(스마트폰)의 문자 전송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은 회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삼성의 천지인 방식이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조금 가깝지만 일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음 표는 회사별 자음 모음 표시 글자들이다.

회사별 / 표기	자음	모음	표시된 음운
모토로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6개)	20개
천지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14개)	ㅡ, ㅜ, ㅣ	17개
나랏글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ㅣ (6개))	12개
SKY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14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ㅝ, ㅞ, ㅣ (10개)	24개
한글사랑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14개)	ㅡ, ㅜ, ㅣ	17개

<주요 회사별 문자 입력 비교>

해례본에 설명된 제자원리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주식회사 언어과학’에서 특허로 등록한 글자판과 문자 조합법이 있다. 다음은 이 회사에서 만든 초성자의 생성 방법이다.³³⁾

33) 이 기술은 특허 등록만 되어 있고 상품화된 휴대폰에서 실현되지는 않았다.

자음	자음조합방식
ㄱ	「ㄱ」
ㄲ	「ㄱ」 + 병서
ㄴ	「ㄴ」
ㄷ	「ㄴ」 + 가획
ㄸ	「ㄴ」 + 가획 + 병서
ㄹ	「ㄹ」
ㅁ	「ㅁ」
ㅂ	「ㅁ」 + 가획
ㅃ	「ㅁ」 + 가획 + 병서
ㅅ	「ㅅ」
ㅆ	「ㅅ」 + 병서
ㅇ	「ㅇ」

→
적용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이용한 문자입력 방식-(주)언어과학>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 원리가 현대의 첨단 기술 제품에서 그대로 먹혀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서정연한 형식 논리와 음성 과학적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이 문자가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학적 원리가 갖는 보편성이 600년이란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현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3. 철학성의 본질과 현대적 의미

훈민정음에 내재된 세 번째의 보편적 가치는 철학성이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작용한 성리학의 몇 가지 원리가 철학성의 실체인 바 삼재론, 음양론, 오행론, 상수론이 바로 이것이다. 세종대왕은 성리학에 관심이 매우 컸다. 성리학은 흔히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이라 부른다. 주자가 공자의 전통 유학에 불교 교학(敎學)의 철학적 방법론과 이론을 접합하여 유학을 철학으로 승화시킨 것이 성리학이다. 인간과 사물, 세계에 대한 관점과 사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성리학은 당대로서는 최신 학문이었다.³⁴⁾

훈민정음에 융합된 성리학 이론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백두현(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친다.

첫째, 삼재론은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 구성 요소 혹은 우주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를 천(天)·지(地)·인(人)으로 본다. 삼재론은 훈민정음의 음절삼분법, 중성의 기본자 · — |의 글자꼴 책정,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도록 한 합자법 규정 등에 적용되었다. 삼재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삼라만상을 이해하려는 역학 이론이 삼재론이며, 이는 훈민정음의 제자 과정의 여러 국면에서 작용한 내재 원리이다.

둘째, 음양론은 중성 기본자 · — |를 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 때 적용되었다. ·를 —와 |에 각각 조합할 때 —의 위는 양, 아래는 음이며, |의 밖은 양이고 안은 음이라는 틀에 의해 양모음과 음모음이 분류되었다. 이것은 음양론이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된 경우이다.

셋째, 오행론은 초성의 기본자인 아설순치후의 오음(五音) 체계와 결합되었다. 해례 제자해에서 “무릇 사람의 소리는 오행에 근본을 두고 있기에, 사시(四時)와 합하여 어그러짐이 없고 오성(五聲 즉 궁상각치우)과 화합하여 어긋남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아설순치후라는 오음 체계를 오행 ‘수목화금토’의 성질과 결합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내용은 그 논리가 아주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 있다. 중성 11자에도 生成의 위수(位數)에 따라 오행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

넷째, 상수론은 주역의 괘효를 수와 결합하여 표현한 방법을 말한다. ‘천지’(天地)는 역학에서 ‘양의’(兩儀)라 한다. 이 양의와 사람(人)의 합성으로 초출자 넷이 만들어진다. 초출자 넷은 역학에서 ‘사상’(四象)과 대응될 수 있다. 초출자에 재출자 넷을 합하면 여덟 자가 되는데 이 여덟 자는 역학의 ‘팔괘’(八卦)에 대응된다(이정호 1975:81). 해례본에서 상수론은 중성 11자에 각각 배정된 生成의 위수(位數)이다. 중성 11자 전체를 삼재 ‘天地人’과 오행 ‘水木土火金’, 그리고 生成이라는 위수(位數)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였다. 역학의 주요 이론을 통합하여 중성 체계를 파악한 셈이다.

훈민정음에서 삼재론은 초성(하늘), 중성(사람), 종성(땅) 단위로 변용되고,

34) 성리학을 집대성한 것이 『성리대전』이었고, 세종은 중국으로 가는 조선의 사신에게 중국에서도 신간인 이 책을 구입해 오게 했다. 구입해 온 중국판을 다시 조선에서 목판에 새겨 여러 지방 감영에 나누어 간행케 하였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낱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중성의 기본자를 정할 때 천지인 삼재를 본따 만들었다. 훈민정음을 구성하는 부분 단위 속에 삼재의 각 요소가 설정되고, 이 부분들이 결합하여 낱소리를 생성하는 원리 속에 삼재의 상호 작용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삼재론이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삼재론은 인본주의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조화를 전제로 한다. 환경 문제로 위기에 처한 지구에서 이 삼재론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음양론은 디지털 기술의 기본 원리인 이진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다. 오행론은 우주 만물의 구성 원리를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환원하여 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천지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 이런 설명 방법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설정하고, 이것으로써 모든 물질 현상을 해명하려는 현대 과학의 방법론과 상통한다.

오행론은 삼재론이 좀더 상세화된 통합적 세계관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삼재론과 비슷한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는 이론이다. 상수론 역시 오행론과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상수론은 물질과 현상을 수학적으로 추상화하고 최소의 상징 부호로 환원하려는 수학적 방법론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세계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훈민정음 문자 체계에 나타난 철학적 인식 체계는 15세기 당시 조선의 최고 지성인이 행한 사유의 결과이다. 천지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훈민정음 중성 체계에 고스란히 담아낸 것은 훈민정음에 사상적 깊이를 부여한 학문적 성취라 할 수 있다.

3. 보편 가치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

한국인들은 한글에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 한글은 한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 때 한글은 민족 독립의 구심점이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이나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의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신앙 공동체였을 뿐 아니라 그들 고유의 문자인 히브리 문자를 끝까지 지켜 냈다. 히브리 문자로 그들의 성경을 기록했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세계 곳곳의 언어와 법률을 히브리 문자로 표기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들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히브리 문자를 가졌던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기둥이 되어 오늘날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제 강점기 때의 한민족은 신앙의 구심점이 없었다. 유교는 이미 망국의 원흉으로 지탄 대상이 되었었고,³⁵⁾ 불교는 만해 같은 큰 어른이 계셨지만 민족의 중심은 되지 못했다. 새로 들어온 기독교가 민족정신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모자랐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의 정체성 유지는 나랏말과 나랏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40년 전후의 일제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백성을 전쟁으로 내몰며 참으로 가혹한 민족말살 정책을 펼쳤다.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한글 신문과 잡지 등을 폐간하였다. 일제는 심지어 창씨 개명을 통해 황국 신민으로 만들려 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쟁 자원으로 내몰았다. 일제의 발악적 탄압 치하에서 조선어를 연구하고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일제는 범죄행위로 간주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 운동의 상징이었다.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조선어 연구를 하는 학자를 다수 투옥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국어가 갖는 민족 독립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0년 7월에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을 때, 암흑 치하의 조선인이 열광을 한 까닭도 이런 시대 배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해례본의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연재하였다. 필자는 한글이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 기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한글이 공동체로서의 한민족을 엮어 가는 데 구심적 역할을 해 온 점은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성은 알게 모르게 한민족의 의식과 문화 속에 작용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에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이룩한 민주화의 성취에 훈민정음이 지닌 민주성이란 보편적 가치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1960년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아프리카의 세네갈, 모잠비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교육 수준, 문맹률, 소득분배율 등과 같은 사회지표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민의 1인당 소득은 적어도 그 다섯 배는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 후 한국은 1960-85년 동안 그 다섯 배의 90%를 달성하여 산업화에 성공했다.³⁶⁾ 민주화는 산업화

35)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깔려 있지만 현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36) 이 내용은 경제학자 조운제의 컬럼 '중앙시평'(박정희 시대와 박근혜 시대, 2013.3.16.)

와 병행되는 것이며, 교육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 시민의 자질을 성숙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인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한글이 상당한 기능을 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선의 인민을 근대적 시민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한글의 민주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³⁷⁾

훈민정음 창제와 그것의 활용으로부터 획득된 민주성이란 유전자DNA는 한국인의 몸에 내재되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로 전 지구적 과업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나 인도 등의 주요 국가가 이미 성취한 민주체제와 오늘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의 큰 흐름이 진전되고 있다. 훈민정음에 내포된 민주성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구적 과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과학성은 현대인의 삶에 근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 가치인 과학성은 컴퓨터, 똑똑이 전화 등에서 그 본질적 특성이 구현되고 있다.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 가치인 철학성은 음양론, 오행론 등인데 이는 전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는 환경 문제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훈민정음의 철학성은 현대는 물론 지구인을 위한 미래 가치로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에서 인용한 것이다.

37) 송호근(2011:40)은 이 점을 언문이 가진 체제 변동적 의미로 파악한 바 있다.

참고 문헌

- 강신항(1984/1996 증보/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장창석(1989), 훈민정음의 제작과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울산어문논집』 5호,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49.
- 고동환(2005), 조선후기 경강지역 행정편제의 변동과 인구추세. 『서울학연구』 24호, 서울학연구소, 1-30.
- 권재선(1988), 훈민정음 해석 연구, 우골담.
- 권재일(2004), 국어사 연구 방법과 외래 이론 수용, 『국어학』 43호, 국어학회, 385-405.
- 김광혜(1996), 국어발전의 양상, 『선청어문』 24호,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123-146.
- 김기석·유성상(2001), 미군정기 남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1945-48, 『한국문해교육연구-한국교육사학 연구논문』, 교육과학사.
- 김무식(1993),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 논문.
- 김봉좌(2013), 조선 후기 傳畵의 한글 번역과 대민 유포, 『한국문화』 6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79-299.
- 김슬옹(2005),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한국문화사.
- 김완진(1975), 훈민정음의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 『어문연구』 7·8 합병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일조각, 186-194.
- 김용표(2010), 동서종교사상의 화합과 회통 ; 원효의 화회(和會) 해석학을 통해 본 종교다원주의 -종교성의 공동기반과 심층적 대화원리-, 『동서철학연구』 56호, 한국동서철학회, 23-57.
- 김주원(1988), 모음조화와 설축—훈민정음 해례의 설축에 대하여—, 『언어학』 9·10호, 한국언어학회, 29-43.
- 김주필(1991), 훈민정음 창제의 언어 내적 배경과 기반,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김완진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89-107.
- 남성우(1979), 중국언학과 성리학이 훈민정음 창제에 미친 영향, 『중국연구』 4호, 한국의 국어대학교, 159-187.
- 류탁일(1989), 『韓國文獻學研究』, 亞細亞文化社.
- 린 헌트 엮음, 조한욱 옮김(1996),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 그 이론과 실제』, 소나무.
- 민현식(2003), 국어문화사의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0호, 국어교육학회, 201-267.
- 박창원(1998), 한국인의 문자생활사, 『동양학』 28호, 단국대동양학연구소, 57-88.
-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백두현(2001), 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호, 진단학회, 193-218.
- 백두현(2004),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호, 진단학회, 139-187.
- 백두현(2005),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39-85.
- 백두현(2006),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47호, 국어학회, 3-40.
- 백두현(2006),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61-321.
- 백두현(2007),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 22호,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57-203.
- 백두현(2009),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구조 연구, 『국어학』 54호, 국어학회, 75-107.
- 백두현(2009),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63-297.
- 백두현(2010),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과 『합부훈민정음』 연구, 『朝鮮學報』 214집, 朝鮮學會, 1-29.
- 백두현(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어문논총』 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15-156.
- 석주연(2010), 조선시대 한글 문헌의 간행 경위와 배포 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 57호, 43-70쪽, 한민족어문학회.
- 송호근(2011), 『인민의 탄생』, 민음사.
- 신명선(1998), 개화기 국어 생활 연구-독립신문의 광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27-156.
- 안병희(1990),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하여, 『강신항교수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135-145.
- 안병희(2007),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혁진·허준(2011), 1950년대 '전국문맹퇴치교육'의 사회교육사적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65-291.
- 유창균(1989), 황극경세서가 국어학에 끼친 영향, 『석당논총』 15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69-102.
- 육영수(2002), 역사학의 '문화적 전환': 서양적 기원과 한국적 전유, 『역사민속학』 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56-280.
- 윤복남(1990), 한국 문해교육의 사회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하(2005),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여성 대상 傳狀文, 碑誌文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집, 한국문학연구회, 217-241.
- 이경하(2010),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31-55.

- 이광렬(2007), 광해군대(光海君代)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편찬의 의의, 『한국사론』 53호, 정옥자선생정년기념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43-202.
- 이근명(2002), 주희의 『증손려씨향약』과 조선사회 -조선향약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중국학보』 45집, 한국중국학회, 275-293.
- 이근수(1995), 『훈민정음 신연구』, 보고서.
-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호, 국어학회, 1-15.
- 이기문(1980), 훈민정음 창제의 기반, 『동양학』 10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388-396.
- 이상혁(2004),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출판사.
- 이상혁(2004),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출판사.
- 이석규(1998), 조선초기 ‘敎化’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11호, 한국사상사학회, 153-185.
- 이승희(2011), 풍산 홍씨 가문 소장 「읍혈녹」의 국어학적 고찰, 『한국어외문화』 7호,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5-22.
- 이승희(2013),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 양상, 『한국문화』 6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01-325.
- 이영경(2011), 칠서의 언해와 그 국어사적 의의, 『국학연구』 19호.
- 이영경(2013), 영조대의 교화서 간행과 한글 사용의 양상, 『한국문화』 6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9-278.
- 이우성(1976), 조선왕조의 훈민정책과 정음의 기능, 『진단학보』 42호, 진단학회, 182-186.
- 이장희(2008), 어문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13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333-367.
- 이정호(1975),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그 역학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현희(1991), 훈민정음의 이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교육』 21호,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59-74.
- 이호권(2008),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호, 한국어학회, 83-114.
- 이희수 외(2001), “한국성인의 문해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1996), “미군정기 성인교육의 정치사회화 기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희수(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2002-.
- 임용기(2002),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중성체계 분석의 근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애산학보』 27호, 애산학회, 65-90.
- 정병설(2009),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一考, 『한국문화』 48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20.
- 조한욱(1997), 왜 문화를 통하여 역사를 보아야 하는가?, 『이화사학연구』 23호, 이화사학연구소, 15-25.
- 조한욱(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 주명철(1991), 사회사에서 문화사로, 『한국사시민강좌』 8, 일조각.
- 최운오, 고대형, 허경진 외(2006), 개항전후 한국사회의 변동, 연세국학총서 3, 태학사.
- 한우근 이태진 편저(1984),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 조선전기편』, 일지사.
- 허만길(1994), 광복 후의 문맹 퇴치 정책 연구, 『교육한글』, 7호, 한글학회, 175-197.
- 허재영(2004),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 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 13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77 - 605.
- 허재영(2006), 조선 시대 여자 교육서와 문자 생활, 『한글』 272, 197-219쪽, 한글학회.
- 홍기문(1946), 『정음발달사』, 서울신문사 출판국.
- 홍윤표(2006), 한글고문서의 연구 현황과 과제, 『영남학』 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85-262.
- Paek Doohyeon(2011), Hunminjeongeum: Dissemination Policy an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Writing Systems, *SCRIPTA* volume 3, The Hunminjeongeum Society, 1-23.
- Tony Michell/김혜정 譯(1989), 조선시대의 인구변동과 경제사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7호, 부산경남사학회, 75-107.
- 『受教輯錄』, 한국역사연구회 번역본(2001:101) 참고.

훈민정음 원리에 입각한 정보교환 한글 부호계의 평가

변정용(동국대학교)

[요약]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한글 처리의 요구가 확대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으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문자들을 표현하려는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계에 이르게 되고 문제점을 드러낸다. 여기서 한글의 본디 뿌리인 훈민정음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15세기 중엽에 창제된 훈민정음 원리에 입각하여 현행 표준 한글 정보교환 부호 체계를 평가한 다음, 현재의 혼란을 정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서론

1967년 경제기획원이 인구조사결과 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처음 도입[1]한 이래 우리말 정보처리를 위하여 1974년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 표준[2]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특히 웹의 출현으로 한글 표현과 처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한글 정보교환용 부호는 아직도 부가적 요구와 처리 방식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 원인으로서는 한글의 표현 범위는 15세기 문자까지 확대되는 반면에 표현 방식은 1933년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3]’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글의 본디 뿌리인 훈민정음 원리의 일부분만 한글 부호계에 반영되어 표현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혼란이 점점 커져왔다. 또한 한글 맞춤법[3,4]이 주로 현재 표준어 표현(현재 표준어 규정으로 분리)에 중점을 둔 반면 훈민정음 해례[5]는 비록 예의 서문에서는 우리말 표현을 강조하지

만 해례의 본문 내용과 정인지 서문의 내용을 보면 구강구조의 발성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입각하여 현행 표준 한글 정보교환 부호 체계의 제정 과정과 그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가 바르게 개정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정보교환용 한글 완성 음절형 부호계 KS C 5601-1987이 표준으로 확정되면서 한글 음절을 11172자의 21%인 2350자만 지원하게 되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어학분야에서 표준정서법에서 220 음절자, 방언 표기에서 103 음절자, 올바른 국어 교육을 위한 32 음절자 등 총 336자가 필요하다[6]고 지적하였다. 한글 맞춤법 규정 내용조차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한글 부호계에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의 시작은 [7]에서 처음 보인다. 그리고 1991년 연구[8]에서 ISO 2022 확장 규격과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을 우측 도형문자 지역(GR)에 배치하는 제안을 하였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문제와 함께 지적한 연구[9]도 있었다. 북한에서도 조선글 부호계를 제정하는데 조선국규 KP 9566-1997이며, 이에 대한 연구[10]에 따르면 이 역시 KS C 5601-1987과 유사하며, 2350 음절자에 320자 정도가 추가된 내용이다. 그 후 여러 연구[15,16]들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웹기반 정음 입력기 연구[11]에서 훈민정음이 표현할 수 있는 399억 음절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꼴을 지원하며,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3. 훈민정음과 한글의 표기 체계

3.1. 훈민정음

1446년 12월에 완성된 훈민정음 해례[5]의 정인지 서문의 첫 문장은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곧 천지자연의 문자가 반드시 있다(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라고 하여 훈민정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간단 요긴하지만 전환이 무궁하여 잘 통한다”고 하고, 배우기 쉽기로는 “슬기로운 이는 아침을 먹기 전에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말에 대하여 해례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있다. 제자해에서 기본 소리로서 천지인(. 一 1)을 삼고, 5개 주요 발성기관을 본떠서 아설순치후 반설 반치(ㄱ ㄴ 口 ㅅ ㅇ ㄹ △)의 기본 7음을 만든다. 그리고 초성해에서 17자, 중성해에서 11자, 종성해에서 17자 등 45자를 정의한다. 여기서 중성해는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고 해서 28자로 줄인다. 이것은 집합론에서 같은 원소는 중복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같다. 그리고 합자해에서 순음아래 0을 붙여서 입술가벼운 소리를 만들고(연서법), 초성,

제자해: 천지인, 아설순치후 반설 반치
초성해(17): 아{ㄱ ㅋ ㅇ}, 설{ㄴ ㄷ ㅌ ㄹ}, 순{ㅁ ㅂ ㅍ},
치{ㅅ ㅆ ㅈ △}, 후{ㅇ ㅎ}
중성해(11): 천지인{. 一 |} 확장{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종성해(17): 종성부용초성
합자해: 연음법, 2자, 3자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

그림 1. 훈민정음 원리

중성, 중성을 두자, 석자 병서하여(병서법) 확장하고, “무릇글자는 모아야 소리를 이룬다(성음법)”는 원칙에 따라서 “세로꼴 모음은 오른 녀에, 가로꼴 모음은 초성 아래 쓰고, 중성은 잇대어 쓴다(부서법)”고 하여, 약 399억 음절자를 생성하니 과연 천지자연의 문자임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식 1)에서 k는 합용병서를 할 글자 수 1, 2, 3이고, x는 초성 17자, 중성 11자, 종성 17자이다. (식 2)에서 확장된 초성은 E(17)=5219이고, 중성은 E(11)=1463 그리고 종성은 E(17)=5219인데 받침 없음을 더하여 5220이 된다. 따라서 모든 조합가능한 음절의 수 S는 5219*1463*5220 =약 399억이 된다.

$$E(x) = \sum_{k=1}^3 x^k \quad (x = 17, 11, 17) \quad (\text{식 1})$$

$$S = E(17) * E(11) * (E(17) + 1) \quad (\text{식 2})$$

훈민정음은 현재 로마자 표기체계처럼 글자의 무한 나열을 하지 않고 최대 석자까지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범위에서 우리 토속말을 쓰는 법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3.2. 한글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그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 한글 맞춤법에 이르고 있다. 어문규정에 있는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표준어 규정의 제1장 총칙 제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제2장 자모 그리고 제4항에서 한글의 자모 수는 스물네 자로 한다고 하면서 자음 14자, 모음 10자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붙임1에서 부족할 경우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는다 하고 자음 5자와 모음 11개를 정의한다. 붙임2에서 자음 19자와 모음 21자를 정하고 있다. 받침글자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해설보기를 보면 사전에 올릴 적에 혼란을 막는다는 점을 들며 받침 복자음 12자를 합하고 ㄷ ㅃ ㅆ 3개를 빼서 27자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한글에서 생성 가능한 음절의 수는 $19 \times 21 * (27+1) = 11172$ 음절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현대 서울지역의 표준말을 표현하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훈민정음이 생성할 수 있는 음절의 약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4.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

1974년 정보교환용 한글 자모형 부호계 KS C 5601-1974[2]를 제정하면서 채택한 코드는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 한글 자모를 채택한다. 한글 자모는 초성 자음 19자, 중성 모음 10자와 복모음 4자(ㅞㅟㅠㅡ) 등 33자이다. 한글은 낱자를 합용병서하여 자모를 확장한 다음 음절을 합성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초성, 중성, 종성 개념이 아닌 자음과 모음을 부호화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때 1978년 최광무의 한글 모아쓰기 오토마타가 최초 제안되었다.

1982년 정보교환용 한글 자모형 부호계 KS C 5601-1974는 조합 음절형 부호계 KS C 5601-1982[2]로 바뀌고 부록에 한글 자모형 부호계를 둔다. 조합 음절형 부호계의 내용은 두 바이트 체계이다. 16비트를 5빌씩 3 묶음으로 나뉘고 최상위 한 빌은 영문과 한글 구분자로서 0이면 영문, 1이면 한글로 정하였다. 3묶음은 초성 19자, 중성 21자, 종성 27자를 표시함이며, 2의 5성이 32이므로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조합 음절형 부호계의 결정적 단점은 ISO가 정한 국제표준 문자 부호계의 제정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이 시작되면서 조합 음절형 부호계는 완성 음절형 부호계로 바뀌게 된다. 기본적으로 완성 음절형 부호계는 문자 집단이 94를 초과할 경우 국제문자부호계 제정 원칙에 따라서 2바이트로 표현하게 되며, 94×94 즉 8836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일본과 대만, 중국이 채택하고 있고, 여기서 한글을 음절문자로 취급하여 부호화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한자도 함께 표현하는 요구로 인하여 일본의 가나 부호계와 유사하게 배정하면서 한글음절 2350자, 한자 4888자를 배정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행정전산망 관련 법[17]에 포함되면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2350음절은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었다. 1989년 연구에서 정서법에서 220자와 방언표기에서 116자를 표기할 수 없음[6]을 지적한다. 1996년 북한에서 2350자에 320자를 추가한 완성 음절형 부호계[10]가 표준으로 제정된다.

이 때 국산 한글문서편집기인 훈글은 조합 음절형을 계속 채용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내 시장을 장악한다. 반면 완성형 표준을 채택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는 완성형이 가진 문자 표현의 한계로 외면당하면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워드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천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급기야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통합형 한글 코드[12]를 편법으로 만들어 11172음절을 완성형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한글에 대한 열세의 만회를 시도한다.

1992년 6월 ISO SC2 국제문자부호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한글 자모라는 이름으로 자소형 부호인 초성, 중성, 종성 240자가 제안되어 채택된다. 그 후 완성형 11172자로 반영이 되고, 한글 호환 자모 즉 자모형 부호계 94자도 반영이 되면서 유니코드[12]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한글 부호계가 등록된다. 일부에선 이것을 대단한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적인 문자를 자처하는 한글 문자 입장에서 가장 비과학적인 문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여기서 한글 자모 94자는 먼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제정한 한글 자모를 먼저 배정하고 옛한글에서 적어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음절의 복자모를 그 뒤에 배열한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한글 자모에서도 똑 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배열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렬이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자모를 부호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후 새로운 자모가 나타났을 때 순서에 맞게 추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2007년 새로 117자를 등록[14]하면서 사전순서로 배열되도록 끼워 넣기가 되지 않아서 다른 공간에 배치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된 결과로 인하여 부속서에서 한글 정규화 알고리즘과 한글 정렬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두고 있다. 그래서 한글 부호는 유니코드에서 비과학적인 모습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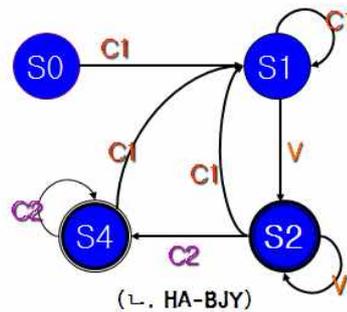
5. 평가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가 가진 근본 문제점은 부호화 체계의 기본 바탕을 한글 맞춤법에 두고 있으면서 훈민정음 창제 이래 사용하였던 모든 글자를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은 1933년 제정되어 우리말 표기 체계의 기본이 된다. 훈민정음 해례는 7년 뒤인 1940년에 발견되지만 한글 맞춤법에는 현재까지도 훈민정음 해례에 담긴 창제원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KS C 5601-1974 한글 자모형 부호계는 11172 음절을 표현한다. 당시는 정보시스템이 대부분 모니터가 아닌 드럼식 인쇄기를 사용하던 때여서 그런대로 별 문제 없이 사용되었다. 그 뒤 KS C 5601-1982 한글 조합 음절형 부호

계는 11172 음절을 표현하며, 문서편집기의 사용이 시작되고, 화면 출력과 점행렬식 인쇄기 등의 정보기기 환경이 진전되는 때 제정된다. 그 때는 아직 정보통신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대로 한글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인식되어 한글 문서편집기의 확산과 함께 보편화 된다. 하지만 그 때 이미 국제표준기구(ISO)의 정보교환용 문자부호계 제정 규정 ISO 2022가 발효되고 있었으나 그것을 모르고 조합 음절형 부호계가 제정된 것이다. 조합 음절형 부호계는 바로 ISO 2022 규격이 정한 제어문자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부호계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KS C 5601-1987은 한글 완성 음절형 부호계이며 한글 음절 2350자, 한자 4888자를 표현하는 부호계이다. 이때는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요구에 따라서 제정된다. 일본의 국가표준인 JIS의 영향을 받은 것도



C1:초성 | V:중성 | C2:종성 | S_n:상태

그림 2. 밀리형 정음 자동틀

부인할 수 없다. 완성 음절형 부호계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합 가능한 11172음절의 8할은 지원하지 못한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위 통합형 부호계(CP949)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호계 자체의 보완에 의하여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부호계는 2004년 KS X 1001:2004로 바뀐다.

이상의 세 가지 부호계는 훈민정음 원리의 일부분 즉 한글 맞춤법의 범위에 머물고 있으며 KS X 1001의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 현대 한글 11172 음절의 20%만 표현하게 되면서 국어학계에서 336개의 국어생활에 필요한 음절이 부족하다고 한 점에서 앞의 두 부호계 보다 개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0년 전후로 미국의 정보 기업들은 전세계 문자를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존의 1 바이트 부호체계인 ASCII를 2 바이트 체계인 유니코드로

바꾸게 된다.

KS X 1005:1995는 미국의 유니코드와 ISO 10646BMP을 도입하여 국내 표준화한 것인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여기에는 자소형, 자모형, 완성 음절형 등 세 가지 부호계가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완성 음절형은 2350음절이 아닌 11172음절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이 부호계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래 사용된 적이 있는 것 중에 그 때까지 발견된 모든 옛한글 자모를 추출하여, 복자모를 부호화 대상으로 하여 부호계에 반영한다.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적이 있는 모든 문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훈민정음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따라서 생성할 수 있는 음절의 수는 무려 399억 음절이 된다. 현재 유니코드에 등록된 한글 자모 즉 자소형은 초성, 중성, 종성 자의 총수가 360자 정도이다. 훈민정음은 해례의 창제원리에 따르면 초성만 하더라도 2자, 3자 합용병서를 하면 5219자나 된다. 초성, 중성, 조성을 2자, 3자 합용병서하면 12000 자가 된다. 그러므로 유니코드에 등록된 자소형(한글 자모)의 표현의 범위는 훈민정음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

훈민정음의 표현 범위는 해례의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한글 맞춤법은 1933년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규정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1940년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된 이후로 계속해서 한글 맞춤법을 수정 없이 고수한 것은 문제가 있다. 훈민정음은 천지자연의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이다. 소리를 발성하는 구강구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음절 즉 소리마디는 각 발성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소리를 이루어 내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초성 17자, 중성 11자, 종성 17자와 연음법, 병서법, 부서법과 성음법으로 정의함으로써 ‘아침 글’의 기적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것이 훈민정음의 과학성이라 할 수 있다.

유니코드의 한글 자모는 240자와 추가된 117자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옛한글도 포함하고 있다. 이 부호계는 훈민정음과 가깝다. 하지만 여기서도 복자모를 부호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훈민정음의 기본 원리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훈민정음 원리에 따라서 낱자 부호계로 바뀌어야 한다. 초성, 중성, 종성은 기본으로 45자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복자모를 부호화 하거나 음절을 부호화하면서 가지게 되는

복잡성의 증가나 자모의 사전순서를 흐뜨리는 일들을 피할 수 있다. 훈민정음 부호계를 만들고 조합 글자꼴을 지원하면 그림 2의 자동틀에 의하여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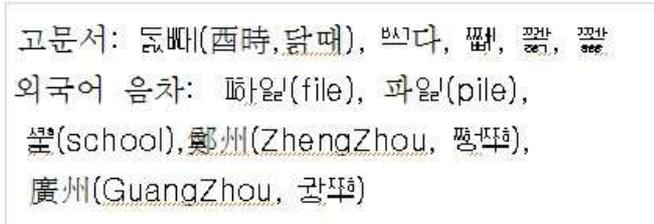


그림 3 훈민정음의 다양한 표현

한글 맞춤법 규정 및 표준어 규정에 의거해서는 그림 3의 초성과 같은 글자를 표현할 수 없다. 예를 중국어의 경우 Zh, Ch 등이 있고, 영어의 경우 F, V, R 등의 발음이 P,B,L과 구별하여 그 발음을 정의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를 기록하는 맞춤법에는 합당하다 하더라도 경상도 방언에서 ‘더버라 추버라’에서 버의 ㅂ은 ㅍ이다. 지금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에서는 옛한글을 특수 문자 다루듯이 하고 있는데 15세기 훈민정음에는 그러한 구분은 없다. 따라서 훈민정음 원리를 적용하면 모두가 차별 없이 같은 원리로 처리할 수 있다.

6. 결론

정보화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글 정보교환 부호계는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면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출발한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 제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최근 KS X 1026 한글처리지침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를 훈민정음 원리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바른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는 1933년에 처음 제정된 한글 맞춤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어 왔다.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훈민정음 창제 이래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문자를 표현하려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표현의 한계에 이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근간으로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유니코드 (ISO 10646BMP)에서 한글 자모를 훈민정음 원리에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자소형을 채택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복자모를 부호화 한 것과 자모순을 일원화 하지 못한 것 등에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유니코드에 자모형, 자소형, 완성 음절형 등의 세 가지 한글 부호계가 존재한다. 문자의 표현 범위로 보았을 때 자소형은 나머지 셋을 충분히 포함한다. 따라서 자소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호계는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한글이 과학적인 문장임을 보여야 한다.

넷째,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소형 부호를 표준안으로 삼고, 천지자연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약 399억의 모든 음절의 글자꼴 표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합 글자꼴 생성기를 비롯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 접속 품(API)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하루 빨리 한글 맞춤법 규정을 훈민정음 맞춤법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한글의 수준을 1933년에서 1443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온전하게 계승하도록 어문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한글 부호계란 용어도 훈민정음 부호계 또는 정음 부호계로 바꾸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계의 문제는 한글 맞춤법 규정 및 표준어 규정을 따르면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라 표현된 글자를 표현하려는 데서 생긴 문제이다. 그것은 한글 맞춤법 규정이 1933년 제정된 뒤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를 따르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분이 전체를 포함하려는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규정을 훈민정음 맞춤법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천지자연의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말은 표준어 규정으로 관리하면 된다. 훈민정음의 원리와 정신은 어떠한 말과 소리도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의 말소리를 품고 있는 누리집(Web)에서 천지자연의 소리인 전세계의 언어를 표기할 능력을 가진 훈민정음으로 하여금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임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 [1] 위키백과, ko.wikipedia.org, 대한민국 컴퓨터 도입의 역사.
- [2] 한국공업규격, KS C 5601-974, KS C 5601-1982, KS C 5601-1987.
- [3] 조선어학회, 한글 맞(마)춤법 통일안, www.hangeul.or.kr, 1933.
- [4]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www.korean.go.kr
- [5]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출판사.
- [6] 김충희, 현행 KS 완성형 한글 코드의 문제점, 1989년도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 발표논문집, pp21-28, 1989.
- [7] 김정수, “정보교환용 한글 완성형 부호계에 대하여”, 한글 200, pp303-319, 1988.
- [8] 변정용, “훈민정음 창제원리와 한글부호계 제정원리 연구”, 제3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55-158, 1991.
- [9] 이균하, “한글의 열린 조합과 이를 위한 오토마타“, 제3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159-167, 1991.
- [10] 변정용, “정보교환용 조선글 부호 KPS 9566-97의 분석“, 제13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pp199-204.
- [11] 이형준, 변정용, “웹에서 완전조합 옛한글 키워드 입력“, KIISE 심포지움 UCWIT 2012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2012, pp.37-40.
- [12] 유니코드, 코드차트:U1100(한글자모:자소형), U3130(한글호환자모:자모형), UA960(한글자모 확장-A), UD7B0(한글자모확장-B), UFF00(로마자), www.unicode.org
- [13] 마이크로소프트, 통합형 코드, 1995.
- [14] 기술표준원, KSX1026-1, 정보교환용 한글처리 안내서, 2007.
- [15] Jeongyong Byun and Seunghyun Oh, “A Representation Korean Syllable Characters Defined in Hunminjeongeum”, 13th Int'l Multimedia Modeling Conference, MMM2007, pp662-670.
- [16] Kyungwook Kim and Jeongyong Byun, “An Implementation of Optimized Hangeul Font sets in Multilingual Input Method”, Proceedings of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PIT2007 (Luoyang, China) Volume 6, IEEE CS, pp.200-205, 2007.
- [17] 국가기록원,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86.

개별 발표 3

훈민정음	ㅂ	ㄱ	ㄷ	ㄱ	표	ㅌ	ㅍ/ㅍ	ㅇ	ㅇ	ㅇ	ㅇ	ㅇ
데바나가리(힌디어)							भ	घ	ध	ख	क	थ
히브리어						כ	ג	ד	ק	פ	ת	
라틴어						bh	gh	dh	kh	ph	th	
						b	g	d	k	f	t	
중국어												fa
일본어						ば	が	だ	か	ぱ	た	

일본어 탁음은 히브리어나 힌디어의 연음(軟音, 유기유성음)보다는 강한 음이며, 일본어에는 훈민정음, 힌디어, 히브리어, 라틴어의 연음 발음 표기가 불가능하다.

2. 훈민정음 활용은 부호문자인가 새 문자인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 Gunkel이 구약의 히브리어가 읽기 어려워서 라틴문자에 부호를 첨가해서 라틴 문자로 히브리어 자모(字母)를 음역하여 읽었다. 이는 두 가지를 편하게 하였다. 첫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음역함으로써 라틴어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자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리스어나 라틴 글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을 라틴어 알파벳을 기본 삼아 강음(다게쉬 포르테 $\pi = \text{h}$ 즉 h 아래에 강음 부호 점 \bullet 을 추가, $\text{v} = \text{t}$ 즉 t 아래에 강음 부호 점 \bullet 을 추가), 연강음(軟強音 다게쉬 레네 $\text{כ} = \text{b}$ 즉 우리말 ㅂ/ㅃ)과 연음(軟音, 즉 베가드케파트 6 자음들로서 연강점이 없는 $\text{כ} = \text{b}$ 즉 b 아래에 연음 부호 ‘가로 막대기’를 첨가 v 자, ㅍ)부호를 라틴어의 제2의 (부호)문자로 창안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총괄적인 라틴어 문자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강음 자음들(겹자음, 된소리)은 12개이며 히브리어 정상자음과 그에 대한 라틴어 음역과 훈민정음 음역을 붙여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ʷ (췌 šš 췌), ʷ (췌 šš 췌), ʳ (콥프 qq 콥), ʳ (차테 šš 차), ʳ (싸멕 ss), ʳ (눈 nn ㄴ), ʳ (멤 mm ㅁ), ʳ (라메드 ll ㄹ), ʳ (웃드 jj ㅇ), ʳ (텔 트tt 트), ʳ (짜인/자인/사인 zz 췌), ʳ (왁브/박브 ww ㄹ)

2. 연강음들(겹자음이 아닌 된 소리 자음들)은 6개이며, 히브리어 베가드케파트, 즉 ʳ (타우 t ט), ʳ (페 p פ), ʳ (카프 k כ), ʳ (달레트 d ד), ʳ (기멜 g ג), ʳ (베트 b ב)

3. 연음들(연강점이 없는 베가드케파트)은 부드러운 약한 유기유성음에 해당한다. 히브리어 6자음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면, ʳ/th ʳ/ph ʳ/kh ʳ/dh ʳ/gh ʳ/bh 이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히브리어 6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ʳ(연서 蓮書) / ʳ, ʳ / ʳ 으로 표기 할 수 있겠다.

이는 훈민정음의 이체자들 ʳ(aw), ʳ(ʳ/w와 v 음가), ʳ(hr), ʳ(f/ph)에 해당한다. 이런 연음(軟音)들이 현행 한글체제에는 없으나, 세계적인 문화국가인도 힌디어,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중국어는 부분적으로 연음들을 쓰고 있다. 서구인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하는 것은 한글보다는 15세기 ‘훈민정음’ 28자와 이체자들이 과학적-수학적이며 미학적인 데 비중을 두는 것 같다. 그와 동시에 한글을 아는 지구촌 세계인들이 한글의 제한적인 자모의 숫자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연음인 F(ʳ), V(ʳ), W(ʳ) 그리고 국어 학자 김두봉 선생님이 지적했던 Th(ʳ)와 ʳ 음가가 한글에 없는 것을 비평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신학대학에서 그리스어(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읽는 데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한글로는 대충 표기하는 형편이며, 주로 라틴어 음역인 국제 통일안을 따로 배워 읽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 그럼에도 한글이 훈민정음의 28자와 이체자를 활용하면, 표의 문자인 중국의 한어(漢語)와 표음 문자인 일본어의 음절문자(音節文字)가 할 수 없는 훈민정음의 자모를 라틴어와 동등하게 활용하여 세계인에게-현재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라도-편리하게 쓰이는 미래창조 문화의 문자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히브리어 연음자음 베가드케파트의 음가에 대해서는 위에 1. 히브리어 문자의 난해성에서 세계 문자들과 비교하여 음가 표기를 설명하였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

3. 세계 정음으로서 훈민정음의 활용 방안(方案)

훈민정음은 중세국어로 연구되면서 엄청난 연구 결과들이 쌓여 있지만, 그런 연구가 현행 한글과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훈민정음의 현대적인 활용은 관심 밖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한글 자모 24자 외에 무슨 문자가 또 필요하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한글에 없는 것은 외국어나 외래어적인 것을 빌려서 쓰면 편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한글 24자 체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같은 문자이지만, 한글은 국어 학자가 연구하고, 중세국어는 훈민정음 학자가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한글에 넣어서 우리말에 없는 외국어 음가를 위해서 한글로 자모를 늘린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많은 불편을 주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배척한다.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그리스 문자의 ‘고전문자’(기원전 5세기 경)가 ‘코이네 문자’(기원전 3세기-기원후 5세기)로 축소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주의 깊게 보면, 고전 그리스 문자가 코이네 문자에서 악센트 부호는 감축 되었어도, 그들의 자모의 음가(音價)는 유지 되었다.

현재 라틴어 문자를 보자. 라틴어 발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쓰인다. 1. 이탈리아 학교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리고 라틴계 프랑스, 스페인과 남미 권 국가들에 의해서 로마 발음’이 쓰인다면, 2. 르네상스 시대 고전 문헌에 근거한 발음인 고전 발음은 국제 학술 대회에서 영미-독일계 학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즉 로마 라틴어가 두 가지 이중 음가체제로 쓰이고 있으니 그 실례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라틴어 본문	Non	Scholae	Sed	Vitae	Discimus	(Seneca 의 글)
고전 발음	논	스콜라에	세드	비타에	디스키무스	
로마 발음	논	스콜래	세드	비떼	디쉬무스	

고전 발음으로 알파벳이[국어학 동국정은 23 자모 중 차청음(次淸音)] c ㅋ, p ㅍ, t ㅌ, v ㅍ/ㅅ로 발음 된다면, 로마 발음[동국정은 전탁음(全濁音)에 해당 됨]은 c ㄱ, p ㅍ, t ㅌ, v ㅂ으로 각각 다르게 발음 된다. 그리고 고전 발음은 sc를 셔 로, 로마발음은 sc를 쉬(정치음 ㅅ)로 발음하는 것이 주목 된다. 고대적인 음가들이 현재에도 함께 쓰이며, 본토 주민들과 남부계열은 고대적인

구려어 ㅂ ㅅ ㅈ ㅊ ㅌ ㅍ ㅍ ㅍ ㅍ 이 고대 한국어 ㅂ 표, ㅅ 표, ㅈ 표, ㅊ 표, ㅌ 표, ㅍ 표, ㅍ 표, ㅍ 표, ㅍ 표 으로, 전청에서 차청으로 음운 추이한 변화를 볼 수 있다. 특히 신라어의 유기음의 발달은 한자(漢字)의 차청음(ㅈ - ㅊ, ㅅ - ㅌ, ㅍ - ㅍ 등의 음운 변화)이 들어와서 무기음 전청(ㅂ ㅅ ㅈ)과 구별되어, 유기음이 발달한 것이요, 이는 현대 한국어가 영어의 영향을 받아 어두의 r 과 l의 발음을 구별하여 쓰는 것과 비교 된다(정광, 상계서, 435쪽). 그럼에도 기독교인이 성경의 지명과 인명에서 원문원어의 차청음(Paul 파울)을 전청음(Paul 바울)으로 부르는 것, 즉 (P)표울 (B)보으로 발음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언어 습관이라 하겠다.

자세히 지적하면, ㅈ/ㅊ을 ㅈ으로, ㅅ/ㅌ을 ㅅ으로, ㅂ/표울 ㅂ으로 혼합 내지 통합(統合)해서 쓰는 습관이다. 예를 들면, Peter ‘피터’를 ‘베드로’로, Christ ‘크리스트’를 ‘그리스도’로, Philip ‘필립’을 ‘빌립보’로, Canaan ‘카나안’을 ‘가나안’으로 음운추이한 표기들이다.

하루바삐 음운추이(변화)가 시대에 맞게 실행되어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외국어의 원음주의를 즉 우리의 훈민정음과 한글로 원음대로 전청음(외국어 k, t, p가 g, d, b로 변한 음)은 차청음(k/ㅋ, t/ㅌ, p/표)으로 바꾸어 문화창조를 실행해 나가야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훈민정음이 고대 인도 데바나가리 자모, 중국의 한어를 참고해서 세계 언어의 음가들을 훈민정음의 사라진 4 자모와 이체자를 제자하여 창제한 것을 현대 서구 언어와 셈어-인도게르만 언어 음가 표기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5. 사라진 자모 4 개와 병 제자 원리 살펴보기

훈민정음 28자에는 사이시옷(△), 꼭지이음(◊), 된이음(◡)과 반모음 아래아(ㅏ, ㅑ)가 있었다. 음가적으로 힌디어 자음과 사라진 자음의 음가가 일치하는 것이 주목된다.

△ = ज्ञ (j/jh), ◊ = (y), ◡ = (), 아래아 ㅏ = अ (‘어’와 ‘아’ 중간 발음);
 병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자음들 ㄹ ㅄ ㅅ ㅆ ㅍ도 힌디어 ‘데바나가리’와 가깝다.
 ㄹ = ळ (rh 반설음/권설음), ㅄ = ओ/औ (장모음 ‘오’/‘오우’), ㅅ = ष (w 양순음),
 ㅆ = भ (bh/v양순음), ㅍ = फ (ph, 순치음)

힌디어(데바나가리)와 히브리어 자음 비교
 아치설순(牙齒舌脣) 연음(軟音)과 베가드케파트 자음

양순음				치(설)음				연구개음			
ㅍ	p	फ	फ़	ㅌ	t	त	ठ	ㄱ	क	क	ख
ㅂ	b	ब	ब	ㄷ	d	द	ड	ㄴ	न	ग	ग
ㅃ	bh	भ	भ	ㄸ	dh	ध	ढ	ㅇ	ङ	घ	घ

위에 힌디어, 히브리어, 라틴어 음역과 훈민정음 이체자 (뽕, 풍 등)는 히브리어 6개 자음 베가드케파트의 연강음(軟強音 ㄱ ㄴ ㄷ ㄹ ㅂ ㅅ)과 연음(軟音, ㄴ ㄷ ㄹ ㅂ ㄱ)과 공통된다. 그런데 히브리어 음역을 위한 라틴어 음역 국제 통일안(1977년)은 히브리어 연음 자음을 2 가지 체제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 자음에 h를 붙이거나, 자음 아래 가로 막대기 ‘-’를 긋는 자형이다.

ㄱ bh/b, ㄴ gh/g, ㄷ dh/d, ㄹ kh/k, ㅂ ph/f, ㅅ th/t

우리 훈민정음은 이체자 ㄹ ㅁ ㅂ 뽕 풍 이 있어, 그 중에 ㅁ(aw) 소운자는 히브리어의 중모음 아우/아빙 ㅅ 로, ㅂ은 접속사 ㅅ (wa)로, 뽕은 베틀(bə)로, 풍은 ㅅ (ph/f)로 표기해서 쓸 수 있겠다. 그럼에도 훈민정음의 연음 자음들은 아직도 힌디어(데바나가리)와 히브리어 연음에 비해서 ㄱ (ㄱ ㅅ) ㄴ (ㄴ ㅅ) ㄷ (ㄷ ㅅ) ㄹ (ㄹ ㅅ) 4 개의 연음들이 부족하다.

이런 자음들의 연강 음과 연음 체제가 힌디어와 히브리어에는 쓰이지만, 훈민정음은 우리가 쓰는 정상 자음 17 개(추가 자음 ㅅ ㅆ ㅇ 포함) 밖에 따로 이체자 ㄹ ㅁ ㅂ 뽕 풍 ㅎ 6 개를 두었지만, 이런 6 개 자음은 우리가 쓰는 자음이 아닌 외국어 즉 외국인이 쓰는 자음들이기 때문에, 외교 문서나 불교 등 종교문헌을 읽기 위해 제자(制字)했던 것 같다.

6. 일본어 청음(淸音), 탁음(濁音) 반탁음(半濁音)과 연음(軟音) 대조(對照)

우리 이웃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カタカナ)를 쓰는데, 이런 가타카

나는 헤이안 시대(9세기 경)에 스님들이 불경을 읽기 위한 보조 기호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쓰여진 문자라고한다. 이는 주로 외래어 표기를 위해 쓰인다. ‘가타카나’에서 ‘カ’는 전청,차청/청음, 탁음 구별없이 우리말로 ㄱ ㅋ으로 합음(合音)하는 것 같다.

우리말의 차청(ㄱ ㅌ ㅍ, 동국정운위 23 자모표 참조)이 일본어에서는 청음(清音)에 해당한다(예: か ka, た ta, と to). 그 다음 일본어 탁음(濁音) 가기 구게고(がぎぐげご)는 우리말 전청음으로 표기 되지만, 일본어의 청음 카키쿠 케코(かきくけこ)보다 부드럽고 연하게 발음 한다. 그리고 반탁음 파피푸페포/빠빠뿌빼뽀(ぱぴぷぺぽ)는 하(は)행 오른쪽 위에 반탁점 ‘ ° ’을 붙인다. 이는 우리말에 차청(次清, ㄱ, ㅌ, ㅍ)과 전탁(全濁, ㄱ, ㅌ, ㅍ)에 해당한다.

<정리>

정리해서 보면, 일본어 탁음은 가(か)행 오른쪽 위에 탁점 “ ”(が 가)을 붙이지만, 힌디어와 히브리어의 다게쉬 레네 ‘연강음’이 없는 ‘연음’ bh/b/v, gh/g/γ, dh/d/ḏ, th/t/θ 음가 표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어의 다 だ 는 한글 ㄷ의 음가이지, ㄷ보다 약한 ㄴ 음은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Ernst Jenni, Lehrbuch der Hebraeischen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1978, 27쪽에 [b]는 [v], [ph]는 [f], [d]는 [ḏ], father], [t]는 [θ , thank], [g]는 [γ, Wagen], [k]는 [x , kochen]을 참고. 위에 d / ḏ 는 ㄴ 으로, t / θ 는 ㄷ 으로 제자 가능(制字) 하다.

어떻든 훈민정음 병 제자원리에 근거한 사이 음, 연음 자음 음가는 일본어의 탁음과 반탁음으로 할 수 없는 힌디어, 히브리어의 연음 음가에 일치하는 음가 표기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7. 세계문자의 조건

1) 자음 20개는 갖추어야 한다. 힌디어 자음 35개, 모음 11개, 히브리어 자음 22(23)개, 그리스어 17개, 라틴어 21개, 중국어 21(22), 훈민정음 21개(한글 14개와 △ ㄷ ㅌ 와 ㄴ ㄷ ㅌ ㅍ 포함).

2) 두 개의 구강부위 조합음가(組合音價)(아치설순 연음, 히브리어 베가드케파트),
 3) 모음의 장단과 최단, 최장 모음 (히브리어 단모음 파타흐, 장모음 카메츠, 최단 모음 하테프 파타흐, 최장 모음 룡 홀렘), 영어(단모음, 장모음),

4) 악센트 표기 : 그리스어 에큐트, 씨킴플렉스, 그레이브(acute, grave, circumflex), 중국어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 (dash, /, \, \), 프랑스어 트레마, 악상떼귀, 시르콩플렉스, 악상그라브 (grave accent, circumflex accent, grave accent), 평상거입[平上去入, 평은 만물이 서서히 피어 난다 (-), 상성은 들어 올린다 (/), 거성은 들어올리고도 씩씩하다 (~), 그리고 입성은 빠르고도 막힌다 (\) (조규태,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2000년, 45-46쪽: 평성은 ‘활’이요, 상성은 ‘:돌’이요, 거성은 ‘갈’이요, 입성은 ‘붙’이다 참조)]은 4계절의 기운에 따라 중국어 4성과 비교하여, 훈민정음 악센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5) 세계문자 음가들 중 특히 라틴어는 고전발음’으로 차청음(c /ㅋ, p/ㅍ, t/ㅌ, v/ㅂ, ㅃ)과 로마 발음’으로 전탁음(c/ㄱ, p/ㅍ, t/ㄷ, v/ㅂ)이 병행해서 쓰여진다면, 일본어는 자음의 청음(清音)을 어두에서 우리말 ‘ㄱ’ 과 ‘ㅋ’ 즉 차청음에 가깝게 쓰거나(か 카, ka) 어중과 어말에서 전 탁음에 가까운 ‘ㄱ’으로 혼용해서 발음한다(오현정, 하스이케 이즈미 외 공저, 다이내믹 일본어, 2011년, 15쪽 참조). 특히 라틴어 고전발음의 차청음 중 Vitae ‘뽕타에’가 로마 발음 전탁음 ‘비떼’로 쓰이는 것은 로마자 ‘Vitae’ 음역을 위한 훈민정음의 비타와 비떼에 비교된다.

6) 별지 도표1 : 한글 로마자 알파벳 발음/악센트. 연음 자음 아치설순 음가 (히브리어 베가드케파트) 표기안: 연음은 약음/부드러운 음이라 ㄱ ㄷ ㅂ ㅋ ㅌ ㅍ 상위에 이음 ‘ㅇ’을 즉 연음소 여린 비음의 ‘ㅂ’ 아래 ‘ㅇ’을 ‘ㅂ’ 위에 ‘ㅇ’으로 한 것은 한 음절 종성(받침)과 부딪히는 감을 피하여, 공간을 넓게 하려는 뜻이며, 이는 ‘ㅎ’ 위에 ‘ㅇ’ 획처럼 ‘ㅂ’ 위에 ‘ㅇ’을 붙인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여린 비음(연서 ㅂㅇ)을 수정(修整)한 것입니다.

7) 별지 도표2 : 훈민정음 4성 표기

<별지 도표 1> 1. 훈민정음 아치설순 牙齒舌脣 연음(軟音)

자음 ㄱ ㄷ ㅂ ㅋ ㅌ ㅍ 의 4성 표기

평 : 가 다 바 카 타 파

상 : 가 다 바 카 타 파

거 : 가 다 바 카 타 파

입 : 가 다 바 카 타 파

<별지 도표 1> Ⅱ. 훈민정음 아치설순 연음 4성 표기

연음 자음 6 개 ㄱ ㄷ ㅂ ㅋ ㅌ ㅍ

평 : 가 다 바 카 타 파

상 : 가 다 바 카 타 파

거 : 가 다 바 카 타 파

입 : 가 다 바 카 타 파

<별지 도표 1> III. 훈민정음 아치설순 자음의 4성 표기
(히브리어 음역)

파타흐(ֿ, a) 단모음

가 다 바 카 타 파

카메츠(ֿ, ā) 장모음

가̄ 다̄ 바̄ 카̄ 타̄ 파̄

하테프파타흐(ֿ, ä)최단모음

가̇ 다̇ 바̇ 카̇ 타̇ 파̇

롱홀렘(î, ô)최장모음

가̂ 다̂ 바̂ 카̂ 타̂ 파̂

<별지 도표 1> IV. 훈민정음 아치설순 연음 자음의 4성 표기
(히브리어 음역)

파타흐(ֿ, a) 단모음

가 다 바 카 타 파

카메츠(ֿ, ā) 장모음

가̄ 다̄ 바̄ 카̄ 타̄ 파̄

하테프파타흐(ֿ, ä)최단모음

가̇ 다̇ 바̇ 카̇ 타̇ 파̇

룽홀렘(î, ô)최장모음

가̂ 다̂ 바̂ 카̂ 타̂ 파̂

<별지 도표 2> 방석종의 아치설순(牙齒舌脣) 연음 자음 음가표기 1

가	다	바	카	타	파
갸	댜	뵤	캬	탤	푼
거	더	버	커	터	퍼
겨	더	벼	켜	터	펴
고	도	보	코	토	포
교	도	보	코	토	포
구	두	부	쿠	투	푸
규	두	부	쿠	투	푸
크	드	브	크	트	프
키	디	비	키	티	피

<별지 도표 2> 방석종의 라틴어 음역 아치설순 연음 자음 II

가	다	바	카	타	파
ça	ða	va/wa	χa	θa	fa/pha
가	다	바	카	타	파
çya	ðya	vya/wya	χya	θya	fya/phya
거	더	버	커	터	퍼
çoe	ðoe	voe/woe	χoe	θoe	foe/phoe
겨	더	벼	켜	터	펴
çyoe	ðyoe	vyoe/wyoe	χyoe	θyoe	fyoe/phyoe
고	도	보	코	토	포
ço	ðo	vo/wo	χo	θo	fo/pho
교	도	보	코	토	표
çyo	ðyo	vyo/wyo	χyo	θyo	fyo/phyo
구	두	부	쿠	투	푸
çoo	ðoo	voo/woo	χoo	θoo	foo/phoo
규	두	부	쿠	투	휴
çyu	ðyu	vyu/wyu	χyu	θyu	fyu/phyu
크	드	브	크	트	프
çə	ðə	və/wə	χə	θə	fə/phə
키	디	비	키	티	피
çi	ði	vi/wi	çi	θi	fi/phi

훈민정음 발음기관 상형의 역동적 유추해석을 영어발음에 적용

- 상형 기원 중성 천/·/, 지/ㅡ/, 인/ㅣ/과 초중성 /ㄱ/, /ㄴ/, /ㅇ/, /ㅅ/, /ㅇ/을 중심으로 -

김정도(건축가)

1. 서론

훈민정음의 글자모양(正音 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에 젖어 있는 한글이 모국어인 사람들이 미국식 영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대안 이론을 체계화한다.

첫 번째 훈민정음 상형기원¹⁾ 중성 천/·/, 지/ㅡ/, 인/ㅣ/을 기준으로 훈민정음 중성을 도점²⁾(導点, Guide point)의 입체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x축에서 혀를 앞, 가운데, 뒤로, y축에서 목의 열린 상태를 ‘작게’(small), ‘보통’(medium), ‘크게’(large)로 각각 삼등분할하고, xy축의 평면좌표계에서 도점을 벡터해석하고, yz축의 평면좌표계에서 혀와 입의 모양의 수평성 과 수직성을 종합적하여 훈민정음 중성을 복제 생성 후 융합한 xyz 3차원중성좌표계를 만들어, 국제발음 모음도표³⁾(IPA Vowel chart)와 체험성(발성기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단순성(쉽게 이해할 수 있는)과 다양성(넓게 적용할 수 있는)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한다.

두 번째 국제음성기호 중에서 미국식 영어의 24개 국제음성기호 자음 발음⁴⁾을, 훈민정음 발성기관 초중성 기원상형 /ㄱ/ /ㄴ/ /ㅇ//ㅅ/ /ㅇ/을 기본으로 유추 해석한 상형들로 옮겨 체험성, 단순성, 다양성을 설명한다.

1) 강신항(2010),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 출판부, p.117.

2) 발음할 때 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혀 위에 가상적으로 설정한 한 점.

3)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20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p.42.

4)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20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p.41.

2. 훈민정음 중성의 동적 해석

2.1. 상형 기원 중성 천/ㅣ 지/ㅡ/ 인/ㅣ/

2.1.1. 천/ㅣ 舌縮而聲深 天關於子也

혀를 응축하여 음이 내는 에너지의 흐름이 자(子)방향으로 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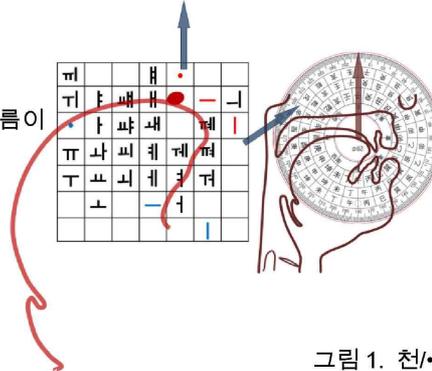


그림 1. 천/ㅣ

2.1.2. 지/ㅡ/ 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關於丑也

혀를 조금 응축하여 음이 내는 에너지의 흐름이 축(丑)방향으로 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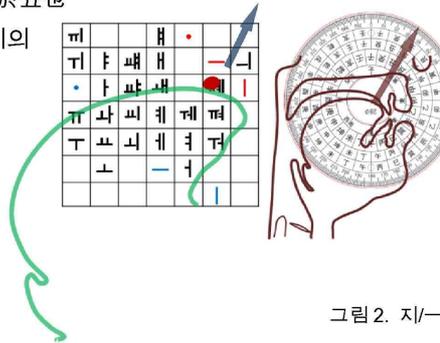


그림 2. 지/ㅡ/

2.1.3. 인/ㅣ/ 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혀를 오므리지 않고 음이 내는 에너지의 흐름이 인(寅)방향으로 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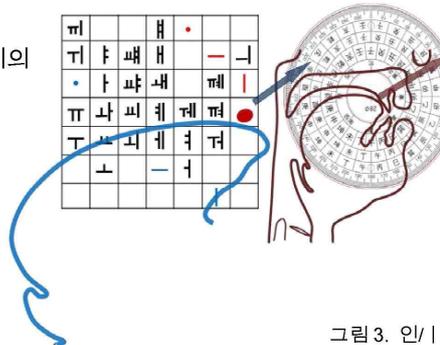


그림 3. 인/ㅣ/

2.1.4. 천/·/지/—/인/ | /의 상대성

자(子) 축(丑) 인(寅)의 방향을 말함은 음을 만드는 혀의 모양을 연구할 때 대상을 오른쪽에서 보았으며, 천/·/지/—/인/ | /의 각각의 혀의 모양이 고정된 혀 뿌리를 기준으로 하여 도점이 위 아래 앞 뒤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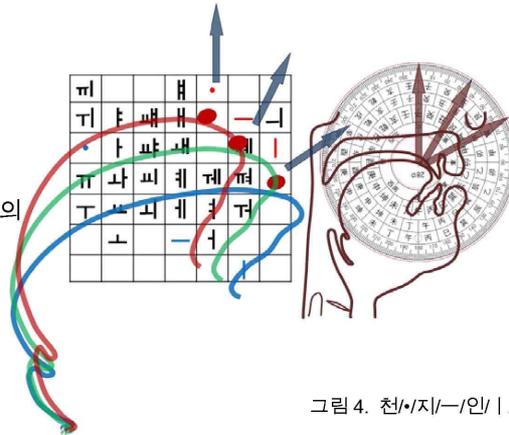


그림 4. 천/·/지/—/인/ | /

2.2. /—/ | / | / | / | /의 동적해석

2.2.1. /—/與/·/同而口蹙 其形則/·/與/—/合而成

천/·/의 혀 모양으로 입을 모으며 도점을 천/·/에서 지/—/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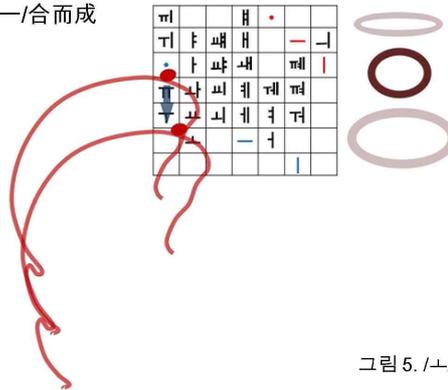


그림 5. /—/

2.2.2. / | /與/·/同而口張 其形則/ | /與/·/合而成

천/·/의 혀 모양으로 입을 벌리며 도점을 인/ | /에서 천/·/으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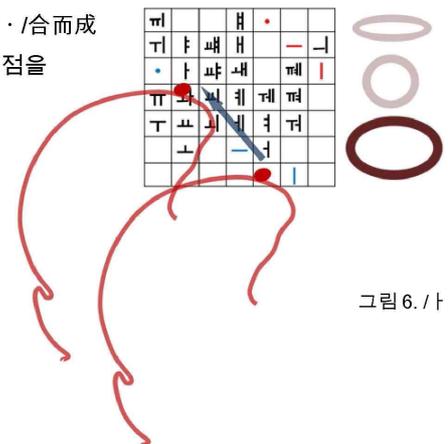


그림 6. / | /

2.2.3. /ㅌ/與/ㄷ/同而口蹙 其形則/ㄷ/與/·/合而成

지/ㄷ/의 혀 모양으로 입을 모으며 도점을 지/ㄷ/에서 천/·/으로 수렴.



그림 7. /ㅌ/

2.2.4. /ㄱ/與/ㄷ/同而口張 其形則/·/與/||/合而成

지/ㄷ/의 혀 모양으로 입을 벌리며 도점을 천/·/에서 인/||/으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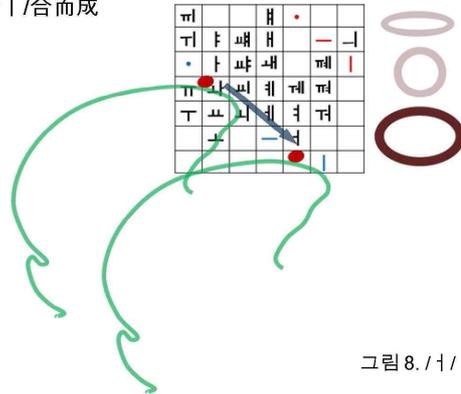


그림 8. /ㄱ/

2.3. /ㅍ//ㅑ//ㅓ//ㅕ/ 의 동적해석

2.3.1. /ㅍ/與/ㅑ/同而起於/||/

인/||/의 혀 모양으로 입을 보다 모으며 혀모양을 천/·/으로 전환하면서 도점을 인/||/에서 /ㅑ/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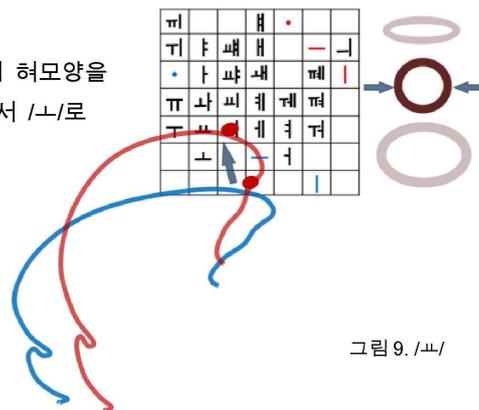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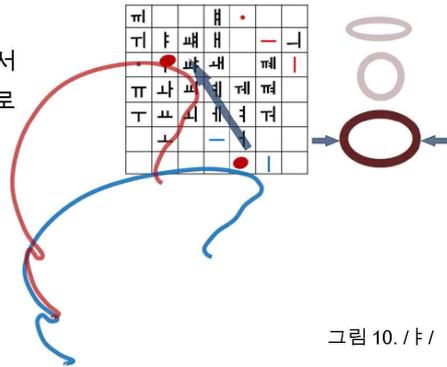


그림 9. /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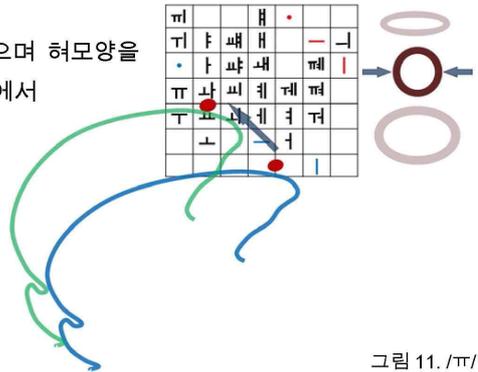
2.3.2. /ㅑ/與/ㅓ/同而起於/ㅣ/

인/ㅣ/의 혀 모양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양쪽 입꼬리를 모으며 혀모양을 천/·/으로 전환하면서 도점을 인/ㅣ/에서/ㅑ/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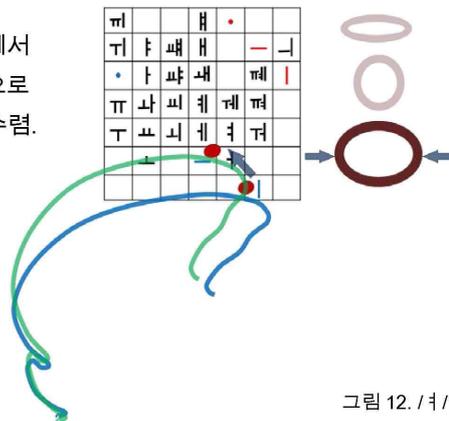
2.3.3. /ㅕ/與/ㅗ/同而起於/ㅣ/

인/ㅣ/의 혀 모양으로 보다 입을 모으며 혀모양을 지/ㅡ/으로 전환하면서 도점을 인/ㅣ/에서/ㅕ/로 수렴.



2.3.4. /ㅛ/與/ㅜ/同而起於/ㅣ/

인/ㅣ/의 혀 모양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양쪽 입꼬리를 모으며 혀모양을 지/ㅡ/으로 전환하면서 도점을 인/ㅣ/에서/ㅛ/로 수렴.



2.4. /ㅍ//ㅑ//ㅓ//ㅕ//ㅗ// 의 동적해석

2.4.1. /ㅍ/ /ㅑ/與/ㅓ/同出於/ㅍ/ 故合而爲
 천/ㅍ/의 혀 모양으로 입을 모은 상태에서
 벌리며 도점을 /ㅑ/에서 /ㅓ/으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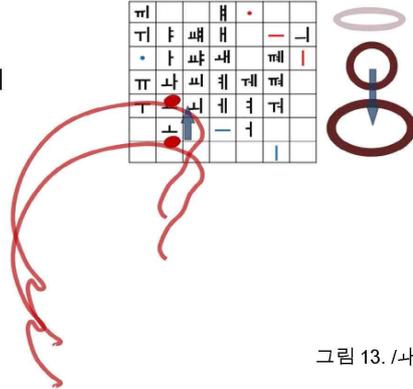


그림 13. /ㅑ/

2.4.2. /ㅑ/ /ㅑ/與/ㅑ/又同出於/ㅑ/ 故合而爲
 인/ㅑ/의 혀 모양으로 입을 보다 모은 상태에서
 조금 벌리며 도점을 /ㅑ/에서 /ㅑ/으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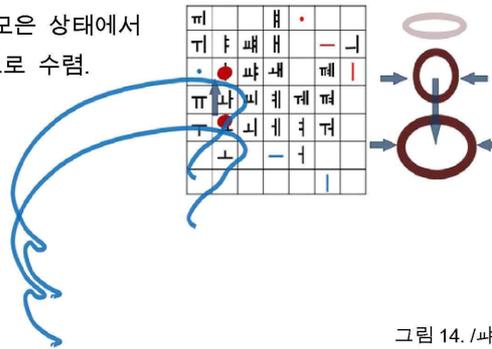


그림 14. /ㅑ/

2.4.3. /ㅓ/ /ㅓ/與/ㅓ/同出於/ㅓ/ 故合而爲
 지/ㅓ/의 혀 모양으로 입을 모은 상태에서 벌리며
 도점을 /ㅓ/에서 /ㅓ/ 방향으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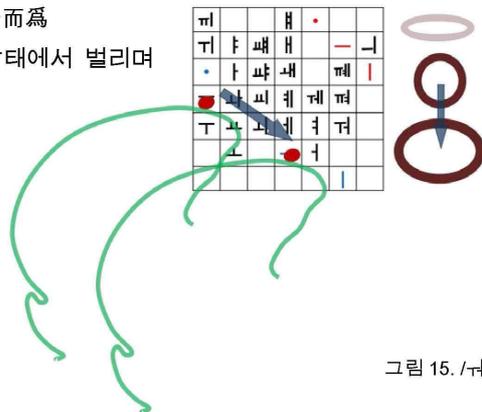


그림 15. /ㅓ/

2.4.4. /ㅈ/ /ㅊ/與/ㄷ/同出於/ㅣ/ 故合而爲

인/ㅣ/의 혀 모양으로 입은 보다 오므린 상태에서
조금 벌리며 도점을 /ㅊ/에서 /ㄷ/ 방향으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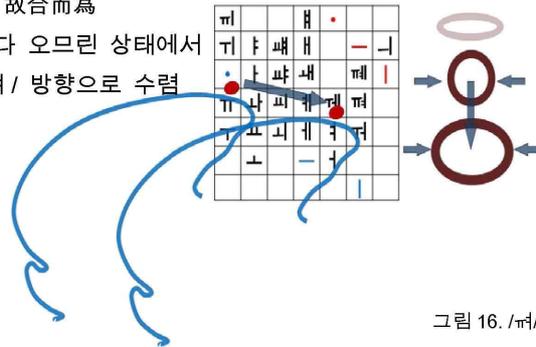


그림 16. /ㅈ/

2.5. /ㅉ/ /ㄴ/ /ㄷ/ /ㅌ/ /ㅍ/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ㅛ/ /ㅜ/ /ㅠ/ /ㅡ/의 동적해석

2.5.1. /ㅉ/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_ 2.2.4.와 같음

2.5.2. /ㄴ/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지/ㅡ/의 혀 모양에서 입 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지/ㅡ/에서
인/ㅣ/ 으로 전환 (ㅡ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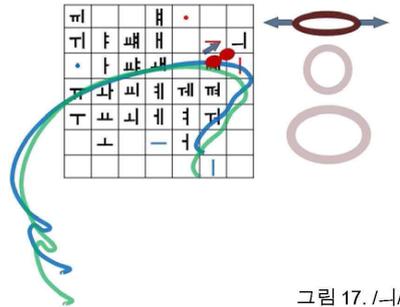


그림 17. /ㄴ/

2.5.3. /ㅛ/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ㅛ/에서 천/·/의 혀 모양으로 입을 모은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 으로 전환(ㅛ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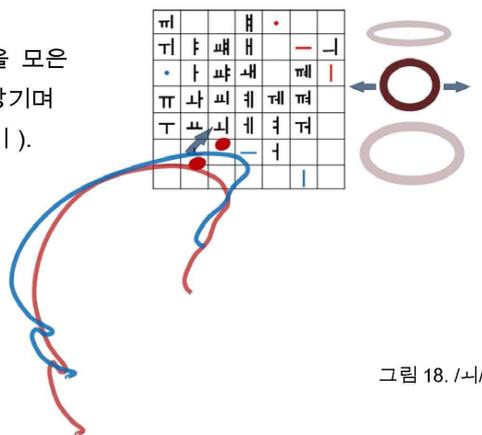


그림 18. /ㅛ/

2.5.4. /ㅙ/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ㅙ/에서 천/·/의 혀 모양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ㅙ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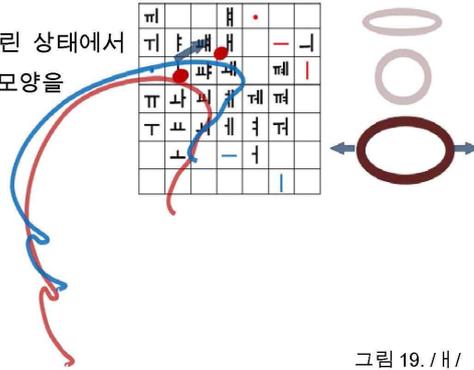


그림 19. /ㅙ/

2.5.5. /ㅚ/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ㅚ/에서 지/ㅡ/의 혀 모양으로 입을 모은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ㅚ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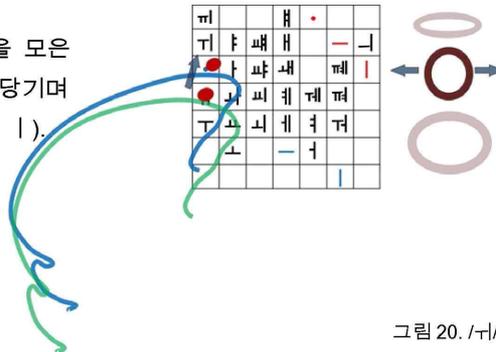


그림 20. /ㅚ/

2.5.6. /ㅓ/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ㅓ/에서 지/ㅡ/의 혀 모양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ㅓ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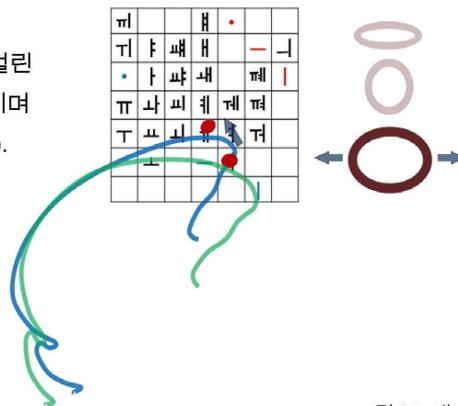


그림 21. /ㅓ/

2.5.7. /ㅍ/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천/·/의 혀 모양으로 /ㅍ/에서 입을 보다
 모은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ㅍ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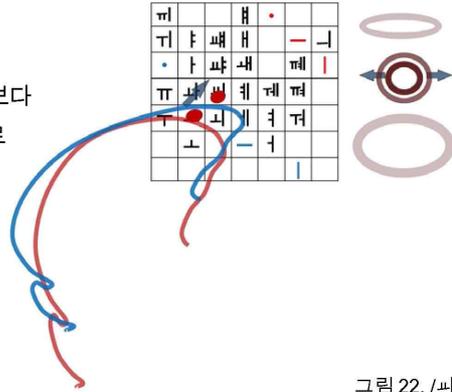


그림 22. /ㅍ/

2.5.8. /ㅑ/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천/·/의 혀 모양으로 /ㅑ/에서 입을 입꼬리를
 모은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ㅑ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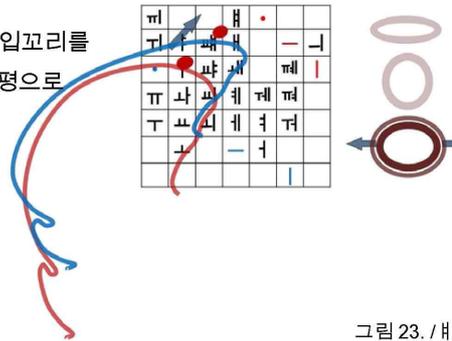


그림 23. /ㅑ/

2.5.9. /ㅓ/ 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

지/ㅡ/의 혀 모양으로 /ㅓ/에서 입을 보다
 오므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ㅓ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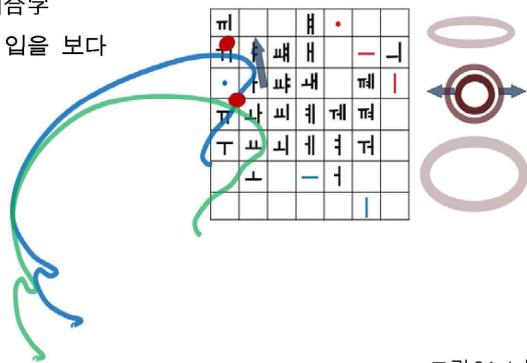


그림 24. /ㅓ/

2.5.10. /켜/ 一字中聲之與/ | /相合字

/켜/에서 지/ㅡ/의 혀 모양으로 입을 조금 벌린 상태에서 입 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 | / 으로 전환(/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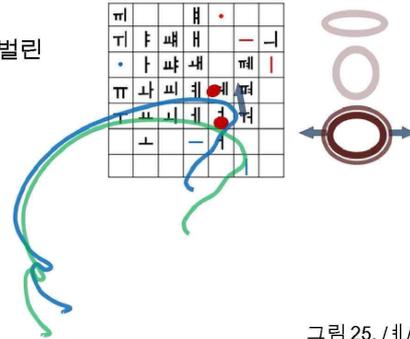


그림 25. /켜/

2.6. /새/ /계/ /꽤/ /계/ 의 동적해석

2.6.1. /새/ 二字中聲之與/ | /相合字

/새/에서 천/·/의 혀 모양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 | / 으로 전환(/새/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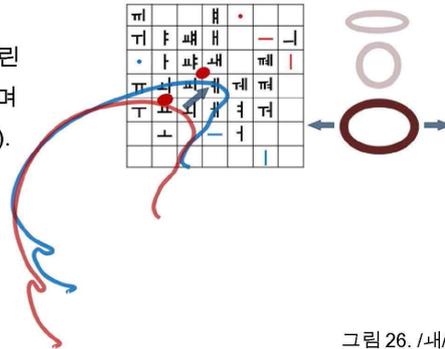


그림 26. /새/

2.6.2. /겨/ 二字中聲之與/ | /相合字四

/겨/에서 지/ㅡ/의 혀 모양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 | /으로 전환(/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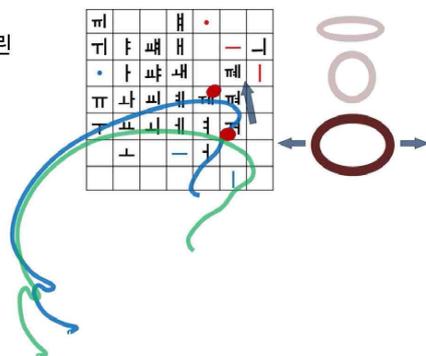


그림 27. /겨/

2.6.3. /ㅞ/ 二字中聲之與/ㅣ/相合字

/ㅞ/에서 천/·/의 혀 모양으로 입을 조금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ㅞ/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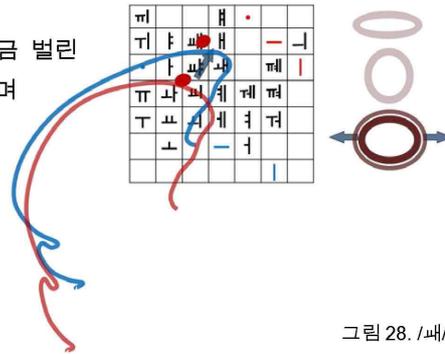


그림 28. /ㅞ/

2.6.4. /ㅟ/ 二字中聲之與/ㅣ/相合字

/ㅟ/에서 지/ㅡ/의 혀 모양으로 입을 조금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ㅟ/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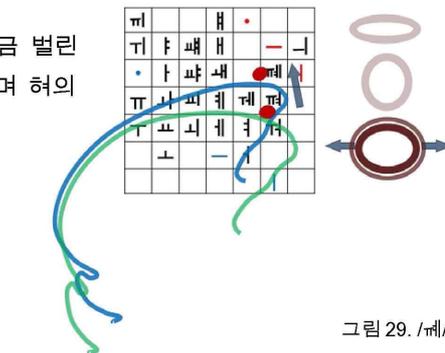


그림 29. /ㅟ/

2.7. 훈민정음 중성의 생성 융합

2.7.1. 훈민정음 중성

역동성에 따른 훈민정음중성들의 도점의 상대적 위치를 종합하면 오른쪽 도표와 같다.

ㅞ			ㅞ	·		
기	ㅞ	ㅞ	ㅞ		ㅡ	ㅣ
·	ㅞ	ㅞ	ㅞ		ㅞ	ㅣ
ㅞ	ㅞ	ㅞ	ㅞ	ㅞ	ㅞ	
ㅞ	ㅞ	ㅞ	ㅞ	ㅞ	ㅞ	
	ㅞ		ㅡ	ㅞ		
					ㅣ	

그림 29. 훈민정음중성도표

2.6.3. /ㅞ/ 二字中聲之與/ㅣ/相合字

/ㅞ/에서 천/·/의 혀 모양으로 입을 조금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ㅞ/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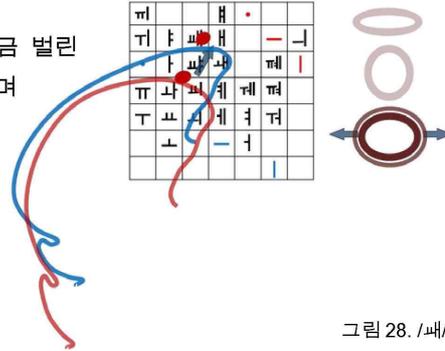


그림 28. /ㅞ/

2.6.4. /ㅟ/ 二字中聲之與/ㅣ/相合字

/ㅟ/에서 지/ㅡ/의 혀 모양으로 입을 조금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좌우 수평으로 당기며 혀의 모양을 인/ㅣ/으로 전환(/ㅟ/ >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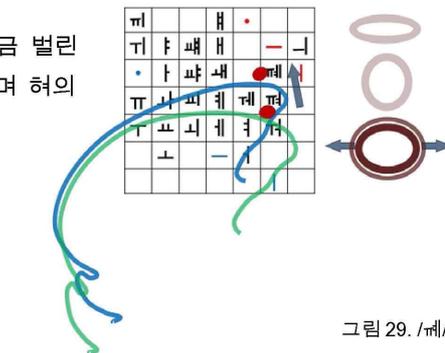


그림 29. /ㅟ/

2.7. 훈민정음 중성의 생성 융합

2.7.1. 훈민정음 중성

역동성에 따른 훈민정음중성들의 도점의 상대적 위치를 종합하면 오른쪽 도표와 같다.

ㅍ			ㅂ	·		
ㄱ	ㅊ	ㅃ	ㅅ		ㅡ	ㅣ
·	ㅌ	ㅍ	ㅈ		ㅞ	ㅣ
ㅈ	ㅊ	ㅍ	ㅅ	ㅞ	ㅟ	
ㅊ	ㅍ	ㅅ	ㅈ	ㅟ	ㅞ	
	ㅊ		ㅡ	ㅣ		
					ㅣ	

그림 29. 훈민정음중성도표

2.7.2. 도점의 역동성에 따른 훈민정음 중성 복제 생성

보통으로 목을 연 상태에서 혀의 앞부분 일 점에 도점을 고정 하여 만들어 진 훈민정음 중성들을 갖고 목의 연 상태를 수직으로 조금 보통 많기로 구분하고 수평으로 혀의 앞 가운데 뒤로 구분하여 그 외의 8개 범주의 훈민정음중성 음들을 추가 복제 생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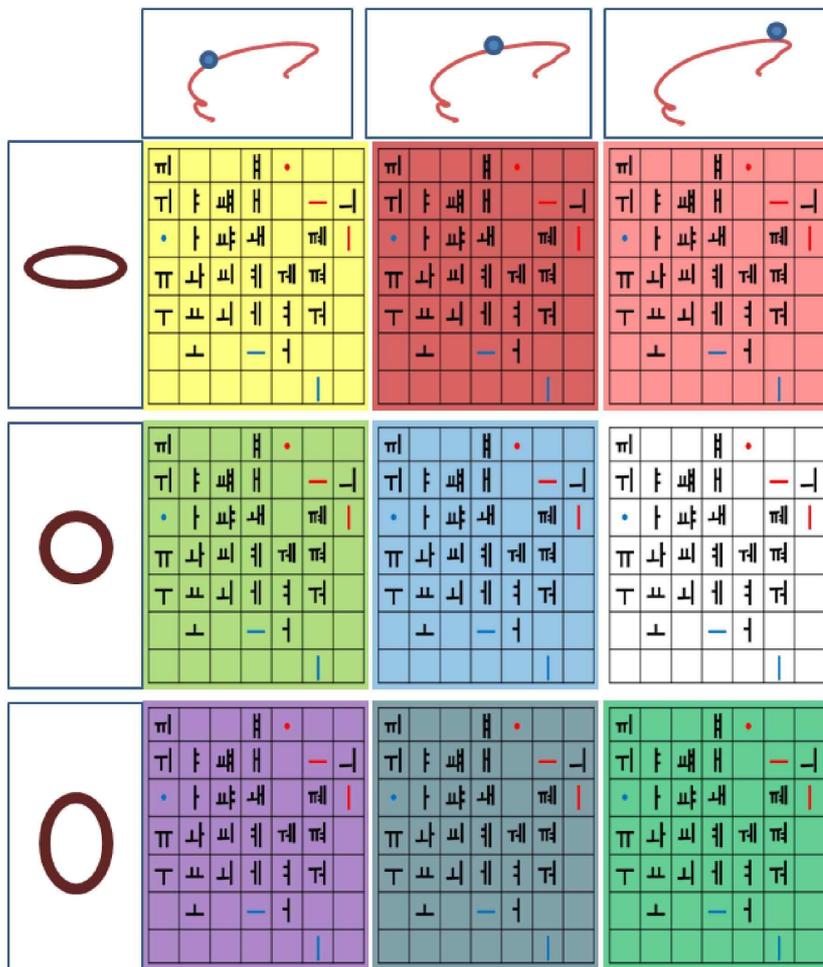


그림 30. 훈민정음 중성 복제 생성 도표

2차 융합에서 목을 보통 연 상태에서 도점을 혀의 앞 가운데 뒤에 놓은 생성 훈민정음 중성 균들을 연결하여 IPA Vowel Chart 상의 발음기호와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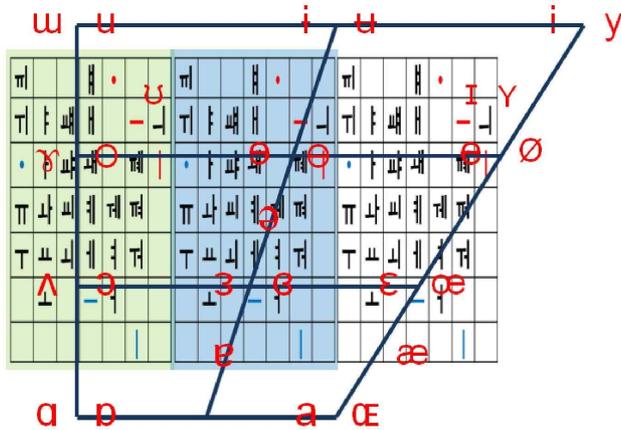


그림 33. 생성훈민정음중성과 IPA Vowel chart 와 2차 융합

3차 융합에서는 목을 많이 연 상태에서 도점을 혀의 앞 가운데 뒤에 놓은 생성 훈민정음 중성 균들을 연결하여 IPA Vowel Chart 상의 발음기호와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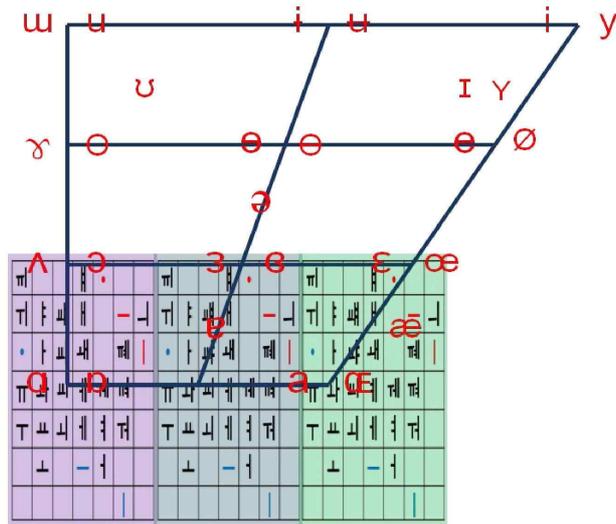


그림 34. 생성훈민정음중성과 IPA Vowel chart 와 3차 융합

1 2 3 차 융합을 각각
국제발음기호에 상응
하도록 종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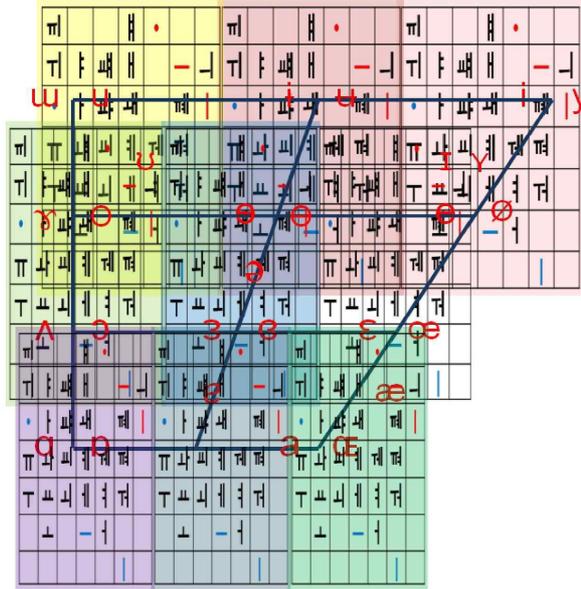


그림 35. 생성훈민정음중성과 IPA Vowel chart 의 융합

3.3. 생성훈민정음중성과 American English IPA Vowel Chart 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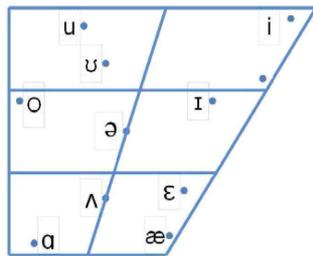


그림 36. IPA American English
Vowel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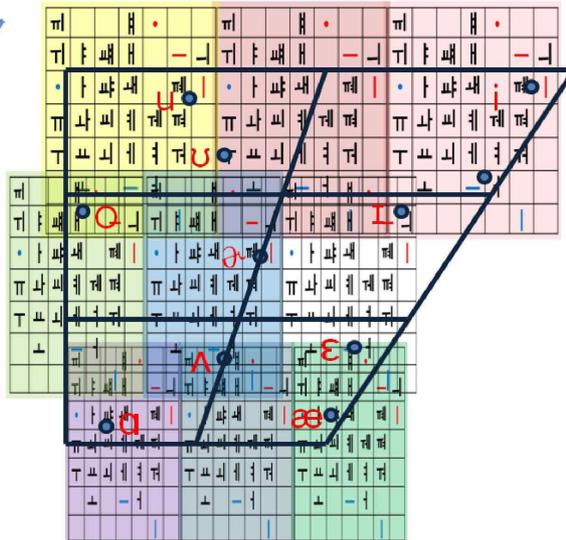


그림 37. 생성훈민정음중성과 IPA American English Vowel Chart 의 융합

3.4. 생성융합훈민정음증성의 상형표기기본

지/ㅡ/와 인/ㅣ/의 양의 획(ㅡ)을 음의 획(-)으로 변환하여 각각의 서로 다른 위치의 9 개 점(•)으로 각각의 생성훈민정음증성 범주를 표현한다.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IPA American English 의 영문예문을 생성융합훈민정음 상형 표기한 부록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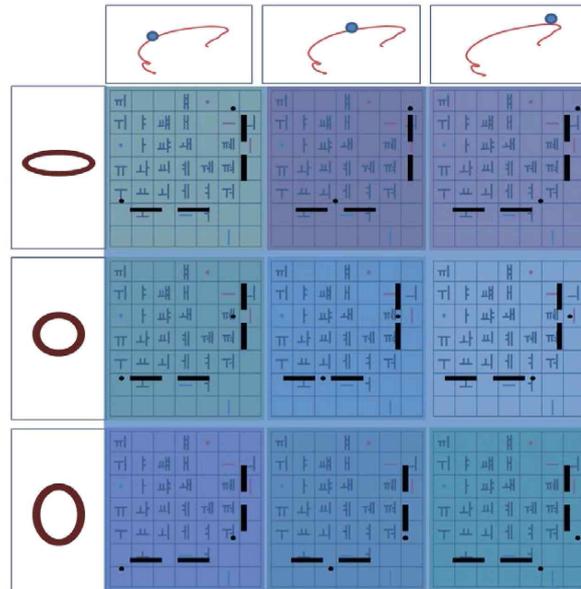


그림 38. 생성훈민정음증성 상형표기기본

4. 훈민정음 초종성의 동적 유추해석

4.1. 아음(牙音)

/ㄱ/의 혀의 모양을 근거로 훈민정음초종성은 연구 대상을 왼쪽에서 보고 발음기관을 상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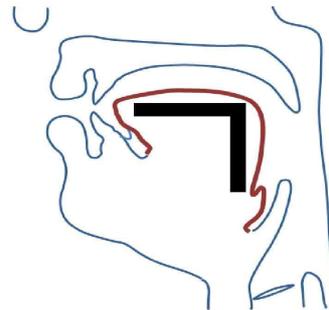


그림 39. /ㄱ/

4.1.1.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劃, /ㄲ/ 爲全濁

발성기관내의 공기의 흐름을 혀의 움직임으로 조절하는데 그에 따라 상형화 할 수 있는 기호들을 유추 해석해서 미국식 영어 자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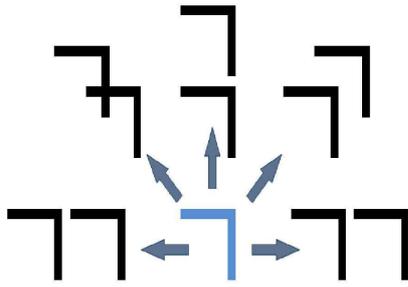


그림 40. /ㄱ/의 확장유추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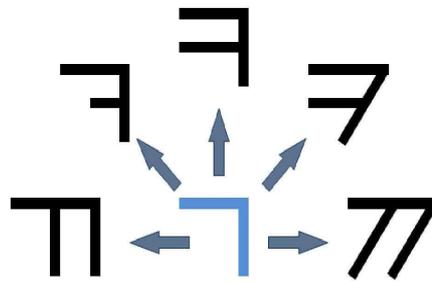


그림 41. /ㄱ/의 유추해석 기호화

4.1.1. /g/ /k/와 대응

/g/ /k/는 연구개(velar) 파열음(plosive)으로 /ㄱ//ㅋ/에 상응할 수 있다.

4.2. 설음(舌音) /ㄴ/ /ㄷ/ /ㄸ/ /ㄹ/

4.2.1. 舌音/ㄴ/ 象舌附上腭之形, /ㄴ/而/ㄷ//ㄷ/而/ㄸ/其因聲加劃之義皆同, /ㄹ/爲全濁



그림 42.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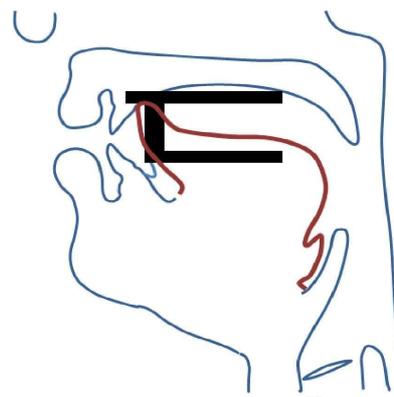


그림 43. /ㄷ/

4.2.2. /d/ /t/와 대응

/d//t/는 경구개부(alveolar) 파열음(plosive)으로 /ㄷ//ㅌ/로 상응할 수 있지만 파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안적 상형기호를 아래와 같이 그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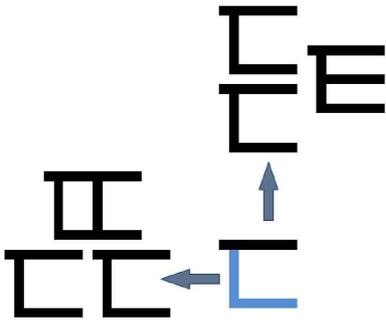


그림 44. /ㄷ/의 수평적 동적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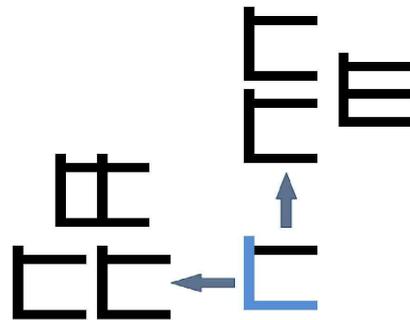


그림 45. /ㄷ/의 수직적 동적해석

4.2.3. 半舌音/ㄹ/의 /l/과 /r/에 대응

/l/ 경구개부(alveolar) 수평적 접근음(lateral approximant)에 /ㄹ/이 상응하도록 하지만 보다 혀의 수평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혀의 위와 뿌리를 표현한 상형/ㄱ/을 혀 아래를 상형한 /ㄴ/보다 두배 크게 그려서 그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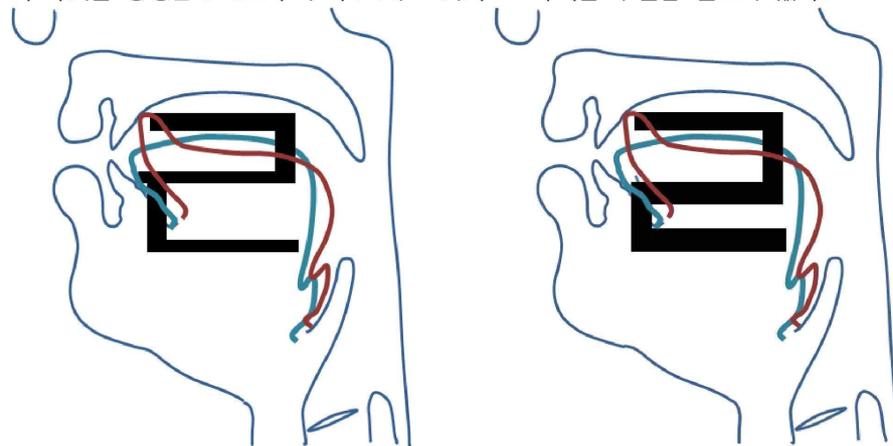


그림 46. /ㄹ/과 /l/에 상응하는 상형

/ʃ/ 경구개부(alveolar) 접근음(approximant)과 상응하도록 /ㄹ/에서 혀 위와 혀 부리의 모서리와 혀 아래 부분만 강조하는 유추상형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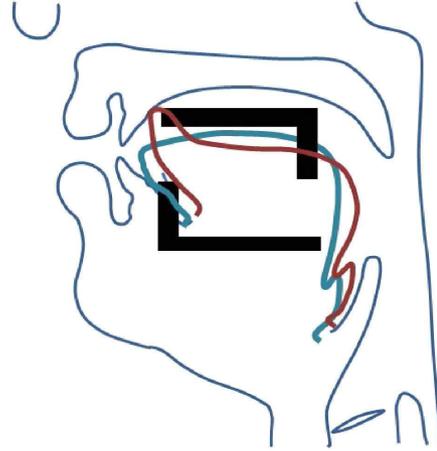


그림 47. /ʃ/에 상응하는 유추상형

4.3. 치음(齒音)

4.3.1. 齒音/ㄱ/ 象齒形, /ㄱ/而/ㄷ//ㄷ/而/ㄸ/ 其因聲加劃之義皆同 /ㄸ/爲全濁半齒音 Δ 易象舌齒之形而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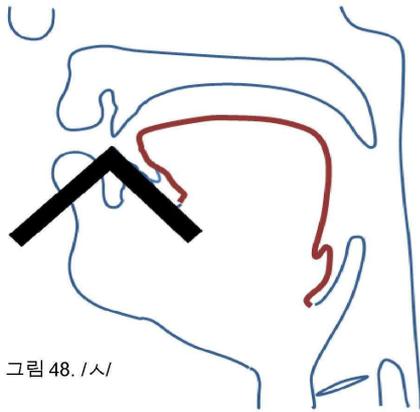


그림 48.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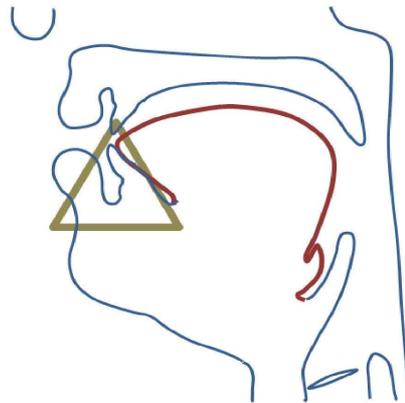


그림 49. /ㄷ/ 혀모양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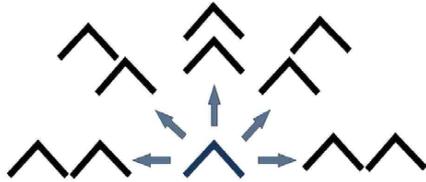


그림 50. /ㅅ/ 상형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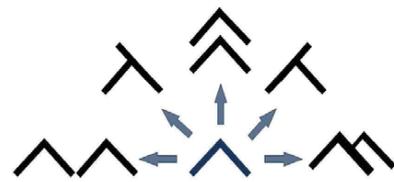


그림 51. /ㅈ/ 상형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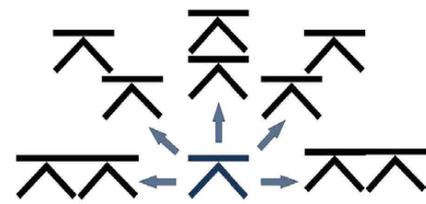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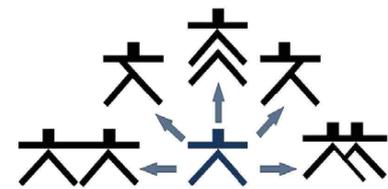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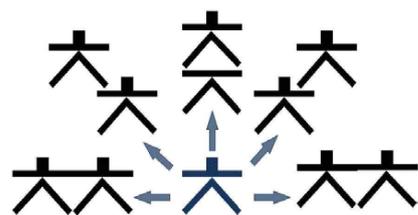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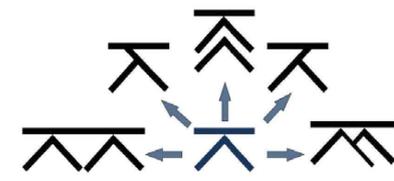


그림 52. /ㅊ/ 상형 발전



4.3.2. /s//z/ 경구개부(alveolar) 마찰음(fricative)에 상응하도록 /ㅅ/에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을 강조하도록 꼭지가 없는 훈민정음 상형을 쓰고, /ㄷ/는 추정된 혀 모양으로 아랫니와 일체가 되어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z/와 상응할 수 있다고 본다.

4.3.3. /ʃ/ /ʒ/ 후치경(post-alveolar)마찰음(fricative) /tʃ/ /dʒ/ 후치경 (post-alveolar) 파찰음 (affricate)은 /ㅅ//ㅈ//ㅊ/의 상형들을 유추 전개하여 후치경으로 향하는 상형들을 선정한다.

4.4. 순음(脣音)

4.4.1. 脣音/ㅁ/ 象口形 /ㅁ/而/ㅂ//ㅂ/而/ㅍ/ 其因聲加劃之義皆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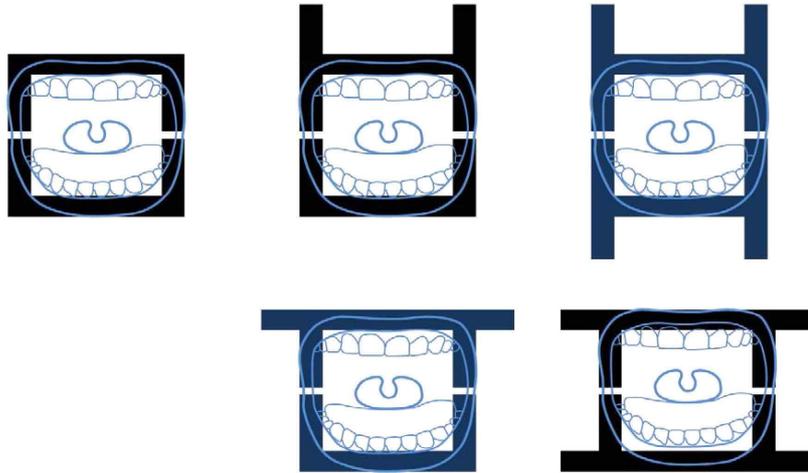


그림 52. /ㅁ//ㅂ//ㅍ/ 상형 발전

4.4.2. /f/ /v/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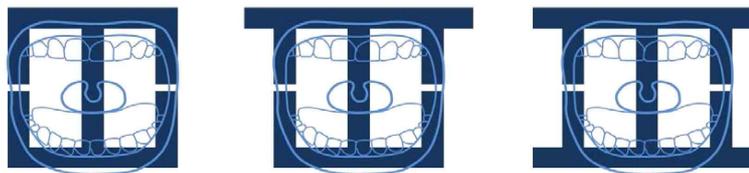


그림 53. /f/ /v/에 적용 상형

4.4.3. /θ//ð/에 적용



그림54. /θ//ð/에 적용 상형

4.5. 후음 (喉音)○

4.5.1. 喉音○ 象喉形, ㄷ而ㅎ 其因聲加劃之義皆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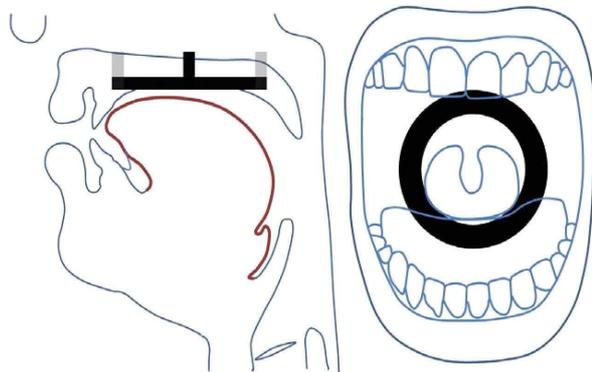


그림55. /ㅎ/

4.5.2. /h/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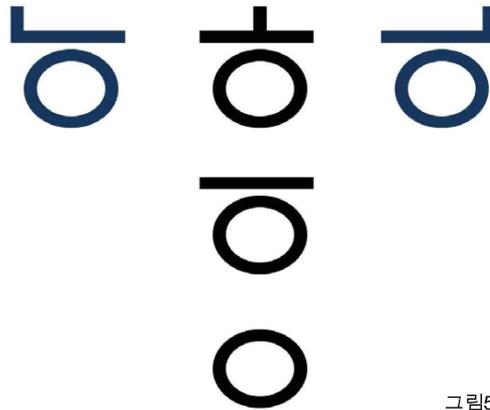


그림56. /h/에 적용 상형

4.6. IPA Consonant Chart 에 적용

	Bilabial	Labio-dental	Dental	Alveolar	Post-alveolar	Palatal	Velar	Glottal
Plosive	p b			t d			k g	
	ㅍㅂ			ㅌㄷ			ㅋ ㆁ	
Affricate					tʃ dʒ			
					ㅊㅈ			
Nasal	m			n			ŋ	
	ㅁ			ㄴ			ㅇ	
Fricative		f v	θ ð	s z	ʃ ʒ			h
		ㅍㅂ	ㅍㅂ	ㅌㄷ	ㅊㅈ			ㅎ
Approximant				ɹ		j	w	
				ㄹ				
Lateral Approximant				l				
				ㄴ				

그림57. 생성훈민정음초종성의 IPA Consonant Chart에 적용

5. 결 론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혀의 모양과 발성기관을 상형화한 훈민정음의 제자 이론을 확장하여 생성융합훈민정음해라는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여 한글이 모국어인 사람들이 편안하게 미국식 영어를 말하는 데 도움이 되고저 한다.

부록 The north wind and the sun

The	North	Wind	and	the
ðə	'no:θ	,wɪnd	ən	(ð)ə
ㅏ	ㄴ ㅏ ㄱ	ㅏ ㄱ ㄷ	ㅏ ㄱ ㄷ	ㅏ

Sun	were	dis·put·ing	which	was
'sʌn	wəː	dis'pjʊtɪŋ	'wɪtʃ	wəz
ㅏ ㄱ		ㄷ ㅏ ㅍ ㅏ ㅏ ㅇ	ㅏ ㅏ ㅏ	ㅏ ㅏ ㅏ

strong·er	when	a	trav·el·er	came
strʌŋgəː	wɛn	ə	'trævələː	kem
ㅏ ㅏ ㅇ ㄱ	ㅏ ㄱ	어	ㅏ ㄱ ㅏ ㄱ ㄱ	ㅋ ㅏ ㅏ

a·long	wrapped	in	a	warm
e'laŋ	'ræpt	ɪn	ə	'wɔ:m
어라 ○	래 ㅍ ㅍ ㅍ	안 ㄴ	어	웁 ㅍ ㅍ ㅍ

cloak.	They	a·g·reed	that	the
'klok.	ðe	e'grɪd	ðət	ðe
		어그리 ㄴ		퍼

one	who	first	suc·ceed-ed	in
'wʌn	hu	'fɜ:st	sək'si:ðəd	ɪn
원 ㄴ	후 ㅍ	퍼 ㄴ ㅍ ㅍ	서 ㅍ ㅍ ㅍ ㅍ ㅍ	

mak·ing	the	trav·el·er	take	his
'mekɪŋ	ðe	'trævələ	'tek	ɪz
메 ㅍ ㅍ ㅍ	퍼	트래퍼 ㄴ ㅍ ㅍ ㅍ	텍 ㅍ	이 ㅍ ㅍ

cloak	off	should	be	con·sid·er·ed
'klok	ɒf	ʃʊd	bi	kən'si:əd
	아 ㅍ	쉰 ㅍ	비	컨 ㅍ ㅍ ㅍ ㅍ ㅍ

strong-er	than	the	oth-er.	Then
stʌŋgə	ðən	ðɪ	'etə.	ðɛn
ㅅ ㅊ ㄱ ㄱ ㅅ ㅊ ㅅ ㄱ ㅅ ㅊ ㅅ ㄱ ㅅ ㅊ ㅅ ㄱ	ㅅ ㅊ ㅅ ㅊ	ㅅ ㅊ	어 ㅅ ㅊ ㅅ ㅊ	ㅅ ㅊ ㅅ ㅊ

the	North	Wind	as	hard
ðə	'no:θ	,wind	əz	'hɑ:d
ㅅ ㅊ	ㄴ ㅅ ㅊ ㄴ ㅅ ㅊ	ㅅ ㅊ ㅅ ㅊ	어 ㅅ ㅊ	ㅎ ㅅ ㅊ ㅅ ㅊ

as	he	could,	but	the
əz	i	'kʊd,	bət	ðə
어 ㅅ ㅊ	ㅇ ㅊ	ㅋ ㅅ ㅊ ㅅ ㅊ	ㅅ ㅊ ㅅ ㅊ	ㅅ ㅊ

more	he	blew	the	more
'mɔ:ɹ	hi	'blu	ðə	'mɔ:ɹ
ㅅ ㅊ ㅅ ㅊ	ㅎ ㅊ	ㅅ ㅊ ㅅ ㅊ	ㅅ ㅊ	ㅅ ㅊ ㅅ ㅊ

close-ly	did	the	trav-el-er	fold
'klosli	dɪd	ðə	'tɹævələ	'fɔld
ㅋ ㄹ ㅅ ㄹ ㅅ ㄹ	ㄷ ㅊ ㅅ ㅊ	ㅅ ㅊ		ㅅ ㅊ ㅅ ㅊ ㅅ ㅊ

his	cloak	a·round	him;	and
hɪz	'kloʊk	ə'raʊnd	ɪm;	,ænd
히즈		어라운드	임	앤

at	last	the	North	Wind
ət	'læst	ðə	'nɔ:θ	,wɪnd
어				

gave	up	the	at·tempt.	Then
,geɪv	'ʌp	ði	ət'empt.	'ðen
게	업		어템트	

the	Sun	shin-ed	out	warm-ly,
ðə	'sʌn	ʃaɪnd	,aʊt	'wɔ:mlɪ,
		샤인드	아웃	웜리

and	im·me·di·ate·ly	the	trav·el·er	took
ænd	ɪ'midiətli	ðə	'trævələ	tʊk
어	이미디아트리			took

off	his	cloak.	And	so
ɒf	ɪz	'klok.	ən	'so

the	North	Wind	was	o-blige-d
ðə	'no:θ	ˌwɪnd	wəz	əblaɪz
				어브라이즈

to	con-fess	that	the	Sun
tɪ	kənfeɪs	ðæt	ðə	'sʌn
	컨페스			

was	the	strong-er	of	the
wəz	ðə	strɒŋgə	əv	ðə
			어프	

two.				
'tu.				
투				

2013년 훈민정음학회 제2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년 5월 10일 인쇄

편집 훈민정음학회
인쇄 마이 C&C

연락처: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3-25
훈민정음학회 사무실
전화: 02-794-6690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